FULLER
THEOLOGICAL SEMINAR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igital Commons @ Fuller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Korean Studies Center

3-14-2017

포스트모던 시대에서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예화 활용과 핵심원리 : 새 설교학 유형을 중심으로

Yong Eun Lee 이용은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이용은, "포스트모던 시대에서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예화 활용과 핵심원리 : 새 설교학 유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7.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ILLUSTRATIONS AND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COMMUNICATION IN THE POSTMODERN ERA: FOCUSING ON NEW TYPES OF PREACHING

written by

YONG EUN LE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Eun Chul Kim

Pyung Chun Yun

Euiwan Cho

March 14, 2017

ILLUSTRATIONS AND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COMMUNICATION IN THE POSTMODERN ERA: FOCUSING ON NEW TYPES OF PREACHING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YONG EUN LEE

MARCH 2017

포스트모던시대에서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예화활용과 핵심원리: 새 설교학 유형을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김 은 철 박사

이 용 은

2017년 3월

Abstract

Illustrations and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Communication in the Postmodern Era:

Focusing on New Types of Preaching

Yong Eun Lee

Doctor of Ministry

2017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While Christianity and its preaching ministry saw explosive growth using the fifteenth century's new media of printing, we are now moving from the modern to the postmodern era. The church's preaching ministry is thus being called to communicate with its people appropriately for this time.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and apply fitting illustrations and core principles in order to effectively communicate to the postmodern congregation using the new types of preaching.

This paper consists of 6 chapters. Chapter 1 defines the research motive, purpose, scope, and structure based on the need for a specific preaching paradigm in postmodernity. Chapter 2 describes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ity and its congregations, as well as weaknesses of its preachers. Chapter 3 identifies some of the problems and risks that illustrations carry in postmodernity, and it then attempts to create a renewed perspective for illustrations. Chapter 4 examines types of preaching, focusing particularly on changing verbal illustration usage, non-verbal illustration usage, and a preaching illustration paradigm of postmodernity based on a sociological lens. Chapter 5 surveys the new types of preaching for the postmodern era, examines how illustrations are to be used in them, and constructs a manuscript accordingly. The conclusion, chapter 6, proposes ways for preachers to communicate more effectively with their congregations by thinking of and using illustrations widely.

Effective communication can be achieved using appropriate illustrations and core principles. However, the Korean church is not currently a favorable context for the new types of preaching. May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be used to help the Korean church communicate effectively to its people in postmodern times.

Theological Mentors: Eun Chul Kim, PhD
Pyung Chun Yun, PhD
Euiwan Cho, PhD

헌 사

이 논문을 모태로부터 서원하시고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금식과 기도로서 후원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결혼생활 20 년 동안 인내와 헌신으로 함께 해온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바칩니다.

감사의 글

한국에서 사역자로 20 년을 보내고 미국으로 부르셔서 목회현장에서 늘 갈망하던 목회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09 년 도미하여 이민교회를 경험하면서 더욱 심화시켰던 목회학 박사 논문을 마침내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논문의 시작을 머뭇거리고 있을 때 격려와 용기를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고, 날카로운 비평과 더불어 각 장을 쓸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김은철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심으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발전적이고 좀 더 세밀한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신 윤병준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해 주신 김세윤 박사님, 목회자의 자기 관리와 위기사역을 깨닫게 해 주신 엄예선 박사님, 함께 강의를 이끌어가시며 종교의 사회학적 이해와 적용을 나누었던 황진기 박사님과 조의완 박사님, 그리고 예배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잘 이해시켜주셨던 Todd John 박사님, 성육신적 제자도의 실체에 대해 열강하셨던 Gareth Icenogle 박사님, 중독의 실체에 대한 근거와 치료를 잘 알려주신 Dale S. Ryan 박사님, 논문지도와 여러가지로 도움을 주신 신웅길 박사님, 그리고 풀러신학교 모든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면서 지금까지 금식과 기도로 목사를 만들어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장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역지를 따라 어느 곳에나 순종하며 따라와 주고 사역과 학업을 위해서 헌신한 영원한 나의 동역자 아내 주은희와 두 자녀 모세, 하늘이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미국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준 동생 용범과 용현 집사님, 부목사로서 마음껏 사역하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홍천희망장로교회와 김광섭 목사님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2017 년 3 월 이용은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 1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 4

제 2 장 포스트모던 시대의 상황 ——— 7
제 1 절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 ——— 8
1. 포스트모던 시대의 도전들 ——— 10
2. 포스트모던 시대의 변화의 흐름 ——— 11
3.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 ——— 13
제 2 절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 ——— 14
1. 진정한 세계관의 변화 ——— 15
2. 회중의 청취 스타일과 환경 변화 ——— 16
3. 궁극적인 우선성 부여의 변화 ——— 18
제 3 절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 ——— 19
1. 커뮤니케이션의 위기 ——— 20
가. 전통적 가치관과 포스트모던 시대 가치관의 혼합 ——— 21
나. 정보화 홍수화 시대와 커뮤니케이션의 혁명 ——— 24
2. '한류'와 '난류'가 공존하는 교회 ——— 25
3. 영상매체의 활용 ——— 27
제 4 절 포스트모던 시대 설교자들의 취약성 ——— 29
1. 복음에 본질성에 대한 확실성의 상실 ——— 30
2. 청중에 대한 이해 부족 ——— 31
3. 설교는 성령의 사역임을 인식하기 ——— 33

제 3 장 포스트모던 시대에서의 예화 활용의 중요성 ——— 35
제 1 절 설교에서의 예화가 갖는 신학적 타당성 ——— 36
1. 예화의 정의 ——— 37
2. 성서 안의 다양한 예화 활동 ——— 40
3. 예수의 예화 사용 ——— 42
제 2 절 설교에서 예화 활용의 문제점 ——— 43
1. 전통적 예화 활용의 문제들 ——— 44
가. 설교자 중심적 적용 ——— 45
나.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적용 ——— 46
다. 권위주의적 적용 ——— 48
2. 신학이 결여된 예화 활용 ——— 50
3. 청중과 소통되지 않는 예화 활용 ——— 51
4. 목회적으로 왜곡된 예화 활용 ——— 54
제 3 절 포스트모던 시대 설교에서의 예화 활용 ——— 56
1. 전통적 설교형식에서의 탈피 ——— 56
2. 회중과의 교감 ——— 58
3. 적용의 새로운 시도 ——— 60

제 4 장 다양한 전달매체를 통한 예화 활용 ——— 63
제 1 절 언어적인 예화 활용 형태 ——— 64
1. 전통적 가치변화에 따른 언어적인 예화 활용 형태 ——— 66
2. 전달매체의 발전에 따른 언어적인 예화 활용 형태 ——— 68
3. 설교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언어적인 예화 형태의 변화 ——— 70
제 2 절 비언어적 예화 활용 형태 ——— 71
1. 비언어적 예화 활용 형태의 기능 ——— 73

2. 비언어적 예화 활용 형태의 분류 ——— 75
3. 비언어적 예화 활용 형태의 매체와 전달 경로 ——— 77
제3절 예화 활용 패러다임의 변화 ——— 79
1. 설교자로서 예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 ——— 80
2. 회중들에게 있어서 예화의 의미 ——— 82
3. 예화 매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도입 ——— 84
제4절 문자 이후 시대 예화 활용 ——— 86
1. 전후 세대와 구도자에 민감한 예화 활용 ——— 87
2. 멀티미디어 시대의 예화 활용 ——— 89
3. 상상력과 이야기식 예화 활용 ——— 91

제5장 포스트모던 시대의 현대 설교학 유형 속의 예화 핵심 원리들 ——— 93
제1절 귀납법적 설교 ——— 95
1. 시대의 요청에 의한 예화 활용 ——— 96
2. 새로운 돌파구로서의 예화 ——— 97
3. 회중이 결론 내리도록 하는 설교형태에서의 예화 ——— 99
4. 귀납법적 설교 사례 ——— 100
가. 프래드 크래독의 설교 준비 과정 ——— 100
나. 연구자의 창작 설교 ——— 102
제2절 서사 설교 ——— 106
1. 설화체 설교에서의 예화 ——— 107
가. 이야기에 관심과 흥미를 더하는 예화 ——— 108
나. 구성(Plot) 되는 형식 속의 예화 ——— 109
다. 로우리의 설교 유형 속의 예화 ——— 111
2. 이야기설교 예화 ——— 112

가. 성경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예화 ——— 112
나. 움직이는 특징의 예화 ——— 113
다. 설교자의 경험에서의 예화 ——— 114
3. 이야기체 설교 사례 ——— 115
가. 이야기식 설교 사례 1 ——— 115
나. 이야기식 설교 사례 2 ——— 117
제 3 절 전개식 설교 ——— 121
1. 활동사진 형태의 예화 ——— 122
2. 전개식 방식의 예화 ——— 124
3. 언어적인 전환으로서의 예화 ——— 126
4. 전개식 설교 사례 ——— 128
제 3 절 4 페이지 설교 ——— 133
1. 현대인들을 위한 예화 ——— 133
2. 4 페이지 설교의 구성 요소의 예화 ——— 134
3. 4 페이지 설교의 장, 단점 예화 ——— 140
4. 4 페이지 설교 사례 ——— 142

제 6 장 결 론 ——— 146

참고문헌 ——— 151

Vita ——— 155

표 목 차

<표 1> 모던 시대와 포스트모던 시대의 세계관 ——— 8

<표 2> 커뮤니케이터와 수용자의 입장 ——— 6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한국교회가 잠재적으로 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이전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한국교회를 상기해보고자 한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세계교회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설교 사역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그 전하는 메시지로 한국교회 회중의 지성과 의지, 그리고 감성을 포함한 전인을 향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 동기가 되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화는,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출현과 같은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포스트모던적인 사고방식, 세계화, 그리고 종족적, 급진적, 종교다원주의의 총체적 영향력은 교회가 가져왔던 그동안의 전통적인 역할을 점령해 버렸다. 그 결과, 아주 빨리 전통적이고 제도화된 교회들이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면서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오늘의 교회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힘을 상실하면서 그 영적, 심리적인 피폐함이 증가하면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교회가, 설교가 그 길을 제시하고 보여 주려고 한다. 현재의 기독교가 그 길을 제시하기 어려운 이유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가 포스트모던 문화를 수용하는데 주저하므로, 복음이 문화와 접할 기회가 적어지게 되고, 접한다 해도 제한

된 설교가 포스트모던인들을 사로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설교 사역은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클라이드 라이드(Clyde Leid)는 *텅빈 강단(The Empty Pulpit)*이라는 책에서, 설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설교 사역에도 위기가 왔다고 말한다.[1] 교회와 복음의 전달자인 설교자가 포스트모던적인 문화와 사람들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에 자신에게 익숙한 것들을 사용하려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설교할 때 신학교에서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복잡한 말이나 고어를 사용하여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듣는 사람들이 볼 때 설교자가 자신을 자랑하거나 듣는 사람과는 무관한 예화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설교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은 자연히 싫증이 나고 지루하며 재미가 없게 되어 듣지 않게 된다. 또한, 반대로 설교자가 듣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기분을 맞추려 할 때는 과감한 설교를 할 수 없게 된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급변하는 세상에 때로는 희망과 위로를 주어야 하겠지만, 사람들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전적이고 심령을 뒤엎는 설교도 과감히 해야 할 때도 있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설교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힘이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시대를 개척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독특하고 강력한 믿음의 힘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려고 많은 예배 모임을 만들어냈지만, 현재의 기독교는 변화되기는커녕 자꾸만 축소되고 있는 좋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늘의 설교가 회중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의 중심부에 설교자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설교자의 복음의 본질성에 대한 확실성의 상실, 자기 이해 부족, 회중에 대한 무관심과 이해 부족, 전통적인 설교만을 고집하면서 다양한 설교 방법을 외면하므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설교의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

[1] Clyde Reid, *설교의 위기(The Empty Pulpit)*,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20-29.

트리니티교회 목사였던 필립스 브룩스(1835-1893)는 이미 19 세기에 앞으로 다가오는 포스트모던주의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를 뚜렷하게 지적한 바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 의해서 그의 주장은 설교의 역사 현장에서 오랫동안 무관심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설교의 실패 여부를 가늠하는 설교와 회중이라는 두 인격적인 요소에서 양자 간에 진리의 상호전달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의 깊게 본 것이다. 그리고 설교자를 설교와 회중이라는 두 인격적인 요소에서 양자 간의 진리가 상호전달 되도록 하는 운반자로 규정한 바 있다. 운반자로 규정함으로써 모던 시대의 잘 나갔지만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정체된 설교 사역과 나아갈 방향을 보게 해 주었다.[2)]

더군다나 오늘의 설교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더 어려워진 이유는 현대인들이 대중 전자매체 등에 중독되어 있어서 단순한 말로 전달되었던 지금까지의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현격하게 상실시켜 버렸다. 여기에 급속하게 변화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화 속에서 다양한 매체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는 회중들은 답습상태에만 머무르고 있는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가지고 설교하는 데 참을 수 없어 한다. 그것을 알고 전달 매체를 바꾼다고 해서 더욱 복잡하고 세분화된 사회에 속해서 살아가는 포스트모던인들을 사로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들은 개인주의 의식이 깊어져서 다른 이들에 대한 무관심뿐만 아니라 대화의 단절도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설혹 참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회중들이라도 전통적인 형태의 설교에서 인격적인 감동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설교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설교를 듣는 현대인들은 오늘도 새로운 세계 속에서 실로 무수한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설교자가 구태의연한 표현과 전달방법을 지양하고 회중을 지루하게 만들거나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 없는 설교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설교 유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설교자는 설교 내용만 강조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설교 전달의 중요성을 깨닫고, 효과적인 전달 방법과 매체 사용법을 배워서 사용함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포스트모던 시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생활에서 밀접하게 접하

---

2)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4), 409.

고 있는 전자상거래 한 가지만으로도 새로운 의식을 강요 받고 있는 형편이다. 설교자들의 패러다임 변형(paradigm shift)[3]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요청은 교회 부흥을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써 설교 유형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초창기 한국교회에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던 부분 중의 하나를 살펴본다면, 그것은 선교사들의 예화 사용을 통한 설교와 전도였다. 지금도 복음에 초청받아야 할 많은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 효과적인 부분이 그들의 삶과 상황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예화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화에 대한 오남용으로 인해 말씀의 전달을 가로막는 불편한 존재로 변해 버렸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설교패러다임은 변하였다. 예화 사용은 훌륭한 설교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왜냐하면, 포스트모던인들의 상황과 전달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예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포스트모던 시대에 있어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설교 속에서 말씀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예화의 활용방법과 설교사례를 제시해서 새로운 설교학 유형들에 접목해 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정장복 교수는 설교를 정의하기를,

> 설교란 택함 받은 설교자가 당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의 진리를 선포하고, 해석하고, 이 진리를 회중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감화하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4]

이처럼 설교란 단순한 것이 아니어서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의 사람을 파악해야 하

---

3) 김경철 · 정성구, *21 세기 한국교회와 이야기식 설교*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1), 54.

4) 정장복, *한국 교회의 설교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1), 70.

고, 그 시대의 문화라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통하여 회중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고대의 말씀인 성경을 현대인들의 삶에 선포하고, 해석하고, 적용시켜야 한다. 전통적, 근대적, 포스트모던적인 사고를 하는 회중들이 공존하는 입장에서 예화의 활용도 그만큼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지만, 보다 다양한 사고와 방식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 회중들에게 예화 활용은 좋은 설교의 보조자가 될 것이다.

이 논문이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설교 사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던, 그러나 그 빛이 바래고 왜곡된 예화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어떻게 예화 활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설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설교책에서 몇 장 정도 할애하거나, 전혀 취급하지 않을 정로도 당연히 하면서도 그 진가를 모르고 사용하는 예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현대의 회중들에게 예화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범위와 방법은 포스트모던 시대에서의 효과적인 설교 사역을 위해 그동안 유용하게 활용되었던, 그러나 그 빛이 바래고 왜곡된 예화를 정립하고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어떻게 예화 활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설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장은 연구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내용과 범위, 전개방법론을 통해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상황과 사람들이 왜 설교에서 예화가 필요한지의 배경과 상황을 살펴보면서, 논문의 내용과 범위를 정해 보았다. 2 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과 회중의 특징, 현대의 교회 상황과 설교자의 역할에 대해 적용해 보았다. 3 장에서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설교에서의 예화가 갖는 중요성으로서 설교에서의 예화가 갖는 신학적 타당성과 예화가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과 위험성, 그러나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설교에 없어서는 안 되는 예화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기존이 생각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예화에 접근해 보도록 노력했다. 4 장에서는 예화를 활용한 다양한 설교 형태들로서, 언어적 예화 형태, 비언어적 예화 형태, 포스트 모던 시대 예화 설교 패러다임의 변화와 문자 이후 시대 예화 설교의 변화에 대해 전반전으로 교회와 사회 현상, 그리고 회중

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 장에서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예화를 활용한 현대의 다양한 새로운 설교 유형들(귀납법적 설교, 서사설교, 전개식 설교, 4 페이지 설교)에 특징을 살펴보고, 설교 사례를 대안으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

지난 20 년 동안의 설교학계의 경향은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석의적인 형태의 설교 형태가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서 새로운 설교학 유형들의 특징은 이미지와 은유, 그리고 스토리가 풍부한 설교형태로 옮겨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즉 최근의 설교학계의 경향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상황과 회중에 맞추어 상상력(Imagination)과 이미지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두고 연구되고 있다. 이것은 적용되기까지는 아직도 시행착오와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근래에 출판된 책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상상력을 동반한 설교와 가르침 (Preaching & Teaching with Imagination), 이야기를 설교하기 (Telling the Story : Variety and Imagination in Preaching), 이야기식 설교 (Storytelling: Imagination and Faith), 마음의 상상력: 설교의 새로운 이해 (Imagination of the Heart : New Understanding in Preaching)* 등의 책들이 대표적이다.[5] 이런 설교형식들에도 예화의 활용은 대단히 유용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6 장은 결론부분으로서 연구결과의 요약, 결론적 제언으로 논문을 마치려 한다.

---

[5] 주승중, *영상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설교하라*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4), 16.

제 2 장
포스트모던 시대의 상황

포스트모던 시대에서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예화 활용과 핵심원리를 논하기 위하여, 첫 단계로 본 장에서는 포스트모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포스트모던 시대와 회중, 그리고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와 설교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포스트모던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은 예술 분야에서 스페인 작가 오니스(Federicode Onis)[6]가 현대 세계 및 모더니즘에 대해서 약간의 반발 경향을 가지면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에게 현대 세계 및 모더니즘이란 용어가 아직도 낯선 것은 이런 사상들이 서구사회에서 시작되고 발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마치 동양 사회가 서구 사회인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모더니즘의 반발로 이를 극복하려는 경향으로 연결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역시 낯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가 지구촌이 되면서 서구사회에서 제기되고 논의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무관하게 되지만은 않았다는 것이다. 세계가 좁아지면서 이미 우리에게도 겪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

[6] Craig Van Gelder, "Postmodernism as an Emerging Worldview," *Calvin Theological Journal* 26 (1991), 412.

<표 1> 모던 시대와 포스트모던 시대의 세계관 비교.[7]

모 던	포스트모던
중앙집중적 계층.	분산된 네트워크.
예측 가능한 세계, 장기적 전략 계획과 목표설정.	'계획 즉시 실행(plan-do)'이라는 신속한 반응을 요구하는 예측 불가능한 세계.
현재를 관리하고 미래를 맞을 인간 능력에 대한 자신감.	현재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관한 비관주의와 편집증.
중앙주도적인 변화.	주변에서 시작된 변화.

이미 이러한 포스트모던 세계관은 기독교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더라도 탈근대적 사고의 중심에 있는 해석학적 사고방식은 불트만, 에벌링, 훅스, 판넨버그, 트레이시 등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신학 방법론과 성경 해석학에 사용되었다. 근대 자유주의 신학이 문화 - 역사적 경험으로만 종교를 파악했다고 비판하며, 종교를 문화- 언어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신학 체계를 구성하려고 했던, 포스트모던 신학이라는 용어를 만든 조지 린드백(Gorge A. Lindbeck)[8] 도 이런 추세를 보여 주는 예다.

이처럼 포스트모던 사회에 있는 교회나 설교자나 회중들은 포스트모던이라는 사상과 그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다.

제 1 절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을 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직까지도 하나의 체계화된 사상이기보다는 우리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시대정신이요, 또는 풍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철학자나 신학자들의 사상뿐 아니라 문화에

---

[7] Eddie Gibbs, *넥스트 처치(Next Church)*, 임신희 역 (서울: 교회성장 연구소, 2004), 30.

[8]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IVP, 1999), 226.

흡수되어 표현되어 있는 특성을 통해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던 시대의 기준이나 권위는 이미 지나갔으며 포스트모던 세계의 정신을 따라 호흡하려는 사람들은 삶의 양식, 가치관, 세계관에 있어서 표준적인 것이나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준이나 권위도 절대화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 결과 권위와 중심과 표준의 상실을 채워야 하는데 그 자리를 다원성과 다양성의 추구로 채우려 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향은 당연히 혼합과 병렬과 절충하는 식의 형태로 표현되므로 복잡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은, 비선형적(nonlinear)이며, 불확실하고, 비국지적 (non- local)[9]이라는 것이다. 모던 시대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직선 모양의 시대였다면, '미래'는 '계획 즉시 실행(plan-do)'라는 신속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예측 불가능한 세계라는 것이다. 또한, 모던 시대에는 현재를 관리하고 미래를 맞을 인간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지만, 포스트모던 시대는 많은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동시에 일어나는 세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미래에 관해서 비관주의와 편집증이 심한 불확실한 시대가 되었다. 원자(atom), 전자(electron), 광자(photon)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느 정도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한 것처럼, 포스트모던 시대는 비국지적(nonlacal)이 되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인 비선형성, 불확실성, 비 국지성은 양극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상반되는 만남이 아니기에 다극적이 될 것이다. 한쪽의 시각은 다른 쪽의 시각이 필요하고, 때로는 다른 쪽 시각의 끝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이런 시각들은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를 이상으로 하는 세계를 꿈꾸게 만들었다. 인간의 이성을 삶의 규범으로 삼아 받들어 살아왔지만 결국은 실패한 모던 시대에 대한 반발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렇게 반발해서 나온 포스트모던 세계도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전의 모든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것이 같은 가치를 누린다는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의 세계는, 규범과 토대를 상실한 무질서와 허무주의를 경험하고 있다.

---

[9] Leonard Sweet, *모던시대의 교회는 가라(Aqua Church)*,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4), 189-190.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 자체가 모더니즘의 극단적인 형태로 볼 수도 있고, 현대세계나 모더니즘이 주장하다가 실패한 것들을 극복해보려는 사상 체계로 파악할 수도 있다. 기독교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이 제기하는 진리와 인식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해방과 실천이라는 방향으로 나갈 때 의미 있는 포스트모던 신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포스트모던 시대의 도전들

포스트모던 시대의 도전들은 모던 시대의 확신들을 전적으로 거부하며 일어나게 되었다. 모던 시대에 확신하였던 자아에 대한 확신의 붕괴와 객관적으로 보는 세계상의 몰락, 그리고 웅대한 이야기의 반발 등으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도전적인 상황들을 볼 수 있다. 인간 이성에 근거하여 현재를 관리하고 미래를 맞을 인간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확신을 바탕으로 하던 모던 시대의 인류문화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10]

현재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상황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는 비관주의와 편집증 증후군 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이 접하며 사는 세상에 대하여 객관적인 전망을 가질 수 없으며 조금이라도 예견할 수 있다면 해석하는 자(constructionist)로서 세계에 대하여 전망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자아에 대한 확신의 붕괴와 믿었던 유토피아가 될 것 같던 세상이 디스토피아가 되는 것을 보면서 기존의 주체세력들이 만들어낸 웅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거절하게 된다. 유토피아를 꿈꾸게 만드는 웅대한 이야기에 대한 불신은 현재까지 표준으로 여겨져 오던 온갖 주장들이나 가치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힘의 행사들을 해온 계층이나 집단들의 관점이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 오던 역사는 이 세상의 웅대한 이야기를 주도해 오던 서양, 백인, 남성, 기독교의 관점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여성 운동, 동성연애자의 투쟁, 환경 운동, 뉴에이지 운동, 포스트 식민주의 등은 웅대한 이야기를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직접, 간접적으로 맥을 같이

---

10) Stanley J. Grenz, *A Primer on Postmodernism*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1996), 40.

한다 할 수 있다.

이성만능주의, 과학에 입각한 유토피아 세계관의 웅대한 이야기에 오랫동안 기독교가 맞서 왔다면,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는 그 어떤 웅대한 이야기도 신뢰하지 않는 오늘의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특별히 포스트모더니즘이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삶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직시하는 순간, 개인들의 삶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철학과 문학 그리고 예술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또 한 번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정신세계 및 삶을 지배하는 대부분의 사상이 그러하듯이 포스트모더니즘도 그 자체 안에 심각한 모순들이 들어차 있다는 것이다.

2. 포스트모던 변화의 흐름

포스트모던 변화의 흐름의 특징이 무엇인가?[11] 그것은 모더니즘을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고, 모더니즘의 특징들에 대한 반발로 인한 문제 제기이며, 나아가 그것은 모더니즘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흔적이라는 것이다. 모더니즘의 여러 요소가 포스트모던의 핏속으로 흘러들어오기는 하지만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모던주의의 발판이 되는 합리주의 사고의 틀 깨기, 기존의 주객 개념의 도식을 넘어서기, 그동안 고정됐던 목적론적 차원의 재발견(fiduciary framework), 믿음을 전제하는 틀, 모던 시대의 사고에서 진보 사고에 대한 도전, 더 이상 희망을 두지 않는 모던 시대의 낙관론, 독단주의에서 서로를 인정해 보려는 상호 의존 등으로 볼 수 있다.

모더니즘을 벗어나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포스트모던의 몸부림은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를 강화시키고 말았다. 모더니즘의 문제를 이성주의에 입각해서 문화와 사회를 획일화시키므로 삶이 억압되어 비인간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이성과 그 바탕이 되는 학문인 철학과 과학이 기초적이며 중심적인 자리를 잃게 만들면 획일화된 문화가 좀 더 다원화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와 문화의 토대 역할을 하는 이성의 객관성을 부정하

---

11) 이형기, *21 세기를 향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의 모색*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208-213.

고 그 중심적인 위치를 박탈해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들은 사람들의 호응과 함께 모더니즘을 해체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지면서, 전반적인 사회 모든 부분에서 다원적 성향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설교를 비롯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소멸해 버릴 수 있는 환경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주일 예배를 앗아가 버릴(to kill a Sunday morning)'[12] 치명적인 요소로 오늘의 교회는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다. 설교 사역을 갈수록 무기력하고 어렵게 만드는 시대적 상황으로는, 문화적인 변화, 지적 구조의 변화, 가치관과 추구하는 바의 변화, 인간의 의식 구조의 변화, 메시지 받는 방법의 변화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의 설교가 '영광의 시대'를 계속해서 구가하는 데 적신호를 나타낼 뿐 아니라, '파괴자'로까지 다가왔다. 포스트모던의 시대가 흘러가며 일으키는 시대 상황의 변화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과 설교 사역을 무디게 하고, 주춤거리게 만들었으며, 회중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말하고, 듣는 능력에 심각한 결합'을 갖게 만든 것이다. 토대가 무너지는 시대라 할지라도 설교 사역이 중단될 수 없는 사역임을 감안할 때, '이 시대의 징조'를 아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회중들이 경험하는 문화·사회적인 변혁의 물결은 전혀 새로운 문화적· 인식론적 (epistemological) 상황에서 이해할 때가 되었다. 향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중의 관심과 혼을 빼앗아 가고, 포스트모던 가치 체계로 나가는 문화는 전통적인 체계를 벗어나 절대적인 진리까지 부인하며, 종교다원주의와 해체주의적인 경향을 띠면서 설교 사역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13] 포스트모던 시대의 크리스천과 교회는 이런 변화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가? 교회는 사람들이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교회인가? 설교자는 이런 시대의 풍조를 이해하고 이런 시대의 사람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이 시대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가 하는 시험대 위에 서 있는 것이다.

---

12) Annie Dillard, *Teaching a Stone to Talk* (New York: Harper& Row, 1985), 40.

13)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서울: WPA, 2005), 79.

3.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

그 시대마다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복음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특정한 언어, 특정한 관습과 전통, 일 처리 방식과 정치, 가족, 경제, 종교에 대한 특정한 문화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다. 문화라는 것은 복잡한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겠지만, 그 사회를 하나로 묶어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이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가에 대한 하나의 믿음 체계와 어떻게 처신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지역 안에서 대대로 내려와 정착된 전통적인 행동양식이나 습관을, 가족, 학교, 교회, 법정, 정부 등의 그 사회의 모든 제도의 체계 등을 일컬어 문화라 말할 수 있다.[14]

전통과 예측 가능한 세계에서는 장기적인 전략 계획과 목표 설정이 가능했다. 그것은 개인이나 사회가 안정적이며 변화에 대해 예측 가능하고 발전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문화에서의 변화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보다는 불연속적인 선상에 있다. 변화는 예고 없이 와서 급격하게 진행되어 나아간다. '계획 즉시 실행(plan-do)'[15]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세계 앞에 유연성과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한다. 이러한 도전은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정치, 교육, 가정과 같이 삶의 전반적인 밀접한 부분에서 경험하게 된다.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과거 세계가 만들어 놓은 추하고 더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폭로하고 폭파하는데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다. 그런 포스트모던 사상가들도 예측 불가능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상황에 대해 새로이 살만한 거소, 즉 대안 제시는 매우 인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고 불가능한 일들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세상이 두려워 진단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두려움으로 거부하기도 하는 것이다. 결국은 포스트모던인들은 모던이라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처럼 지저분하고 위험하며 비인간적인 구조물에 살 필요는 없으나, 대안 제시가 없기에 대신 집을 잃고 헤매는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확립된 철학사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시대정신이요, 현재를 관통하면서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사상 풍조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

---

14) William F. Fore, *매스미디어시대의 복음과 문화(Mythmakers)*, 신경혜· 홍경원 역 (서울: 기독교서회, 1998), 40-41.

15) Eddie Gibbs, *넥스트 처치*, 38.

재 진행 중인 시대 사조이기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어 나갈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럭비공 같은 사회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모던 사회를 규정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을 규정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우리를 크게 지배하였던 계몽주의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사회로 들어섰다고 하여 탈 현대성(postmodernity), 현대 이후 주의(postmodernism), 현대 이후 세계(postmodern world)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한계와 문제점을 넘어 서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에 그동안의 모던 세계의 사회와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예측이 어렵고 매우 빠르게 변화는 문화와 가치의 혼합결과로 인한 긴장과 갈등은 포스트모던적 상황을 연출하는 첫째 조건이 되었다. 역설적으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감으로 더 심각하게 파편화와 지역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생각은 세계적으로 하되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16]

제 2 절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

모던 시대의 과학이나 객관성이나 개인주의나 보편주의의 사조는 그 힘이 다하였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고, 공동체의 죽음과 소외, 관료 체제를 만들어 내고, 또다시 새로운 억압 아래 놓이게 만드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던 시대의 진리의 확실성과 보편성이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어느 한쪽에 치우쳤는데 그것이 서양, 백인, 남성, 식민 지배자들의 관심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런 모던 시대의 가치에 의존하게 될 때의 문제들은 개인의 무기력이 심화되고, 지역 공동체라는 테두리가 파괴되고, 불가피한 힘이 지나치게 남용되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이다.

---

16)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106.

구약학 교수인 브루거만(Walter Brueggemann)은[17] 모더니즘이 진리의 객관성과 확실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므로, 무기력해지고, 파괴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 포스트모던 시대의 어려움 속에 사는 회중에게 상황성과 지역성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던의 관점을 받아들여 이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진리의 상황성과 지역성을 받아들여 개인의 감정과 경험에서 즐거움을 찾게 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회중들의 태도는 오늘날의 이런 문화적인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던 시대 회중들의 세계관의 변화나, 청취 스타일과 환경, 무엇에 궁극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하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1. 진정한 세계관의 변화

17 세기 이후 모더니즘 혹은 현대사회라고 하는 세상이 서양에서부터 시작하여, 세계의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 왔다고 본다. 현재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과 함께, 그러나 더 크게는 모더니즘의 관점들을 공격하고 파괴하면서 서서히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신은 세계화, 정보화와 맞물리면서 더욱 이 시대의 회중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의 관점과 사고방식에 깊이 시대정신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직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포스트모더니즘을 이론쯤으로 받아들이는 이도 있는가 하면 서서히 많은 사람이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포스트모던인들은 경험에 늘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경험적 요소를 과소평가하지 않으며 그들은 인생의 어떤 경험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용기들이 있는 것이다. 포스트모던인들의 세계관은 모든 것이 이치에 맞아야만 이해하게 되는 계몽주의나 이성주의 문화와는 다르게, 신비스러움을 인정함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캐슬린 노리스(Kathleem Norris)[18]는 자신이 경험했던 모던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기독교가 가톨릭교회나 성공회와는 달리 회중들에게 호소력이

---

17) Walter Brueggemann, *Text under Negotiation: The Bible and Postmodern Imagination* (Minneapolis, MN: Fortress, 1993), 6-12.

18) Anne A. Simpkinson, "A Woman of Faith," *Common Boundary* 17 (May/June 1999), 33.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신교회는 신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원치도 않고, 성경과 교회의 전통 속에 엄연하게 존재하는 신비와 기적도 무시하거나 빼놓으려 한다. 그것도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자행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가톨릭교회나 성공회가 아직도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비에 대해 왜곡시키지 않고 신비에 대해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에게 말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자유로운 다원화된 사고력으로 신비에 대해 인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려고 하거나, 신비스러움을 인정하는 회중들에게 끊임없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던인들의 경험과 신비적인 요소로의 세계관의 변화는 종교를 대하는 방식까지 변화를 주어서 종교를 일종의 기호품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회중들이 교회에 영향을 주어 이들이, 내가 원하는 것, 선택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리로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할 때 교회는 혼란스러워하며 이에 동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가 오염되고 사람들은 아주 쉽게 사교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의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보편적 가치나 초월적인 영역을 부인하여 종교를 자신의 취향대로 선택하는 풍조가 만연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느낌과 심리적 행복감을 찾아 진리를 대신하게 되므로 신앙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관이 변질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성경을 거부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절대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처럼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의 세계관은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고 신비스러움을 즐길 줄 아는 사고를 가지게 되었지만, 절대적인 것에 대한 것은 극도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었다.

2. 회중의 청취 스타일과 환경 변화

회중의 청취 스타일이 1990 년대 이후부터 달라지는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상매체의 등장으로 인하여 지면을 통해 '읽는 문화'에서 영상을 통해 '보는 문화'로 회중의 청취 스타일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각적인 세대'(Visual Generation)에게 이전의 방식들은 고리타

분한 것이 되었고 '시각적인 세대'와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설교 패러다임 변화는 필수가 되었다. TV 와 같은 영상매체에 길든 이들은 지면을 통해 성경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독서를 하거나 잡지들을 읽는 시간보다 영상매체 앞에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 TV 나 영화 같은 매체들은 현대인들의 커뮤니케이션을 거의 다른 수준이라 할 만큼 아주 다른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다. 이것은 영상매체들이 Seeing 과 Hearing 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던인들은 인쇄된 지면을 통해 읽고, 분석하고, 해석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정보를 얻기보다는 화면을 통해 보이는 이미지(image)를 보고, 소리를 들음으로써 즉각적으로 의미를 전달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던인들의 청취 스타일은 더욱 복잡해지게 되는데 이는 보다 많은 채널인 직관과 감성, 그리고 보이는 이미지와 그림, 이야기 등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설교로는 더 이상 이들에게 효과를 보기 어렵고 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설교의 패러다임 변화는 영상매체를 통해 길든 시각적인 세대의 회중에게 필수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영상매체에 길든 포스트모던인들은 자신의 존재와 가치, 새로운 문화와 세계에 대한 소속감 등 삶의 모든 부분을 당연히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비친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나, 정치적인 의제(Agenda)나, 누가 믿을 수 있는 자인지 등을 미디어를 통해 알아가게 되었기 때문이다.[19] 이런 상황에 매스미디어의 대중문화를 천박하게 여기고 소홀하게 취급하려는 기독교라면 회중들에게서 외면당하여 과거의 상징적 유물로 남게 되거나,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으로 외면당하게 되는 것이다.

설교자가 회중의 청취 스타일과 그들이 처한 매스미디어의 대중문화라는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영향력 있는 설교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회중들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한다. 설교의 새로운 유형 속에 현대인들의 매개체들을 예화로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설교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이 논문의 주제이지만, 이전에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회중이 어떻게

---

[19] Jeffrey H. Mahan, "Mainliners Should Take to the Amirways," *Christian Ministry* (Jan-Feb, 1992), 13-15.

듣고 있으며, 어떠한 영향력을 받는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초대교회를 보면 복음을 효과 있게 전달하는 능력은 대부분 성령에게서 나오지만, 복음을 듣는 회중들의 모습들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회중들이 잘 들어주는 것 또한 설교자의 능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3. 궁극적인 우선성 부여와 변화

아직은 모던적인 문화가 더 많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공존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낯선 면이 있다. 모던 문화가 편하다고 해서 포스트모던 문화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섬기는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먼저 포스트모던 문화로 진입한 서구 사회가 대처함에 미숙함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가 아닌 예수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포스트모던인들은 반종교적이지만, 모던 시대의 영향을 받아 영적인 관심이 대단히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목적 없는 삶의 의미에서 탈출하여 그것을 극복하고 희망적인 길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현재의 그들을 표현하자면, 땅에 굳건하게 서 있는 이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온종일 뱅뱅 돌면서 방향을 묻고 다니는 하루치기 여행자와 같다 할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늪 속에 빠져 점점 가라앉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뜬구름 속에 빠져서 길을 찾아 바삐 헤매고 있는 형국과 같다 하겠다.

모던 시대의 궁극적인 우선성의 가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를 통하여 회중들의 궁극적인 우선성의 가치를 변화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설교자는 회중들의 가치관이 변화된 것을 설교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모던 시대의 추상적이던 개념들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내재적이지만 참조적이며 지시적인 것으로 그 자리를 내놓고, 그동안 공동체에 가려졌던 개인들이 주목받게 되면서 이 시대의 문화도 바꾸어 놓았다. 모던 사회의 특징이던 권위체제를 기반으로 하던 모던 사회가 붕괴되면서 개인들이 주목하는'대중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모던 시대가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예술만을 그 시대의 문화라고 정의했지만 그런 개념은 쇠퇴해지면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들은 문화의 가치 기준을 다원화하면서

그동안 대립하며 갈라서 있던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분리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들은 권위 체제를 기반으로 하던 고급문화와 모던 시대의 산물인 전통민속 문화를 쇠퇴하게 만들면서 모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중문화를 그 자리로 부상시켜 놓았다.

회중에게 궁극적인 우선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이런 문화의 바탕이 되는 대중문화를 알아야 하며 받아들여서 설교에 반영하여야 한다. 포스트모던의 기반은 처음부터 대중문화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대중문화를 지탱하고 있는 개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에 사는 포스트모던인들은 듣긴 듣지만 그 듣고 사고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알아야 하며, 대중문화에 바탕을 두게 되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의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야만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설교에서 생명력과 힘을 가지고 울릴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

갈렙 로사도(Caleb Rosado)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은 모던 시대의 전통과 문화에 젖어 있는 교회가 현시대의 문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포스트모던 사회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현상들이 가장 큰 장애물로 다가와 이 두 시대 사이의 회중과 문화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20]

포스트모던 신학이라는 용어를 만든 조지 린드백(Gorge A. Lindbeck)은 이런 추세를 알고 근대자유주의 신학이 문화-역사적 경험만으로 종교를 파악하려 했다고 비판하며 새로운 신학 체계에서는 문화-언어적 접근을 시도하려고 했다. 그러한 노력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더라도 그 추세는 이미 직접적, 간접적으로 기독교 신학의 많은 부분에

---

[20]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29.

영향을 미치고 있다.[21]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가 무엇보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감싸 안는 것이다. 과거의 영광에 그리워하며 교회가 미래를 향한 모험을 하지 못하고, 포스트모던 문화를 두려워하고 있기에 교회는 더욱 쇠약해지고 있다. 지금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안전에만 집착해서 모험하려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래를 과감하게 감싸 안을 때 대중문화를 향한 우리의 문화 공포증은 치료 가능하고 예방할 수게 있게 될 것이다. 이 시대의 교회가 할 일은 목회사역과 대중문화와의 접목에 대한 모험을 기피하는 태도를 버리고 포스트모던 시대라는 시대를 재발견하는 작업을 통해 넘어가야만 반전될 수 있다.

1. 커뮤니케이션의 위기

포스트모던 시대의 분위기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심화시키고 있어서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여러 종교가 공존해야 할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기독교를 볼 때, 기독교는 고집불통이요 자기만 아는 독선적인 종교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의 일치를 주장하고 다양한 신앙을 상호 인정하려는 운동이 나올 수밖에 없기에,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도 또 하나의 밝혀져야 할 독선적 전제라는 점을 직시해야만 한다. 이런 사상은 개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개인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개인 중심 세계관의 발로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종교의 유사성을 주장하는 것과, 더 나아가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서 인간이 신이요 창조주라는 뉴에이지 같은 사상들이 생겨난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다양한 현재의 세계를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포스트모던 세계라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의 커뮤니케이션의 위기는 아직도 모던 시대의 관점과 가치들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들의 사고와 삶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가 새로운 포스트모던 세계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 새로운 사조

---

21)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226

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에 대처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교자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이런 포스트모던 세계가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회중과는 어떻게 점점 더 확장되어가고 있는 포스트모던 세계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모던 시대에서 기독교가 겪은 경험과 기독교가 보인 반응들을 참조하면서 이를 통해 어떤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분명히 좋든 싫든 포스트모던 문화의 영향을 받는 분위기 속으로 들어와 살고 있다. 세상이 새로운 사상으로 몸살을 겪는 것처럼, 교회도 심하게 몸살을 겪고 있는 시대에 살면서 거세진 영향으로 교회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은 당장 우리만의 현실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안녕을 위해서도 이 위기는 극복해야만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를 교묘하게 대적하는 시대정신에 물들지 말고 이 시대의 정신을 극복해야 한다. 현실의 교회나 설교자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포스트모던 시대 풍조에 휘둘려서 오히려 기독교나 설교자가 문제의 원인이 되어 날카로운 비판의 중앙에 서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포스트모던의 문화를 직시하지 못하고 설교자가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내부에만 관심을 기울여 회중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회중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하는지에 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설교자와 소통하지 못하면 결국 회중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문화를 가져오려 할 것이고 반대로 설교자가 회중이 좋아한다고 해서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해 내놓는다면, 회중들은 교회 속에서도 똑같이 반영된 세상의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다르지 않은 자기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할 것이다.

가. 전통적 가치관과 포스트모던 시대 가치관의 혼합

포스트모던 시대의 참된 문화는 모던 시대의 모순과 역설을 잘 주물러서 없애버리거나 '망가진 중도'(broken middle)를 애써서 고쳐보려는데 있지 않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진리는 모던 시대의 문화와 맞물려 그대로 드러나는 포스트모던 문화의 분열적인 긴장감과 의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데 있다. 교회가 이러한 긴장감과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담장 위에

걸터앉은 사람처럼, 모던과 포스트모던이라는 담장 위에 걸터앉아 양쪽을 엿보다가 기회주의자처럼 경계선을 가로질러 가려는 시도는 포기해야 한다. 양쪽 날의 칼이'역설적인 조화'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듯, 교회도 이러한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22]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벌써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위험한 요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부 신학자들처럼 무작정 포용하려는 자세나 그렇다고 거부감 때문에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지나간 모더니즘의 찌꺼기들을 옹호하는 자로 자처해서도 안 될 것이다. 모던과 포스트모던 양쪽의 어떤 점들이 기독교에 적대적인지를 꿰뚫어 보고 여기에 각각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모던주의자는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현재의 사고방식을 받아드리려 하지 않고, 포스트모던주의자는 모던 시대의 억압과 분열에 대해 분명하게 실제적이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지만 삶의 독단적인 자세로 자신들의 것을 옹호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해 버리고 마는 버릇이 있다. 설교자들은 이런 차이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갖고 바른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쿠이테르트(Harry M. Kuitert)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가 아직도 전통적인 유형의 설교와 전통적 신학을 고수하려는 것을 비판하면서"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애써 헤치며 나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23] 그는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행위가 분리 될 수 없음을 확신하면서도, 그 일치된 힘을 이 시대의 현안에 집중시키는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현안은 과거가 아닌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현재라는 것이다, "지금 여기", "오늘날의 상황",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는 과거 모던 시대에서도 선택의 기로에 있었었다. 마치 포스트모던 시대처럼 모던 시대도 그 초기가 시작될 때는 과학의 발달을 앞세워 극도로 발달된 이성으로 기독교를 몰아붙였다.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는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았다.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

22) Leonard Sweet, *모던시대의 교회는 가라*, 191.

23) Martin Lloyd Jones, *설교와 설교자(Preaching and Preachers)*, 정근두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05), 191

하나는 모던 시대의 관점과 원칙을 받아들이고 대치되는 기독교 교리의 독특한 내용과 전제를 최소화하므로 기독교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선택은 타협 없이 진리를 유지하므로 모던 시대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처한 경험이었다. 이제는 포스트모던 세계 속에서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 문화를 향하여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또한, 포스트모던 세계는 기독교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때가 되었지만 쉽지 않은 것은 모던 시대와 달리 포스트모던 시대는 또 완전 다른 대처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던 시대의 어떤 것을 바꾸려 했는가? 전체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인간적 이데올로기의 우상화를 비판하고 파괴시키려 하였고 그것은 나름 성공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 역시 종교를 이데올로기로 파악함으로써 본질과 의미를 곡해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본질과 의미를 흐려 가치관이 왜곡된 회중은 포스트모던 분위기에 휩쓸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교회를 찾기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교회를 찾아가는 기가 막힌 경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포스트모던 문화나 사상에 익숙하지 못한 교회마저도 여기에 편승해서 그들을 이해한다는 명목 하에 상업주의 추세로 따라가서는 안 될 길을 먼저 앞서나가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현대 교회의 풍토에 대해 에드워드 비이스는 대형화된 교회가 전시장, 문화 공간, 서점을 비롯한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백화점과 같은 형태로 성도들의 모임과 예배 처소인 교회와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비판하고 있다.[24] 교회 안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포스트모던 시대의 가치관이 혼합되면서 교회는 복잡한 양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런데도 대중문화와 떨어져서는 고립될 수밖에 없기에 여기에 대한 교회의 방안은 문화의 모든 과학 기술적인 발전을 활용해서 이 세계에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X 세대가 말한 것처럼, "어떠한 장소라도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떠한 노래라도 기도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사람도 성직자가 될 수 있다"[25]라는 것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

---

24)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250-251.

25) Leonard Sweet, *모던시대의 교회는 가라*, 114.

의 생각이기에, 또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에, 포스트모던 교회는 억압받고 가난한 모든 사람의 '아래로부터의 문화'라는 것도 포함하여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나. 정보 홍수화 시대와 커뮤니케이션의 혁명

포스트모던 시대에 있는 교회가 아직도 모던 시대의 방법으로 단순히 생각만 하도록 회중들을 볼들고 있다면, 보다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강렬하게 느끼고 생각하기를 원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사는 회중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매 주일 회중들을 생각만 하게 하고, 오늘날 잘 통용되지도 않는 고대 기독교의 시대의 뒤떨어진 문어체이며 은어로 가득한 정글과 같은 언어로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가? 아직도 이런 교회의 상황은 정보 홍수화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의 살아 움직이고 생활해 나가는 방식과 접촉하기가 어렵게 되고 계속해서 교회가 이런 방식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어려움을 가중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름대로 이런 정보 홍수화 시대에 사는 회중들이 느끼는 것은 역으로 비존재로 인한 각종 위협을 경험하면서 인간성, 공동체성, 자연의 상실감과 같은 한계점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사회를 사는 이들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이런 비존재들로 인한 위협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비존재로 인한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를 위한 용기"(Courage to Be)[26]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교회는 자신에게 위임된 복음으로 포스트모던 사회에 그 대답을 제시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정보홍수화로 차고 넘치는 포스트모던 시대는 민주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운 시스템에서도 계속해서 움직여나가고 있다. 만약 정보홍수화로 모든 것이 스피드 해진 시대에 둔감한 교회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변화의 필요성에 둔감한 교회는 도태될 것이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사회나 교회나 이러한 필요에 '스피드'하게 대응하는 것이 미래의 성공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스피드 시대에

---

[26] P. Tillich, Die Technische Stadt Alssymbol(1928), in Cesammelte Werke, Bd, 9 (Stuttgart: 1975), 307-311; 기술사회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시도한 틸리히의 글 모음으로서 Paul Tillich, The Spiritual Situation in Our Technical Society, ed. & intrd. J. Mark Thomas (Macon: MercerUniversity Press, 1988).

스피드를 위험하게 여기지 않고 대처하는 교회, 스피드 한 시대를 따라잡아서 스피드 한 자체를 종말적 재난으로 보지 않고 유연하게 때로는 쉽게 뒤집어서 대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가 주의해야 할 것은 대중문화와 대화를 계속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에서 그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비판적인 상황화 작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포스트모던 문화가 교회에 대해 도전해 올 때, 그 도전에 대응할 통찰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문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회중들에게 성경적인 통찰력으로 포스트모던적인 문제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성경과 문화라는 두 측면에서 능숙하게 해석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통찰력이 생긴 그들은 분명하게 사고할 뿐만 아니라 폭풍우 같은 포스트모던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2. '한류'와 '난류'가 공존하는 교회

레싱(Lessing)은 「인류의 교육(The Education of the Human Race)」(1780)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계시는 인류가 교육을 통하여 얻어내는 이성적인 진리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까지 하게 되었다. 이런 사상이 모던 시대의 낭만주의에까지 녹아들어 자연적 초자연주의(natural supernaturalism)는 무한(the infinite)을 유한(the finite) 안에 끌어들이고, 세상 내에 영원한 시간으로 초월을 합일시켰다. 이와 같은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의미 없이 만들면서 기독교의 세상과 이 세상 나라 사이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다. 모던 시대의 신학도 이처럼 - 계시의 이성화 및 교회의 세상화 그리고 세속화 및 종말을 비 종말화 시키는 것 등으로 - 슐라이어마허(Schleiermacher)나 헤겔(Hegel) 같은 이들에 의해서 19 세기 모던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으로 만들어 놓았다.[27]

이제는 포스트모던이라는 또 다른 위기를 맞아 20 세기 후반부터의 포스트모던 교회는 의식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을 채용하려 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

[27] 이형기, *21 세기를 향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의 모색*, 194-195.

풍조를 따라 중심, 객관성, 보편성 등을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학도 '해방' 이라는 관점에서 포스트모던 신학과는 또 다르지만 종교다원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생태신학 등이 생기게 된 것을 볼 수 있다.[28]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학자나 신학자는 이런 다원주의를 종교 간의 대화나 통일의 기회라고 주장하며 환영하기도 하지만 이런 신학들의 문제점을 신정통주의 유형, 새 패러다임 유형, 새로운 존재론, 신학적 다원주의 유형, 해방 신학 유형, 해체주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물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의 업적, 즉 이성중심의 세계관 극복, 과학 일변도 세계관의 한계 지적, 세속주의 세계관의 비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포스트모던 신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포스트모더니즘을 개혁 신학에 대한 도전과 기회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에도 포스트모던적 문화와 맞물려 여러 가지 탈 형식과 탈 전통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교회에서도 크나큰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빈야드 운동이나 구도자 예배로 불리는 열린 예배와 같이 형식과 의식을 초월한 예배를 주장하는 운동이 그 예로 거론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감각과 정서를 배제하고 지성만을 강조하던 주지주의에서 벗어나 신앙의 감정적 요소를 중시하는 일에 기여했다. 그러나 예배와 설교에서 지적이고 교리적인 측면의 부족과 상실로 인해 감각주의와 감성주의에 치우치게 되어 많은 문제를 만들어 냈다. 물론 새로운 예배 형식이나 신앙 운동을 무조건 정죄하면 안 되지만 이러한 지적이 담고 있는 우려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제가 이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쉽지만은 않은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의 그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서보다도 오늘날만큼 방대한 회중, 크나큰 종교적 차이, 그리고 강력해진 기술들이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크나큰 종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이 좋은 신학, 좋은 의사 전달, 그리고 명료한 상식을 단순하고도 쉽게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

28)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89.

것이다.[29]

이제까지 포스트모던 문화와 사상의 문제점과 여기에 대응했던 포스트모던 시대의 신학, 그리고 교회의 모습 등을 살펴보았다. 설교자는 이런 문제들을 잘 인식해야 하고, 항상 깨어있어 포스트모던 문화의 죽어가는 참모습을 보고 그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를 설교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설교자가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어야 치유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은근슬쩍 이런 문제점을 가진 포스트모던 풍조가 교회로 들어와 오히려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회중들의 신앙을 변질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처럼 종교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경계심을 약화시키고 그리스도인의 비판 의식을 무디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 면에서 기독교가 이미 포스트모던적 정서와 문화적 분위기에 휘말리고 있는 현실이다. 포스트모던 신학을 제대로 정립해서 교회만 아니라 대중적 차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제시를 설교자가 할 수 있어야 한다.

3. '영상 매체의 활용

포스트모던 시대는 혁명적이라 할 정도로 영향력이 강력한 멀티미디어의 등장으로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물론 교회도 이런 변화의 물결에서 비껴갈 수 없게 되었고, 회중들은 성경 말씀이나 설교보다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들에 더 친숙감을 느끼고 있다. 교회나 설교자가 영상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효과적인 멀티미디어의 활용방법을 가지고 얼마나 회중들의 커뮤니티스타일을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영상매체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멀티미디어와 친근한 회중들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멀티미디어 회중의 특징으로는 시각적 세대(Visual Generation)이며, 정보를 바이트나 인상에 의해 받으며, 즐겁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30]

---

29) William F. Fore, *매스미디어시대의 복음과 문화*, 134.

30)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450-452.

멀티미디어 시대의 회중의 첫 번째 특징으로서 시각적 세대(Visual Generation)라는 것이다. 시각적 세대의 청중은 인쇄된 과정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보다는 스크린에 보이는 이미지(image)를 보고 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의미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TV 이나 멀티미디어 등의 영상매체에 길들여 있는 오늘의 회중들에게 효과 있는 전달은 설교에서, 특별히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이미지나 이야기로 전달하는 것이다. 설교자가 모던 시대의 익숙한 자신의 방법인 문자나 읽는 문화를 고집하지 않고 영상 매체에 개방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회중들의 상태를 인식하는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정보를 바이트나 인상에 의해 받는다는 것이다. 모던 시대의 회중이 정보를 질서정연하고 통일성 있게 전달하고 전달받았다고 한다면,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은 수많은 정보를 연속적으로 받기보다는, 충격과 인상(impression)에 의해, 정보를 바이트(bates)와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상매체 시대의 회중은 모던 시대의 회중이 추구하던 일목요연하게 주제를 전개하고 설명하는 설교보다는, 강한 충격과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이미지(image)가 있는 설교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대표적인 특징은 즐겁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논리적이지 않고, 이야기하는 형태의 설교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지루함과 단조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회중들의 특성을 파악한 몇몇 교회들은 회중이 TV 를 시청할 때처럼 즐겁기를 원하는 교인들의 이런 성향에 맞추어 예배와 설교를 TV 방송의 형태로 바꿈으로써 대표적인 대형교회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다.[31]

따라서 효과적인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교회나 설교자는 이런 회중의 변화에 민감해야 하며, 회중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맞게 메시지를 작성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31] Richard A. Jensen, *Thinking in Story: Preaching in a Post-literate Age* (lima, OH: The CSS Publishing Company, 1995), 45-46.

제4절 포스트모던 시대 설교자들의 취약점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가 고대 성경 본문의 세계를 알았다면, 회중들이 사는 이 시대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은 성경 본문의 세계와 오늘의 회중 세계 사이를 연결해 주는 다리 놓기 작업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회중 세계를 잘 모르면서 성경 본문의 세계에서 아무리 심오한 진리와 원리를 발견한다 해도 오늘의 세계에 적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역사와 언어 그리고 문화를 알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이라는 세계에 대해서도 잘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

포스트모던 시대에도 모더니즘 시대처럼 설교자가 성경을 지성과 분석적인 방법에 의하여 추상적인 개념들로 전달한다면 회중들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 것이며,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의 갈망을 채우지 못할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설교자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들의 특성에 맞게 설교의 그림을 그려주고 그 그림 안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찾아 주려 할 때, 그들은 설교를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을 향한 설교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만약 모던 시대에 설교자가 모던 시대의 필수인 글을 알지 못해서 말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서, 글을 읽을 줄 모른다고 하는 모습이나, 포스트모던 시대에 설교자가 글과 말로서 모든 것을 대치하려 하면서, 이 시대의 필수가 된 미디어를 모르겠다며,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말할 때 설교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회중의 상태는 어떠하겠는가를 설교자는 알아차려야 한다. 아직은 설교자들이 모던 시대가 더 익숙하겠지만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화와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배워야 한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혁명적인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관심 있는 사항들에 상상이 담긴 예화를 이 시대의 매체에 담아 전달한다면 성공적인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1. 복음의 본질에 대한 확실성의 상실

유명한 설교학자 해돈 로빈슨(Haddon Robinson)은 설교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도저히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없는 목사와 귀를 기울여 설교를 들을 만한 목사, 그리고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목사가 있다고 하였다.[32]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해 능력 있는 설교의 진정한 비밀은 단순히 테크닉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신념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다. 설교자가 본문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거기서부터 설교의 해석과 영감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설교자가 복음의 본질에 대한 확실성을 상실하고 단순히 테크닉으로만 설교 사역을 감당하려 한다면 힘 있는 설교를 하기가 힘들 것이다.

설교자는 다수의 사람에게 설교를 통해 진리를 전달해야 하는 사람이다. 설교자가 복음의 본질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이 시대의 정신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의 전달자로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설교자의 분명한 확신은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목사로 회중들에게 보일 것이다.

설교자는 포스트모던 시대 사람들이 모던 시대 이성의 절대성이 허구임을 이미 밝혀 놓았으므로 모던 시대의 복음이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던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이런 비난에 대해서 큰소리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합리성을 이런 기준으로 비이성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냐고 되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가지 말고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새롭게 해야 한다. 변함없는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하고 복음을 단순하고 재미있게 분명한 어조로 역설해야 한다. 이러한 확신에 찬 목소리는 설교자에게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가르침이기도 한다.

데이비드 윌스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설교자의 상태를 종교적 탄압을 받던 마르틴 루터의 시대와 비교하면서 이 두 시대가 갖고 있는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루터가 살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 로마교회의 교수권 없이 성경의 진의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

---

[32] Haddon W. Robinson, *강해 설교의 원리와 실제 (Biblical Preaching)*,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160.

> 었다. 전통과 교도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교회 안에서 제 역할을 하기에 무기력했다.[33]

설교자가 복음의 본질에 대한 확실성을 회복한 메시지를 회복해서 포스트모던 시대와 문화에 사는 회중들에게 전해야 한다. 설교자들은 날마다 이것을 반드시 묻고 답해야 하는 것이다.

2. 회중에 대한 이해 부족

설교자가 권위와 기존의 진부한 방식으로 설교를 강요하면서 회중의 관심과 고민, 삶의 자리와 상황에 그리고 회중들에게 어떤 방식들로서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에 무관심하다면 메시지의 전달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미 그런 세상이 되었다. 복음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설교를 듣게 되는 사람들과 그들이 사는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설교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이"신학자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시인은 언어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목사는 사람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라고 한 것은 목회나 설교가 말씀을 듣는 회중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34] 사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회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어 전하는 메시지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설교자는 회중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게 해야 하는데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가 열변을 토하며 진지한 설교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애써 봐도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처럼 직접 경험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이 되고 싶은 것이다. 말 그대로 설교에서도 자

---

33) David Wells, *윤리 실종 (Losing Our Virtue)*, 윤석인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7), 47.

34) Warren W. Wiersbe, *상상이 담긴 설교 (Preaching and Teaching with Imagination)*, 이장우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30.

기가 주체가 되어 삶에 이르는 방식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들에게 이전에 갖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을 제공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경험시키고, 새로운 의식을 느끼게 해 주도록 하는 것이 회중들을 변화시키는 핵심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들이 싫어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던 시대처럼 상투적으로 설교자가"성경은 말하기를"(The Bible says) 하면서,"성경이 말하는 바"를 자기에게 유리한 형태로 걸러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나","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다. 모호하고 상투적이고 추상적인 설교가 아니라 예수가 성육신한 사건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자신들도 느끼고 경험해 보기 원한다는 것이다.[35]

회중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들려지지 않는 메시지는 냉소적인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싫지만 억지로 앉아서 들어야 하는 방법을 회중들로 하여금 익히게 만드는 것이다.

설교자는 회중들의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이 설교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주의 깊게 듣노라면 적절한 정보와 도움이 되는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가?
-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설교 주제는 누구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는가?
- 지금 하는 설교가 회중인 나의 입장인가? 아니면 설교자의 관점인가?[36]

하는 질문에, 회중을 설득해야 하는 설교자가 해답을 주지 못한다면 그들의 냉소적인 태도는 사라지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는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회중 간의 상호 작용이나 원만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설교의 사역이 계속돼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회중은 들을 귀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을 수 없

---

35) Warren W. Wiersbe, *상상이 담긴 설교*, 84.

36) Calvin Miller,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자 (The Empowered Communicator)*, 최예자 역 (서울: 프리셉트, 2006), 9.

었고, 설교는 설교대로 허공을 치면서 회중과 단절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마침내 설교의 위기라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3. 설교는 성령의 사역임을 인식하기

포스트모던 교회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어마어마한 정보 앞에 있지만 그것을 누려야 하는 지혜에서는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정보를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사용해서 이 시대를 요구에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아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설교자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높은 수준의 지혜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모던 시대나 포스트모던 시대에서나 설교 사역의 중심에는 설교자가 있다. 설교를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본다면 설교자가 하나님과 회중의 중간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화를 알고 정보를 활용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설교 사역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설교자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이 그 사역의 중심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해야 하며,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의 해석자로서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회중에 대한 해석자로서도 서야 한다는 것이다.

설교의 외적인 능력이 숙련된 기법, 신학적인 연구, 문장 구사 능력의 예행연습을 통하여 설교자에게 있고, 성경 주석 내지 예화집, 이 시대의 정보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설교의 진정한 능력은 설교자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설교의 도구가 없었던 초대교회에 이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권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성령이 말씀에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그 능력이 믿는 무리를 만들어냈고, 불신자들을 불러내었고, 회중들을 그 영적 열정이 있는 설교자들에게로 모여들었던 것이다.

회중들이 성경 말씀이나 설교보다도 멀티미디어를 통한 정보를 더욱 신뢰하는 멀티미

디어 시대에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멀티미디어의 활용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설교자가 멀티미디어 회중에 맞는 여러 가지 보조 수단과 그들에게 맞는 언어 표현을 동원해서 그들의 구미에 맞게 설교한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거기에는 구원과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설교는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셔서 진리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교자는 아무리 뉴미디어에 의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이끌어가는 설교자의 바른 모습이 될 것이다.

제 3 장
포스트모던 시대에서의 예화 활용의 중요성

앞 장에서는 포스트모던 시대에서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예화 활용과 핵심 원리를 논하기 위해, 그 근간이 되는 포스트모던 시대와 회중, 그리고 교회와 설교자에 살펴보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설교에서 예화가 갖는 신학적인 타당성과 전통적인 설교에서의 예화 활용에 문제점을 살펴보고 포스트모던 시대에서의 예화 활용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든 콘웰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인 하돈 로빈슨(Haddon Robinson)은 훌륭한 설교는 추상적인 것들에서 구체적인 것들에까지 함께 보여주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설교자가 심오한, 광범위한, 일반적인 진리를 진술할 때, 회중들의 마음속에는 자동적으로 '예를 든다면?'하고 묻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는 당연히 설교자가 회중들의 마음속에서 어려워하는 심오하고,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질문들에 진리를 적용하여 회중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때가 예화가 필요한 때인 것이다.[37]

예화를 금기시하지 말고 사용하고, 이미지와 그림 언어를 설교에 적극 활용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도 예화를 꺼리는 설교자들이 있는데, 잘못된 예화의 사용으로 순수한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 인간적인 불순물이 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염려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이미 수많은 예화와 이미지가 성경 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순수한 말씀의 일부분으로서 이야기 예화와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지 결코 불순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브라이언 채플은 말하길, 강해나 전통적인 설교가 예화를 좋은 보조물로 알고 사용해왔

---

[37] Warren Wiersbe 외 6 인, *심령을 깨뚫는 설교를 합시다*, 배응준 역 (서울: 나침판사, 1997), 99-100.

으나 예화는 오히려 성경의 말씀이 지성과 더불어 온전한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감정과 의지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설교의 필수적 형식이라고 말한다.[38] 아직도 예화를 거부하며 금하려는 것은 회중 간의 소통하려는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미지나 그림 언어, 이야기 언어와 함께 예화는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제 1 절 설교에서의 예화가 갖는 신학적 타당성

설교의 구성 요소 가운데 극적 요소와 유머는 얼마나 설교가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설교는 회중들에게서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중에 "극적 요소"는 melo-와 UN-이라는 두 접두어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극적 효과를 사용하는 것과 전혀 극적 효과를 사용하지 않는 두 극단 사이에 있는 설교 요소라는 것이다. 과거의 복음주의자들을 보면 설교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두 극단 가운데 한 극단에 가까운 설교 예화를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명성을 누려 온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설교 가운데 참된 예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양 극단적 태도만을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양하면서 이 시대에 걸맞은 적절한 극적 효과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39]

극적 요소와 유머가 있는 예수님의 비유도 본질적으로 보면 세속적인 이야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설교에 신학적인 깊이가 없었다고 느꼈을 것이다. 우리도 설교에서 스토리가 풍부하여 흥미로우면 신학적인 깊이가 없다 혹은 진리의 말씀은 없고 이야기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회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의 이야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극적 요소와 유머가 넘치는 비유를 들은 것이다.

그러나 신학이 없는 예화는 실용주의와 공리주의 또는 샤머니즘과 같은 사상에 휩쓸리

---

[38] Bryan Chapell, *Using Illustrations to Preach with Power* (Wheaton, IL: Crossway Books), 14.

[39] Calvin Miller, *설교: 내러티브강해의 기술 (Preaching: The Art of Narrative Exposition)*, 박현신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9), 368-369.

게 될 수 있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에링은 "신학이 없는 설교는 장님과 같다."고 말하는 것처럼 신학이 없이 하는 예화 또한 걸려 넘어질 것이 아주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40] 신학은 설교만 아니라 당연히 예화도 성경의 내용을 잘 증언하는 데 신실한가를 검토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강단은 실용주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교회만 성장할 수 있다면 목회자들은 어떠한 방법도 사용하려고 한다. 설교자들은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사회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예화로 회중들에게 호소력을 줄 수 있는 설교를 하려 하거나, 회중들에게서 어떡하든지 아멘 이라는 뜨거운 소리가 나오는 설교를 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지려 한다. 그래서 신학적인 성찰 없이 무조건 교회만 성장할 수 있다면 그들의 예배와 교파, 교단이나 상관없이 빈야드교회나 윌로크릭교회 같은 곳의 설교 스타일이나 예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실정이다.[41]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당시에 신학적인 깊이가 없다고 가차 없이 비판하던 예수의 설교는 우리에게 예화가 갖는 신학적인 타당성을 증명해 주고 있다. 가장 위대한 설교자 예수의 설교를 보면 예화와 그림 언어로 가득하다. 예수의 비유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설교이고, 이야기 예화 하나가 설교 전체를 구성한 숫제 예화 설교인 것도 있다. 예수 이전의 선지자들도 이야기 예화를 넘어 행동 예화인 실물 설교를 자주 실천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사용하는 언어 역시 선지자들만큼이나 회화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성경적인 설교를 원한다면, 성경 안에 선지자들과 예수와 사도들이 사용했던 예화를 사용하라는 것이다.[42]

1. 예화의 정의

영어의 "illustration"(예화)라는 말의 동사인 "illustrate"는 '빛을 비추다'(to throw light, or to bring light) 또는 '조명하다'(illumin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예화는 설교의 논제나(thesis) 명제(proposition), 또는 대지(point)의 의미를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빛을

---

40) Gerhard Ebeling, *Theology and Proclamation* (Philadelpha:Fortress,1966), 20.

41) 계지영, *현대 설교학 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36.

42) 채경락, *퇴고 설교학*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3), 88.

비추고 조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화나 이야기(story)를 설교에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설교학자들이나 신학자들, 설교자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 신학자들은 예화를 반지성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단지 회중들을 즐겁게 하면서 생각하기 싫어하는 회중들을 이끌어 가려고 예화를 설교에 사용할 뿐이라고 생각해왔다.[43]

예화의 정의가 설교의 논제나 명제, 대지의 의미를 명확하고 쉽게 해 주는 기능이라면 좋은 예화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게리슨(Webb B. Garrison)은 "The Preacher and Hus Audience"이란 그의 책에서 그가 "좋은" 예화의 기준이라고 부르는 표준을 설정하였다.[44] 예화는 우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회중이 경험하여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듣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경험의 섬"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은 예화라는 것이다. 회중과 이러한 접촉점 때문에 예화를 사용하는 것이 이해시키는데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 또한, 좋은 예화는 적절해야 하는데 예증하고자 하는 정확한 지점에 요점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예화에 대해서도 꼭 해야 할 질문은 설교하고 있는 지금의 회중에게 예증해주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좋은 예화는 사람들이 이미 식상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해야 한다. 예화에 생동감이나 생명력이 가져다줄 수 있도록 내적인 새로움을 가지고 있거나 이미 지난 것들에 대해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좋은 예화는 회중들로 하여금 체험하였던 것들이 실제로 삶에서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납득하게 하거나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좋은 예화는 설교의 주제와 일치해야 하는데 그러한 관점을 만족시켜 줄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주제의 본질적인 권위를 침범하는 성격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해하고, 적절하고, 신선하고, 사실적이고, 설교와 일치시키는 이런 예화의 기준들이 있어야 예화로 인한 거부감이나 편견들을 제거할 수 있다.

"어떤 예화이든 설교의 주제를 조장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45] 이러한 특성들을 가진 예화라야 흥미 있는 가치를 갖게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회중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것은 설교자가 보여 주고자 하는 진리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입증

---

43) 계지영, *현대 설교학 개론*, 149-150.

44) Westwood, N. J.: Fleming H. Revell Co., 1954, 178~183.

45) Ibid., 189~ 190.

하거나 그 진리에 힘을 더해 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충성스러운 예화가 필요하다. 예화에게 구할 것은 메시지에 대한 충성이다. 이미지와 그림 언어를 포함한 모든 예화는 메시지를 섬기는 종이며, 종에게 구할 것은 주인을 향한 충성이다. 설교 전체의 주제를 섬기는 예화가 가능하고, 하나의 대지를 섬기는 예화, 심지어 대지 안에 있는 작은 소지를 섬기는 예화도 가능하다. 어느 경우든, 각 예화는 주인을 향한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한다. 예화의 충성은 메시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적절한 밝기로 주인인 메시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예화가 좋은 예화, 즉 충성스러운 예화다. 메시지를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밋밋해서도 안 되지만, 신부보다 예쁜 들러리마냥 예화가 메시지보다 더 돋보여도 곤란하다. 예화는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드러내는 사명을 받은 종이다. 예화는 힘이요, 야생마이다. 설교자가 길들이고 다스려야 한다. 길들이지 않은 야생마가 재앙이 될 수 있듯이, 길들이지 않은 예화는 설교를 망칠 수 있다.[46]

예화를 거부하기에는 그 다양한 주제가 너무 아깝다. 예화는 팔방미인이다.[47] 설명, 증명, 그리고 적용. 설교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주요한 요소들인데, 예화는 이 세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며, 때로는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다. 예화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구체적인 그림 언어로 설명함으로써 회중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예화 자체가 논리적 증거는 될 수 없지만, 심리적으로 회중을 설득하여 증명의 효과를 내기도 한다. 하나의 진리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역시 예화다. 다양한 능력의 보고다. 더불어 예화는 자칫 메마르기 쉬운 설교 메시지에 촉촉한 쉼터가 되기도 하고, 경직된 회중의 마음을 열어젖히는 공감의 장도 마련한다.

---

46) 채경락, *뵈고 설교학*, 87.

47) 하진환, *설교의 영광*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236-241.

2. 성경 안의 다양한 예화 활동

이전의 전통설교나 강해 설교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설교가 대부분이었지만 포스트모던 사회의 회중들은 그 시대의 회중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 새로운 일도 내일이면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닐 정도로 빠르게 변화는 시대에, 기존의 형식과 방법에 식상해 하는 회중들에게 성경 안에서의 다양한 예화들의 형태와 방법들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매우 효과가 있는 시도일 것이다.

창세기 1 장의 창조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비교한 성경 구절을 보자면 건물, 장막, 출생에 견주는 것을 볼 수 있다.

> 천지 창조를 하면서 마치 건물을 세우기라도 하듯 하늘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바요(시 8: 3)라고 표현하고 땅은 무슨 건물을 세우기라도 하듯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신'행위를 바탕으로 생겨 (시 102: 25; 104:5;사 48:13;51:13,16; 렘 31:37;암 9:6)났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은유적으로 장막을 표현하는 것은 창조가 기초를 두고 세우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장막'이라는 그림으로 제시(시 19:4;104:2; 9:8; 37:18; 사 40:22;44:24; 45:12; 51:15)하기도 한다. 창조를 건물이나 장막이 아닌 출생에 비유할 때는 산들도 출생할 것이요 (15:7;90:2), 계절도 (욥 38:28-29) 그렇다는 것이다. 욥기서에는 창조를 건축물과 출생 모두에 비유(욥 38:4-9)하는 것을 볼 수 있다.[48]

이처럼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다른 성경에서도 비유와 은유 등으로 이야기해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약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어둠과 빛(창 1:2-3)은 성경에서 아주 친숙한 이미지 중의 하나로 사용되는 것이다.

---

[48] Warren W. Wiersbe, *이미지에 담긴 설교 (Preaching Teaching with Imagination)*, 이장우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8), 23.

> 어둠은 죄(요 3:19-21; 잠 4:19;행 26:18; 엡 5:18) 사탄의 왕국(골 1:13),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제도(고후 6:14) 그리고 영원한 심판(마 8:12)에 비유하고 있다면 빛은 '하나님의 빛'이시고(시 27:1; 요일 1:5)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시 19:8;119:105, 130; 잠 6:23),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요 8:12)이시며 그리스도인들 또한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마 5:14-16; 빌 2:14-16;엡 5:8_15;고후 6:14)[49]

설교에서 예화나 이야기를 제거하려는 것은 역사책에서 내용에 아무런 손상이 없다고 해서 그림(pictures)을 가위로 잘라내는 정도가 아니고, 그 페이지를 전부 다 잘라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구약의 나단 선지자가 다윗왕에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는 스토리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예화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 자체였고 그의 설교 자체였던 것이다. 이처럼 예화나 이야기는 성경을 회중의 삶의 경험으로 이해시키고 풀어갈 수 있도록 설교 전체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예화는 회중을 성경의 이야기와 삶의 이야기에 초청하여 그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 이야기의 삶을 체험케 함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모던 시대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득이나 이해를 통하여 변화시키려는 설교가 약했던 부분이다. 사람이 변화되기 위하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켰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이미지, 은유(metaphor)가 새것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회중이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머리로는 그의 설교에 전적으로 동의할지라도,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회중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예전의 이미지가 새로운 것으로 대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50]

---

[49] Warren W. Wiersbe, *이미지에 담긴 설교*, 24.

[50] Fred B. Craddock, *As One without Authority* (Nashville, TN: Abingdon,1974), 78.

3. 예수의 예화 활용

설교에서 예화를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으로, 예수님은 회중이 이해하기 쉬운 아주 친숙한 경험들에서 시작하여 회중들이 알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하려는 모든 형태에 여러 가지 예화 형식을 사용하였다. 일반인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은유와 직유, 그리고 그 외의 여러 형태의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어 빵을 굽는 여인이나 집 안을 청소하는 여인, 밭에 씨를 뿌리는 자나 일상적인 일기에 관한 속담들, 진주를 찾는 상인, 시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묘사, 들에 피는 꽃과 하늘의 새들에 대한 관심 등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51]

이처럼 예화(이미지) 중심의 설교를 하려고 용기를 내보려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예수님의 설교에서 이러한 예화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수많은 설교에는 이러한 예화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 들의 꽃들, 목자들, 무화과나무들, 들에 핀 푸들, 멸시 속에서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움직이는 이미지들의 시작에 불과하다. 누룩, 겨, 기초들, 값싼 참새들, 가난한 과부들, 건축자들, 신부들, 포도주, 잃어버린 동전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소년들, 감사하지 않았던 문둥병자들, 피리 부는 자들과 춤추는 자들, 부정직한 재판관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들, 모래 위에 세운 집들, 회칠한 무덤들, 물고기를 대신한 전갈, 우편의 양들, 좌편의 염소들, 그리고 부자의 집 문 앞에 있던 거지, 수많은 메타포들은 예수님의 설교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말해준다.[52]

예수의 예화 사용에는 이미지와 함께 유머와 상상력도 함께 있어서 회중들이 집중해서

---

[51] Henry C. Brown, *설교의 구성론 (Steps to the Sermon)*, 정장복 역 (서울: 양서각, 1987), 104.

[52] Calvin Miller, *설교*, 30.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의 유대 문화가 과장에 의한 유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문화였다. 예수는 이런 과장에 의한 예화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회중들의 웃음을 유도하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 뒤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점으로 회중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셨다. 요사이 억지로 "아멘"을 유도하는 설교자들 때문에 회중들은 마지못해, 억지로 "아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과장된 말씀으로 머뭇거리고 마지못해 "아멘"하는 대신에 웃음으로서 마음에 새기는 말씀으로 마 7:3 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는 말씀은 과장된 유머가 위대한 평행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유머를 예화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셨던 것이다.

상상력 또한 주님의 가르침의 특징 중 하나이다. 직유, 은유, 수수께끼, 비유, 역설 등에 상상력을 사용하여 이 땅의 일상적인 것들을 사용하여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놀랍게 적용하셨다. 우리가 설교에 실패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후새와 나단의 방법을 사용하시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는 사람들의'귀에' 말씀하시지 않고 '눈에다' 말씀하셨고, 그들은 이 말씀의 진리를 '보고' 응답하였다. 모던 시대의 '귀에'만 말씀을 전달하려는 방법은 '눈으로' 보고 들으려 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에게는 어려운 방법이 되었다. 예수의 예화 사용은 '귀에'뿐만 아니라 '눈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후새와 나단의 방법이고 이 시대의 효과적인 말씀 전달의 방법이 될 것이다.[53]

제 2 절 설교에서 예화 활용의 문제점

20 세기 중반기 이후 미국 설교학의 대표적인 저서로 신학교 교제로 가장 많이 사용됐고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설교를 위한 디자인* (1958 년 초판)을 저술한 그래디 데이비스(Grady Davis)는 예화란 설교를 재미있게 하는 인공적인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설교자가 무엇인가 회중들의 삶에 연관성이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설교를 재미있게 하기 위한

---

53) Warren W. Wiersbe, *이미지에 담긴 설교*, 127.

예화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54] 그레디 데이비스가 말한 것처럼 설교자가 예화의 사용을 통해 본문의 말씀을 예증하거나, 회중들의 삶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단지 설교를 재미있게 하려는 생각을 갖고 예화를 사용하였다. 여기에 회중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설교자 중심의 예화 사용은 예화의 폐기론까지 말하게 된 것이다.

또 한가지 설교에서 예화 활용의 문제는 시대가 바뀐 회중들에게 걸맞은 예화 활용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영상매체가 발전한 시대에서 예화의 활용과 전달 방식도 바뀌어야 하지만, 많은 설교자가 기존 시대의 말로 하는 예화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설교자의 예화 사용에 대한 인식과 예화 활용 매체의 다변화가 잘못된 예화 활용의 방지를 위한 길이다. 이를 위해서 성서 본문의 장르와 문학적인 형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의 저자들과 예수에게서 은유와 그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새롭게 해야 한다. 다양한 예화 활용법을 배우는 것도 회중의 지성에만 호소하려는 잘못을 예방하고, 의지와 감성을 포함한 전인을 향하여 말하는 산뜻하고 다채로운 예화로 만들 것이다.

1. 전통적인 예화 활용의 문제들

문화인류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세계 문화가 지난 50 년 동안 상상할 수 없이 변화되었다는 점에 한결같이 동의하지만, 기독교의 설교 행위는 1950 년대에 선포되었던 설교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50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세상이 새로운 경청 기술을 익히고 사용하는 동안에도 설교자들은 여전히 예전의 구식 방법으로 설교하고, 예화의 사용도 그 속에서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지금은 종종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로 불리는 것처럼 정보의 시대고, 수십 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인쇄의 시대에서 비디오의 시대에 와 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수십 년의 변화를 통해 귀로 정보를 얻는 시대에서 눈으로 얻는 시대로 변천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시각적인 설교로 변모하는 대신, 설교는 여전히 너무나 예전의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다.

---

54) H. Grady Davis, *Design for Preaching* (Philadelphia, PA: Fortress, 1958), p. 257.

그러한 전통적인 설교 형식 속의 예화 사용의 문제는 설교자들의 문제일 것이다. 말씀 요리사로 설교자들을 비유하자면, 오늘날도 회중들의 영양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단 제공에만 심혈을 기울이는 말씀 요리사와 같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위험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설교자들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비성경적인 설교'(unbiblical preaching)이고, 다른 하나는 '균형이 깨진 식단의 설교'(unbalanced preaching)라는 것이다. 회중들이 좋아하기만 한다면 알레고리로 해석하건 영해를 하건, 성경을 입맛대로 풀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설교자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신 구약 가운데 자신이나 회중이 좋아하는 인기 구절들만 다루고, 설교하기 힘들거나 청중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본문은 아예 거론하지 않는 설교자들도 있다.[55] 이것이 예화 사용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설교자 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적용으로 회중들과 소통되지 않으며, 목회적으로 왜곡된 예화를 사용하는 것이다.

가. 설교자 중심의 적용

지루한 설교자와 흥미진진한 설교자와의 차이는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회중과 하나님의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교차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적용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먼저 설교자에게 구체화되어 표현된 다음에 회중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진리는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적용은 전부한 메시지에 흥미진진한 진리를 선명하게 만들어 영적인 필요가 있는 회중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적용된 설교자의 개인적 체험에서 가져오는 예화들은 장점뿐만 아니라 결점도 있다. 모든 효과 있는 설교는 하나님과 설교자 자신의 체험에서 생겨난 개인적인 체험으로 인한 증언의 감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회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설교 안에는 개인적인 예화를 하든지 다른 것을 하든지 증언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혜롭게 사용하여 설교에 진지함과 연관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설교자의 개인적인 예화들은 무시할 수

---

55) 신성욱,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의 삼중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20.

없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조심해야 할 것은 이처럼 개인적인 예화들이 설교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진리보다는 설교자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기 과시나 자랑하려는 태도를 남기며 예화로 사용하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설교자 중심의 예화를 적용하다 보면 이야기가 과장될 수 있다. 예화를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면 개인적인 예화들은 성장하면서, 설교자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다양한 그러나 고정된 예화들이 과시될 수 있다. 예화의 극적인 효과를 자기 과시로 삼으려 할 때 다른 이들의 체험을 훔쳐서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하려고도 한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서 그런 행위들은 금방 드러나고 말 것이다. 회중들을 조정하는 자(manipulator)로서 연극과 같은 행동과 눈물, 감정, 두려움 등을 활용하여 강제적으로 회중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려 하는 설교자들이 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빠져들게 만들어 회중들이 설교자의 생각이나 행동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려는 것은 정말 설교자로서 잘못된 시도이다.

설교자의 즉흥적인 충동에서 나오는 때 늦은 생각의 예화들도 올바른 사용이 아니다. 예화는 그 파급 효과가 큰 것을 감안하여 조심스럽게 구상해야 하고 조심스럽게 선택해서 가장 효과 있게 사용되도록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너무나 자주 설교자의 즉흥적인 충동과 생각에서 나오는 예화들은 문제를 만들어 낸다. 올바른 예화를 찾는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며 더욱이 그것을 설교 안에 세운다는 것은 매우 신중을 요해야 하는 것이다. 예화는 설교 형태나 전달 방법에 따라서 달리 사용되어야 하므로 모든 삶의 영역과 많은 자료 중에서 선택하여 설교자 자신을 점검해서 사용해야 한다. 간혹 예화를 다시 사용하고 있거나 설교자 자신의 한정된 체험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예화를 선택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다.

나.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적용

정장복 교수는 한국 강단을 침몰시키는 요소들에 관하여 통찰력 있는 비평을 했다. 한국강단이 병들어 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전파하기보다는 회중들의 물질만능주의와 기복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려는데 메시지나 예화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병들어 가는 한국교회의 강단 때문에 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고, 점점 더 교회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포스트모던이라는 정보화와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갱신되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 강단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성경적이지 못한 설교는 가슴을 시원하게 하지 못한다. 적당한 성경 본문과 함께 흥미로운 농담과 각종 교훈과 예화로 채워진 설교는 그림의 떡처럼 보기 좋을지 모르나 영양가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좋은 영적 음식처럼 보이기 위해 좋은 음향시설과 동영상, 음악까지 곁들여 더욱 감동적인 설교처럼 보이려고 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들 수도 있다. 이런 쇼(entertainment)처럼 하는 설교로는 회중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56]

설교에서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예화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성경적이면서 동시에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설교 예화가 되기 위한 질문을 항상 하여야 한다. 이런 질문들은 설교 준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행위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성경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설교가 회중들과 회중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라는 순간에 적용되어 설교하고 있는가? 이다.[57] 그러므로 회중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강렬함(intensity)과 흥미로움(interest)이 설교 요소에 있어야 한다. 설교에서 강렬함과 열정이 없다면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가 회중들에게는 마치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지루한 것이 될 수 있다. 강렬함과 열정이 넘치는 설교라도 회중들의 삶에 대한 적용(relevance)이 없다면 설교는 필연적으로 권태로운 것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설교들은 회중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로 가득한 설교로 들리며, 그들의 "바로 지금"(right-now)의 삶의 곤경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는 설교를 설교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교는 한국교회 변질된 강단에 블로킹과 태클의 걸고 기본기로 돌아가야 한다. 셰익스

---

56) 김은철, *가슴 시원한 설교* (서울: 쿰란출판사, 2010), 13.

57) Calvin Miller, *설교*, 103.

피어를 인용하듯 성경을 인용하는 세상이다. 성경은 알지도 못하면서 뭔가 시비를 걸려고 할 때 성경을 집어 드는 세상이다. 설교자는 성경보다는 식당 메뉴나 TV 가이드를 안내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경험이나 감동을 주려고 예화를 더 자세히 하려고 시도한다. 성경을 높이 들고 이렇게 말할 때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나침판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까? 설교의 항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이 듭니까? 마치 캄캄한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위치, 설교의 위치를 찾게 해 줄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예화나 설교자의 설교관이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회중들을 인도하려 할 때 설교자는 성경에서 그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로버트 듀페트는 오늘날 설교가 행해져야 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시대에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어려움 앞에 서 있다고 규정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설교 사역을 감당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며 옳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58]

다. 권위주의적 적용

한국교회가 사람들의 필요와 갈급함을 채워줌으로써 과거에는 크게 성장하는 경험을 하고 성장한 경험이 있지만 웬일인지 현재에는 한국교회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현상을 보인다.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를 설교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말씀의 봉사자로 말씀에 신실한 성경적인 설교를 하기보다는 말씀의 지배자가 되어 군림하며 안하무인격으로 하는 비인격적인 설교는 문제가 심각하다. 설교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본문을 이용하는데 그 본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화나 이야기들을 사용하는 설교자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

58) Robert G. Duffet, *A Relevant Word: Communicating the Gospel to Seekers*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1995), 35.

이런 권위주의적인 설교자는 수용자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거나, 수용자를 단순한 피동적 존재로 인식하고, 설교자의 강력한 접근 방법이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를 낳는다는 이해를 가지고 독단적이고, 심지어 강압적이기까지 한 오만한 전달자가 되어 강단에 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유형의 설교를 좋아하는 회중들을 만나 오만한 전달자의 예외적인 성공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만하고 권위적인 전달자는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그런 전달자들은 자신에게서 문제를 발견하되 자신의 입장을 자신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더욱 독단적인 전달자로 변해 버린다. 이런 현상은 한국교회 강단과 설교자들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크래프트(Charles Kraft)의 의견은 이 어려운 현황을 타계해 나갈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그는 전달자가 아닌 수용자의 중요성에 대해"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해 연구하면 할수록,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있어서 수용자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된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59]

권위주의적인 방법인"내가 너에게 말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게 하라"는 방식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수용자 중심의 방식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모던 문화가 이러한 대화식 방식에 굴복했고, 회중들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설교자가 이를 수용함으로 보다 큰 대화의 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60] 권위주의적인 설교에 의해 분별력이 없어진 회중들에게는 설교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는(monologue)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위대한 설교는 항상 대화적(dialogical)이었다는 사실이다. 위대한 설교는 설교자와 회중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고 대화하는 스타일의 설교가 건강한 것이다. 이것은 이 시대의 설교 스타일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시대의 설교 스타일은 대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성경적 설교는 대화 스타일에 사로잡힌 문화와 점점 동조하거나 동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라는 어구로 설교자의 권위를 세우려는 설교는 회

---

59) Charles Kraft, *Theory for Christion Witness* (Nashiville, TN: Abingdon Press, 1983), 89.

60) Calvin Miller, *설교*, 24.

중들이 더더욱 회피하고 싶어하는 주일날 독백적 서론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버린 설교는 회중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쇠퇴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경이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항상 회중과 함께 설교를 풀어나갈 뿐 아니라 설교자와 회중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존재하는 설교 방식이라는 것이다.

2. 신학이 결여된 예화 활용

설교가 신학을 배제하고 설교자에게 편리한 대로 좋게만 만들어진다면 그 설교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만다. 설교를 제대로 하려면 신학이 결여되지 않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고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는 설교자라면 당연히 치러야 하는 대가일 것이다. 설교를 듣는 회중들도 듣는 데에 힘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며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예화도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설교 행위는 설교자와 회중 모두에게 어려운 시간이다.

그래서 흥미진진한 설교들을 하게 되는데 급진적인 신학의 성향을 가진 설교자들이 내러티브 신학을 처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회중들의 시간과 흥미가 그들의 관심사였기에 1950 년대 이후 영상문화의 르네상스 시대는 그들에게 좋은 도구로 활용될 수 있었다. 복음주의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에게는 보통 이단적으로 보이거나 적어도 비성경적인 것으로 비추어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여 생각 위주로 하던 설교는 지루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 영화들과 텔레비전은 우리의 눈과 생각을 사로잡았고 움직임과 특수 효과들, 사운드 트랙, 영화기법들, 압도하는 영상은 평범한 설교에 식상해 하는 회중들을 만들어 버렸다. 회중들이 점점 설교를 듣지 않는 가운데서도 설교자들은 여전히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지루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만이 설교의 유일한 문제만은 아니었다. 포스트모던 시대가 정보화, 미디어 시대에 급속한 발전으로 부지불식간에 화려한 쇼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버렸는데 교회가 같은 패턴을 도입하여 따라가고 말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반발하여 대부분의 복음주의 설교자는 테크놀로지와 신학이 결합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진보적인 설교자들이 하나님께서는 파워포인트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영상이 강조된 설교를 들어야 한다고 강요하다시피 하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고 말았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단순한 강의 형태의 설교는 설 자리를 잃었고 그 대안으로 내러티브 스타일의 설교가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옛 방식의 설교를 고집했다. 하지만 어거스틴이 말한 내러티브(narratio)라는 말은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narration)은 이야기 중심의, 이미지 지향의 설교라는 의미이고 성경적이며 예수가 사용하셨던 방법이기도 하다.[61]

아직도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교회가 다가오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문화에 대응할 것인가는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물음에 교회가 올바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급진주의들이 무분별하게 도입한 것들이 아닌 성경적인 방법들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시대의 전환기마다 첨예하게 교회에 제기되어 온 문제들이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이 시대의 흐름을 좇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를 주도하면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수렵시대나 농경시대, 산업시대에는 비교적 교회가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여 나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로 불리는 포스트모던 시대는 만만치 않은 시대라 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시대 혹은 정보화 시대를 맞은 교회는 이에 대하여 분명한 이정표를 세워야 하는 중대한 지점을 지나가고 있다. 교회의 신학적인 판단과 결단의 정당성 여하에 따라 설교나 예화의 사용 패턴과 방법도 성경적이냐, 세속적이냐 결정되기 때문이다.

3. 회중과 소통되지 않는 예화 활용

포스트모던 시대를 맞이한 한국교회 설교의 위기는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해져 있는 회중과 마주하면서도 그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이전 문자나 인쇄시대를 지나 전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설교자가 적극적으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매체들을 가지고 설교하지 못하고 있는

---

61) Calvin Miller, *설교*, 28-29.

실정이다.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매체는 TV 를 포함한 영상매체들이다. 보고 듣던 시대를 넘어 눈으로까지 보고 체험하게 된 세대는 사람들의 듣는 태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설교사역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설교도 마찬가지로 지적이고 합리적으로 회중들을 설득하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벽에 정면으로 서서 공격하려는 것과 같이 힘든 일이다. 그러나 예화나 이야기로 다가가는 것은 활짝 열린 뒷문으로 아무 저항도 받지 않고 슬그머니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해 버리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회중이 신앙의 예화나 스토리를 들으며, 예화나 스토리를 체험하며, 그 예화나 스토리를 나의 예화나 스토리로 받아들이며, 나의 것으로 공유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지성의 호소만으로 인간이 변화된다면 설교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며 전하면 되겠지만 이전의 방법들과 형식은 변화를 일으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음을 알게 됐다. 지성에 감성과 의지가 더해져서 자기와 공감하는 예화나 스토리로 터치되어야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에베소서 1:18 절의 말씀 가운데 '마음의 눈을 밝히사'처럼 설교자로서 부르심의 목적을 마음에 새기고, 회중들의 필요성을 부단히 알려 하고, 들리지 않는 회중의 소리를 듣으려고 하는 것이 설교자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영혼의 소리를 듣는 것이 설교자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 말하지 않더라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영혼의 음식을 만드는 설교자의 기술이 되어야 한다.[62]

설교를 새로운 측면에서 본다는 이유로 세상에 대한 예화의 언급을 늘린다고 해서 세속적인 것과의 대화로 회중에게 들려지고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자가 그렇다고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여 횡설수설하는 설교의 예화들도 회중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고립된 세계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간파할 수 있는 것이다. 설교자가 설교의 현장에서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서 고립되는 것에 대한 자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한다.

회중에 대한 분석은 복잡한 부분이긴 하지만, 모든 설교에서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

62) 김은철, *가슴 시원한 설교*, 173.

회중과 소통하는 설교를 위해서는 예상 가능한 질문들을 해야만 한다. 내 앞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설교자는 여기서 무얼 하려고 하는가? 무슨 권위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려 하는가? 이 예화가 이런 회중들과 설교에 적합한가? 하는 예측 가능한 질문들을 통해 소통하는 설교가 보다 가능하게 될 것이다. 회중 분석은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해 준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예화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한다. 거기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떠오르게 된다. 회중을 먼저 아는 것이 이러한 모든 것을 약속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중들의 정체성에 대해 완전하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아버리고, 설교는 산탄(buckshot)처럼 공중으로 날아가 버릴 것이다. 진리는 회중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줄 수 없고 변화는 꿈도 꿀 수 없게 된다. 회중 분석의 좋은 은유로 라이플총의 범위와 시야를 들 수 있다. 좋은 총을 구하고, 조심스럽게 조준한 것은 회중 분석이 된 것이요, 말씀을 통해 설교해야 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을 다루었다면 정확하게 적중시킨 것과 같다.[63]

설교의 예화는 우리 시대의 언어로 회중들에게 전해져, 회중의 상황에 적절한 적용으로 적용되어야 회중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다. 항상 오늘 우리 시대의 회중을 향한 설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설교예화 원리를 파악하고, 회중의 영적 상태를 이해한 뒤, 그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교에서 예화를 해야 한다. 설교를 듣는 회중의 영적 상태는 그때마다 다르기에, 회중에게 진리를 전하려면, 항상 복음에 충실함과 동시에 적절한 방법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설교자가 이처럼 회중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할 때 회중들의 폐부를 찔러 부패한 곳을 도려내는 성령의 검과 같은 예화가 될 수 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정보 폭발, 커뮤니케이션 폭발이라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점차 한곳에 주의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들은 수많은 다양한 전달자가 자신의 말에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려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

---

63) Calvin Miller, *설교*, 100

나 사람들은 워낙 들리는 정보들이 많다 보니, 주의 집중이 어려워지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무시해 버리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회중과 소통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전달자의 보다 설득력 있는 목소리와 현명한 전달 방법에 설교자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4. 목회적으로 왜곡된 예화 활용

예수가 제자들에게 하신 대답에서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요 5:47)는 질문은 세상을 다른 곳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방식에서 어떻게 남다를 수 있겠느냐?로 바꿀 수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은 모던 시대처럼 규범적 기준에 의해 느끼고 행동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는 사람들이 본연의 모습대로 남아 있게 할 정도로 교회가 충분히 창조적이고 자유로운가? 목회적으로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되어 가도록 도와주는가? 고결한 성도들을 기묘함이나 사악함이라는 렌즈를 통해 왜곡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로 판단 받고 있는 중이다.

설교학자였던 존 브로더스는 종교적 진리에 관한 예화는 존재와 개념의 모든 영역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설교에서 활용되는 예화는 어디에서건 발견할 수 있다. 예화를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느냐고 물으면 그 대답은 어느 곳에서든, 그리고 모든 것에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들에게 시작하는 부분은 중요하게 되었고 예화의 활용도도 높아지게 되었다.[64]

설교를 시작해서 처음 몇 분 안에 어떻게 회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인가가 설교자들의 고민일 것이다. 왜냐면 회중이 설교에 관심을 놓치기 전에 감동스럽거나 흥미로운 내용을 통해 계속 설교를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짧은 설교의 도입 부분은 설교자와 회중이 서로 감정을 나누며 신뢰를 세우는 시간이기도 하다. 많은 목사가 재미있는 농담이나 흥미 있는 이야기나 예화로 설교를 시작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회중이 크게 한번 웃고 나면 설교자와 회중이 마음으로 하나가 된 기분이고 계속 설교를 이끌어 갈 기회를 주기 때

64) Henry C. Brown, *설교의 구성론*, 107.

문이다.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사용되는 예화가 목회적으로 왜곡되지 않으려면 성경적인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 존 낙스는 흥미로운 지적을 하였는데, 설교가 성경적이냐 혹 비성경적이냐 하는 것은 설교의 구성이나 스타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예화를 인용하면서도 비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있고, 예화가 성경을 인용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적인 설교란 설교에서 예화의 중심 메시지가 성경이 전체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과 일치하면서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65]

목회적으로 왜곡된 예화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좋은 예화라 할지라도 성경적인 방법이라도 주요한 주제와 다르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좋은 예화나 비유는 종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오만한 재료들이다. 설교의 주제가 정해지지 않고서도 어느 상태에서나 어느 모양의 설교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예화라 할지라도 주제에 맞지 않으면 그 사용을 늦출 수 있어야 성실한 준비자라 할 수 있다. 반대로 뒤늦게 들은 이야기나 발견한 자료들을 별생각 없이 설교에 끼워 넣는 것도 왜곡된 설교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현실의 이런 목회와 설교 현장에서 예화의 사용은 어색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설교하던 도중에 분위기의 전환을 위해 각색 없이 예화를 사용하는 것은, 광산에서 캐낸 원석을 다듬지도 않은 채 반지로 끼는 것과 같다. 물론 많은 예화가 이미 다듬어진 상태이기에 따로 각색하지 않아도 훌륭하게 설교 메시지를 섬기기도 한다. 예화의 사용은 현재의 회중에게 필요한 것이 되었음을 알고 사용하되, 미세한 차이가 설교 효율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사용할 때마다 주의하여 다듬어야 할 것이다.

---

65) 김은철, *가슴 시원한 설교*, 187.

제3절 포스트모던 시대 설교에서의 예화 활용

성경은 설교를 위한 기초적인 자원으로서 성경 구절을 이용한 예화 사용은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여기에 어떤 사상이나 생각, 설교 안의 다른 재료들을 가져와 예화로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설교를 알기 쉽고 호감을 갖게 해 주는 예화로서 문학, 역사, 과학,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 등도 있을 것이다. 또한, 현대의 발단된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동감하는 예화들을 보고, 듣고, 느끼도록 할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예화를 사용하지 않고서 설교를 효과 있게 진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들이 영상에 매우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설교에서 말과 글로 하던 설교에 새로운 형태의 예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영화나 텔레비전, 인터넷 매체들은 회중들을 더욱더 영상적으로 생각하도록 훈련시켰다. 기존의 문자와 말에 의존하던 설교형태도 변화를 가져야 하는 것은 이제는 논리적 사고에만 의존하는 설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영상의 형태를 사용하여 십자가, 세례, 주의 만찬 등 기독교 신앙의 기본 요소들이 표현하고 있다. 설교에서 영상을 사용하는 예화는 진리를 보다 더 영구적인 인상으로 만들 수 있다.

1. 전통적 설교형식에서의 탈피

지금도 대부분의 중심교파를 이끄는 것은 모더니즘 교회가 내면화한 50-70 대의 설교자들이다. 전통적 설교 형식에서 탈피하기가 어려운 것은 이들이 합리주의와 상대주의에 기초한 시대에 뒤떨어진 근대적인 전제들을 가지고 현대의 이슈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일상사나 삶의 문제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며 지나치게 명제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 시대의 회중은 대화를 중시하며, 이슈를 함께 검토하는 그룹 구성원들이 서로를 지지할 수 있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인정하며 그들에게 명쾌하고 확정적인 해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늘날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회중들이다.

전통적인 설교형식에서 탈피하려면 우리가 매주 대하는 다양한 회중을 파악해야 한다.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중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현재의 회중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들을 궁지에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받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 더 잘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격려와 위로를 받고 싶어하지는 않는 걸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 무언가 배우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 마냥 웃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 반대로 심각하게 느끼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보편적인 관심사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예화를 사용하는 것이다. 좋은 예화는 한 사람의 경험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 놓인 회중들에게 무언가 전해 줄 수 있는 것이다.

회중들의 상태 파악이 전통적인 설교 형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아직도 많은 설교자가 과거의 설교 형식과 전통적인 사회의 가치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함으로 인해, 회중들의 상황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점이다. 회중들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한 설교자들이 무리한 요구로 회중들에게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다. 자기가 하지는 못하지만 회중들의 회심과 주의 백성으로서의 결합이 회중들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그런 회중들이 변화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설교자의 강압적이고 자발적이지 못한 설교의 권유는 마지못해 참여하게 만들 것이며, 이러한 공동체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기대하기가 힘들다.

에디 깁스와 라이언 볼저 공저의 좋은 저술인 「이머전트 교회」(Emerging Churches)에는 이런 시대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만약 교회가 자신의 메시지와 삶을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에 맞게 구체화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변방으로 밀려날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구 세계 전역에서 교인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66] 그러면서 교회가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에 일어나야 할 주요한 변혁은 교회가 21 세기의 변화한 사역 환경에 유연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21 세기에도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포스트모더니즘 문화

---

[66] Eddie Gibbs and Ryan K. Bolger, *Emerging Churches: Creating Christian Community in Postmodern Cultures* (London: SPCK, 2006), 8.

안에서 복음을 구체화해야 한다. 종종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교회가 포스트모더니즘 세계에 존재하는 모던적인 기관이라는 것이다.

교회가 유연하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멀티미디어를 어느 정도, 어떻게 받아들여 자신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직 그 효과는 불분명하다. 이미 미국에서는 '전자교회'(Electronic church)가 변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평가를 정당히 내리기 힘들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뉴미디어를 신앙활동의 중심 전달 매체로, 예화의 활용 수단으로 수용하게 되면, 교육, 목회, 선교 등 전 분야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설교 형식의 변화도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2. 회중과의 교감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설교 스타일은 이 시대의 문화와 회중들의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설교 형식의 일방적인 선포, 설교자의 자기 자랑, 웅변적 강연과 같은 스타일은 적합하지 않게 된다. 회중들 자체가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설교자에게서 어떤 감동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존재며 상태인지를 설교자를 통하여 확인하는데 더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회중들이 이제는 단순히 설교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려 들지 않고 설교를 통해 무언의 대화를 나누려고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설교자는 시대의 상황에 맞게 쌍방향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설교자 중심에서 벗어나 회중과의 교감이 되는 설교를 하기 위해 설교를 여러 형태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회중들이 친숙해 하는 이야기식 내지는 드라마식으로, 그리고 상담식 등의 예화를 가지고 설교를 구성하여 쌍방향적 설교를 이루어 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라는 말씀(잠언 22:2)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던과 포스트모던이 공존해서 있는 시대이다. 모던 시대의 문화가 자신의 과거를 소멸시키는 것이었다면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들은 반대로 죽은 자의 뼈를 존중하고 그것들을 되살리려 한다. 설교자들이 회중과의 교감이 어려운 것은 회중들이 아직도 정의되지 않은 현시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설교자들은 시대의 흐름이 정해지지

않은 이때 정통과 새로움, 정착된 관례와 새로운 방식, 혁신과 고집스러움을 결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은 재미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의 설교 방식보다는 예화를 사용하여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인 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문화에서 사물을 함께 묶어 주는 심적 접착제는 익살과 열정이라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가 회중과의 교감을 원한다면 명랑하고 쾌활하게 생활하며, 그리고 재미있게 놀기를 원하는 회중들을 알아야 한다.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 놀다 보면 좀 더 창조적이고 정력적이며, 친절해지고, 낙관적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설교자로서 진지한 일은 무척 진지하게 말할 수도 있어야 한다. 크리스천인 회중의 삶의 목적은 익살과 열정뿐만 아니라 기쁨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목사였던 오스왈드 챔버스(Oswald Chambers)가 기쁨에 찬 삶을 내 피에 흐르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정의한 것처럼 기쁨은 바로 교회를 살게 하는 생혈(lifeblood)이어야 한다. 또한, 주님의 기쁨은 확신과 능력의 해일이어야 한다.[67] 예화의 사용이 익살과 열정의 유머를 뛰어넘어 주님의 기쁨으로 확신과 능력을 더 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클라런스 메카트니(Clarence E. Macartney)는 어떤 설교자의 경험을 통해 예화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20 명의 회중들에게 설교자 자신이 몇 달 전에 설교한 것 중에 기억나는 내용이 있으면 적어보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주에 단지 한 두 사람만이 설교의 개요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고 모든 이는 그 안에 들어있는 예화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68] 이처럼 예화는 회중들과 교감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진 아펠은 라스베거스에서 17 년 동안 사역하면서 전통적인 교회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켰다. 4 백 명의 주일 예배 참석자가 8 천 명으로 늘어나는 엄청난 성장을 보여 주었다. 이렇게 성장시킨 이유 중의 하나는 예화를 들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화를 통해 회중들과 교감을 나누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회중들의 삶에 연

---

67) Leonard Sweet, *모던시대의 교회는 가라*, 262-263.

68) Joseph M. Webb, *Preaching without Notes* (Nashville, TN: Abingdon-Cokesbury Press, 1946), 33.

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구원을 찾는 새 신자나 성장을 원하는 기존 신자들에게 다리를 놓아 줄 수 있는 현재의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장점이 되어서 다가오는 것을 꺼리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진 아펠의 효과적인 예화 사용법은 역사적인 예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경험하는 현재의, 새로운, 현대적인 것들을 좋아했다. 그의 예화는 저자의 경험이나, 지역사회나 국가에서 경험하는 것 등으로 모든 사람이 다 관련이 있는 공통적인 것들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재미있는 것도, 행복한 것도, 슬픈 것도, 비극적인 것도, 흥미를 끄는 것도 다 들어 있게 한다는 것이다.[69]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에게 효과적인 예화로 교감하기 위해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설교자인 나는 회중들이 좋아하고 유행하는 대중문화를 알고 있는가? 오늘의 문화를 정중히 대하고 있는가? 회중들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다. 회중들은 설교자가 문화적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성경, 하나님, 기도와 영적 문제에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것들을 알고 설교에서 예화로 나누려고 노력할 때 고마워하며 그 노력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3. 적용의 새로운 시도

시그널 마운틴 교회의 게리 필립스(Gary Phillips) 목사가 "포스트모던적인 나라에서 길을 찾기 위해선 이전과는 다른 눈과 귀, 나침반, 그리고 지도가 필요하다"[70] 라고 말한 것처럼 포스트모던 시대를 관찰해 보면 인류의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패러다임의 반감기는 더욱 짧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대를 보면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 오늘 새롭고 혁신적인 것일지라도 내일은 낡고 진부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설교나 예화도 1년 전에는 새로운 것이라도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이미 시대에 뒤진 방식이

---

69) Dave Stone, *청중을 사로잡는13 가지 맛깔스런 설교 레시피 (Refining Your Style)*, 김지홍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257-259.

70) Leonard Sweet, *모던시대의 교회는 가라*, 25.

되는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시대는 자기다움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 필요한 시대다. 똑같은 교회도 없고, 똑같은 설교자도 없고, 똑같은 목회나 예화도 없다. 심지어 같은 교회에서 예화를 들어도 회중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도 전부 제각각인 것이다. 개인에게 있는 지문이 유일무이한 것처럼 자기 나름의 독특한 예화 활용이 필요하다. 유명하다거나, 소문난 형식의 예배를 따라가는 것은 자기다움을 제한하고 손상시키는 일이다.

그러함에도 전통적인 예화와 멀티미디어시대의 예화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적용일 것이다. 비록 예화의 문제들로 인해 모양을 변형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바꿀 필요가 생기더라도, 결합이 있다고 하지만, 개념적으로 검증된 예화를 갖고 설교에서 새로운 시도의 적용을 하는 것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들을 취해서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박사의 전통에 대한 '신뢰', '이식', '추진력'을 새로운 설교학의 유형들을 제시하고 연구하는데 적용해 보았다.[71] 설교에서 새로운 설교 유형들을 제시하지만 설교 현장에는 언제 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 본다. 전통적인 유형의 설교자들의 설교 유형은 전통의 닻을 던짐으로써 미지의 포스트모던 바다로 들어가야 한다. 전통적인 방법들을 무시하고 전혀 새로운 방법과 문화 위에 설 수는 없기에 전통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첫째, 전통을 신뢰해야 한다. 전통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통'과 '악습'의 차이를 식별해야 하는 것이다. 예화의 장, 단점을 잘 파악하여 더 이상 악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전통을 이식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친숙한 새로운 의미와 힘을 부여받도록 전통을 이 시대에 이식해야 한다. 전통적인 예화를 신뢰할 수 있다면, 전에는 한 번도 접해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예화의 형식을 살려내야 한다. 그럼으로써 과거를 그대로 존중하면서 동시에 과거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활기찬 역사하심을 구해서 과거를 재창조하는 것이다. 간혹 '변형' 시키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변형'이

---

71) Leonard Sweet, *모던시대의 교회는 가라*, 116-118.

아니라 '이식'이라는 것이다. 이식이란 문화를 넘어선 진리들을 새로운 문화적 맥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상황화한다는 것은 해석(translation)이지 변형(transformation)이 아니다. 해석이란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을 취하셔서 이것을 새로운 빛 안에서 갱신하셨다면, 우리는 예수의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여 이들을 성경 전체의 빛 안에서 재해석 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상황 안에서 갱신시키는 것이다. 셋째, 전통에 추진력을 더하라는 것이다. 일단 전통이 신뢰를 받고 이식되었다면, 이것에 추진력을 더하여 기억과 상상력에 전통을 고정시키는 회복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추진력을 더하는 것은 과거에 귀를 기울임과 동시에 미래를 예측하는 일과 관련돼 있다. 이러한 '회복'(retrieval)을 위하여 세 가지 오리엔티어링 단계들을 살펴보면 '신뢰', '이식', '추진력 일으키기'가 그것이다.

설교자는 '신뢰', '이식', '추진력'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말씀을 상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전통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옛 이미지와 은유를 새것으로 바꾸어 줄 때 회중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멀티미디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설교자들은 성경의 저자들처럼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 은유, 이야기들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회중들의 삶 속에 성서적인 삶의 대안을 보여 주는 시인이 될 때, 그의 설교사역이 더욱 효과적이 될 것이다.[72]

---

[72] 계지영, *현대 설교학 개론*, 172.

제 4 장
다양한 전달 매체를 통한 예화 활용

본 장에서는 예화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전달 매체로서, 언어적인 예화 활용의 형태와 비언어적 예화 활용의 형태를 살펴보고 예화 활용의 패러다임을 통해 어떻게 예화를 활용해야 할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 세기의 위대한 조직 신학자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자신의 설교가 신학생조차 어려운 신학을 사용하여 설교하였는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신학생들이 싫증을 내며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고, 설교는 전달되지 않은 채 혼자의 독백으로 끝나는 때가 많았다고 고백한다. 틸리히는 이런 아픈 경험을 통해 *문학의 신학 (Theology of Culture)*의 마지막 장에서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한다. 메시지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회중에게 들려지지 않는 메시지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이 설교자가 설교의 효과적인 전달 방법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73]

이와 같은 고민으로 기독교 설교는 전통적인 설교 형태에만 의존하고 있는 설교 행위의 효율성에 대해 비판적인 분석을 가하며 새로운 유형의 커뮤니케이션과 새로운 형태의 의사소통 매체를 계발하는 계기가 되었다.[74] 더군다나 모던 시대에서 포스트모던 시대 정신으로 돌아선 오늘날, 기독교적 설교 대안 설정의 방향성과 강조점을 수정하거나 조정해야만 하는 문제가 시급해졌다.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려면 이 시대의 정신인 포스트모던에

---

73)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424.

74) Ronald A. Sarno, *Using Media in Religious Education* (Birmingham, AL: Religious Education Press,1987), 84-97.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알아내야만 한다.[75]

포스트모던 세계 속에서 설교나 예화가 모던 시대와 다르게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며, 예화 본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 세계와의 관련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총체적 경험은 더 이상 설교자들로 모던 시대의 설교유형만을 고수할 수 없게 만들었다. 포스트모던인들에 맞게 청각, 시각, 촉각, 미각, 후각 등 온 감각을 사용하여'쉐키나(shekhinah, 신의 임재를 뜻하는 히브리어)'의 경험들로 인도해서 회중들로 하여금 총체적 경험을 맛보게 하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74]

회중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설교자는 반드시 두 가지 다른 코드를 수행하여야 한다, 첫 번째 요소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적절한 문법과 구문론을 고려하여 구사하는 언어적 코드(verbal code) 이다. 두 번째 코드는 첫 번째 것보다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커뮤니케이션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비언어적 코드(nonverbal code)이다. 이것은 언어적 코드처럼 정해진 요소는 없지만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75]

제 1 절 언어적인 예화 활용 형태

어거스틴은 *De Docrtina Christina* 에서,

> 세상 사람들은 허위를 간결하고 명료하고 그럴 듯하게 이야기하는데 비해서,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말하면서 듣기에 지루하고 이해하기에 어렵고 끝에 가서는 믿기에 힘들어서야 되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허위의 논리를 갖고서 진리를 공박하고 거짓을 주장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진리도 옹호하지 못하고 허위도 배격할 능력이 없어

---

75)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252.

74) Leonard I. Sweet, *모던시대의 교회는 가라*, 78-79.

75) Duane Litfin, *A Handbook for Christians Public Speaking*, 2nd ed.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2004), 312-313.

서야 되겠는가?[76]

과거 전통교회에서도 세상사람들이 허위와 논리를 가지고 진리를 공박하며 거짓을 주장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진리도 옹호하지 못하고 배격할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 거기에는 세상사람들이 허위를 진리인 양 그럴 듯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당시의 수사학은 기독교의 진리도 거짓으로 만들 만큼 힘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의 포스트모던 시대에도 언어적으로 설교를 하고 이를 증명해야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전통적 가치변화에 따른 언어적인 예화 활용이 있어야 과거와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인 예화 활용 형태를 위한 제언으로서 효과적인 결과를 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구어체가 아닌 현시대에 맞는 적합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적합한 언어 사용은 단순한 습관이나 전통의 차이가 아닌, 각 집단 구성원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형성하는 사회심리상(Social Psychology)의 차이를 반영하여 인간관, 가치관,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의 기능과 특성은 사회 과학적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이처럼 설교도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나 내용을 단순히 설명하거나 전달하는 언어가 아니라, 성경을 접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자신이 과연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 변증법적 해석 기능을 수행하는 모던과 포스트모던, 전통과 비판, 보수와 진보, 한류와 난류, 그리고 앎과 삶을 연결시켜서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기계적 과정이나 수단의 전통적인 경직된 사고로는 변동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무비판적으로 수용될 수도 없다.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한 언어의 설정이다. 이제는 전통적 관점에만 국한하여 주입식, 강압식 방법을 과감히 탈피하여, 개인의 소질과 선호도를 반영하고 문화적 환경을 고려해야 설교자와 회중의 상호 관계(feedback)속에서의 발전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77]

---

76) Augustine, *그리스도교 교양*, 성 염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89), 300.

77) 임종달, *커뮤니케이션과 기독교 교육* (서울: 서울서적, 1993), 156-157.

1. 전통적 가치변화에 따른 언어적인 예화 활용 형태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윌버 슈람(Wilbur Schramm)은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 기능을 커뮤니케이터와 수용자의 입장으로 나누어 보았다.[78]

< 표 2> 커뮤니케이터와 수용자의 입장

커뮤니케이터의 입장에서 본 기능	수용자의 입장에서 본 기능
1.정보기능(inform) 2.교육, 지도(teach) 3.오락 제공(please) 4.제안 및 설득(propose or Pers-uade)	1.이해(understand) 2.학습(learn) 3.향락(enjoy) 4.수락 및 결정(disposeor decide)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기능은 이처럼 설교자가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며 제안 및 설득할 때, 회중은 이해하며, 학습하고 이를 수락 및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통적 예화 활용의 형태는 오락 제공이라는 요소를 간과하고 모든 것을 언어로서만 다루려 했기에 그림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설명하려는 개념들로 꽉 차게 되었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전달 형식은 설교가 뒤처져도 한참 뒤에 뒤쳐지는 요소가 되었고, 설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고 예화를 사용하더라도 수용자인 회중에게 무력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던 시대의 인쇄된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말씀에 익숙한 세대에게, 과거의 위대한 설교자들은 설교 전후에 회중에게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다. 기록된 설교문이 어떻게 되었느냐와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기에, 설교에서 뜻밖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설교에는 본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설교자는 회중을 단지 듣는 존재로, 수동적인 존재로 보았기에 회중이 어떻게 듣는가에는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은 채로 설교를 하고,

---

78) Wilbur Schramm, *Men, Messages and Media: A Look Human Communication* (New York: MacMillan, 1973), 19.

회중의 반응과 요구에는 관심이 적었다. 현재의 설교가들이 이러한 인쇄 매체의 형식으로 하는 설교가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을 알기에 아직도 여러 사람에게, 여러 장소에서 논리적인 형식으로 설교하려는 경향이 있다.

문화 역사가 월터 J. 옹(Walter J. Ong)은 커뮤니케이션을 세 단계로 보고 각 단계마다 중요한 도구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했다. 첫 단계는 발성으로 된 소리를 커뮤니케이션의 중심 도구로 사용하는 구두문화였다. 구두문화의 특징은 인성, 지역 충실도, 감정의 강렬함에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주요 도구로 쓰여진 글을 사용하는 문자 문화로서 주로 추상성, 무관심 그리고 물질세계에 대한 과학적 접근 등으로 특징 지울 수 있다. 세번째는 현재의 문화로서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등의 전기매체를 써서 감정이입, 전세계에 걸친 인식과 개인적인 관련 등이 특징으로 지워지는 대중문화이다.[79]

모던 시대가 읽기(Reading), 쓰기(Writing), 셈하기(Arithmetic)라는 소위 '3R'에 익숙했다면 이제는 포스트모던 세계에서의 3C에 숙달해야 한다. 이것은 의사소통(Communication), 협동(Collaboration), 그리고 창조성(Creativity)이다.[80] 이처럼 전통적 가치 변화에 따른 예화 활용의 형태도 바뀌어 가야 한다.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통신과 컴퓨터라는 멀티미디어를 만나 정보 전달 체계의 대혁명을 이루었다. 일방적이던 설교가 설교자와 회중 사이에 영상, 문자, 음성 등의 정보로 쌍방향이 공유하면서 텔레비전을 넘어 컴퓨터에 의해서 가공처리, 축적 등을 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시대라는 것이다.

캘빈 밀러는 "구태의연한 옛 방식들과 의사소통 기술에 억지로 이끌려 가는 것은 교회 밖에 없을 것"[81] 이라고 했는데 설교자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전통교회부터 참석해서 앉아 있는 회중이라고 안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설교 중에 그들의 한계가 없는 생각 속의 영역으로 펼쳐나갈 수 있다. 설교자가 회중의 상태를 고려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고 전하는 메세지는 회중들과 멀어져서 전달되지 않지만, 회중들에게 친밀감을 느끼면서 한 걸음 나아

---

79) Walter J. Org, "Transformation of the Word," in *The Presence of the Word:Some Prolegovnena for Cultural and Religious History* (New Haven, Conn.:Yale University Press, 1967), 17-110.

80) Leonard Sweet, *모던시대의 교회는 가라*, 240.

81) Calvin Miller, *The Empowered Communicator*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4), 21.

가는 것만으로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는 멀티미디어란 매체가 전통적인 언어 예화 형태에 변화를 주게 해서 전통적인 언어라는 매체로 한 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흐르던 일방적인 정보전달식의 구조를 정보가 서로 교류될 수 있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의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2. 코칭을 적용한 꿈의교회 사역

기독교는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 정신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데 포스트모던 문화의 문제점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자체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달 매체의 발전에 대한 자유로움이 없이는 어떤 힘있는 비판이나 실천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설교자는 현실의 모더니즘의 위기와 포스트모던의 당혹스러운 상황의 충돌 속에서 방황하는 회중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

전통적인 설교 유형은 설교자가 전달 매체로 말을 사용해서 자신의 고통, 아픔, 그리고 의심과 믿음의 토대 위에 목숨을 바칠 만큼의 열정으로 자신의 가장 능력 있는 의사 전달을 통해 설교를 수행해 왔다. 회중을 이해하는 설교가는 당시의 매체를 가지고 복음에서 배워 알고 있는 것을 설교에서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설교가들이 당대의 사용되는 매체들을 알면서도 시도할 용기를 갖지 못하고, 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얘기하는 것은 회중들에게 짐만 잔뜩 지워 주는 것이다. 이미 새로운 정보들은 회중들 사이에 퍼져 있고 설교가에게는 복음에서 알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행하는 자유함과 승인을 해야 한다. 예수 시대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행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는 그들과 달랐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메타포가 성경 속에 들어온 이유는 지성과 분석으로 접근하는 설교자가 회중의 갈망을 채우지 못하며 추상적인 개념들만 다룰 때 회중들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과거나 현재나 삶은 모순과 역설, 애매모호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처럼 회중들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그 그림 안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찾도록 도와줄 때, 회중들은 평암함을 느끼며 자신들을 향한 설교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전달 매체의 방법을 수용하지 못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설교자는 복음

의 메시지가 풀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잠겨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회중들에게는 그 시대의 전달 매체를 통한 메시지가 필요한데도 그 열쇠를 잃어버리고 진리의 문으로 들어갈 열쇠가 없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이 되어 버렸다. 빗장이 걸린 밖의 문에 서서 설교라는 세계 속에 매 주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달 매체의 발전에 따른 방법으로는 "의도 중심적"관점과 "의미 중심적" 관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82] 예화 사용에서 소스(source)의 부호화, 해독화 관점을 전제로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수용하는 "의도 중심적"방법과, 소스(source)의 의도나 부호화를 반드시 전제하지 않고 설교자 자신의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의미 생성, 의미 부여를 시도하는 과정의 "의도 중심적"방법을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부호화, 해독화를 전제로 하는 의도 중심적 관점의 목적은 설교자가 회중과의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태도나 행위의 변화를 목적으로 메시지를 송출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상징행위에 위해 회중들과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다. "공유화"(communization)라는 것은 상징행위에 위해 의미를 공유해야 하지만 그 외의 가능한 경험으로 일치화 현상을 보이는 것도 포함한다. 설교자가 스스로 흥분하지 않았지만 언어를 통해서 회중을 흥분시킬 수 있다면 이는 상징행위에 의해 의미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된 것이다. 상징행위에 의해서 상호관계의 이해와 사회적 긴장해소(tension reduction)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처럼"명시적(explicit) 커뮤니케이션"과 "묵시적(implicit)커뮤니케이션"을 구분함으로써 소스의 의도나 부호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의미 중심적 관점과 의도 중심적(명시적, 묵시적)관점의 커뮤니케이션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예화를 설교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83]

어느 한 쪽의 관점이 부각되어 넌더리 나게 하는 설교조의 용어나 절대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들의 배열, 구식적인 표현들의 재활용 등은 없어야 한다. 설교의 명료성을 견지하기 위해 기계적이고 상투적인 언어로 예화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상한 목소리나

---

82) 임종달, *커뮤니케이션과 기독교 교육*, 24-25.

83) Th. Nilson, "On Defining Communication," in K. Sereno, and D. Mortensen, eds, *Foundations of Communication Theory* (New York: Harper and Row, 1970), 15, 16.

노래나 그 밖의 것들에 의존하여 주목을 끌려고 해서는 안 된다. 메시지를 선포할 때 메시지가 지니고 있는 진리성이 드러나서 그리스도가 메시지의 중심과 전면에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3. 설교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언어적인 예화 형태의 변화

포스트모던 시대는 언어의 위기(language crisis)시대 라고 할 수 있다. 언어의 위기는 곧 설교의 위기로, 말로 하는 설교는 그 힘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설교의 출발점을 아주 극단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설교자들은 설교가 회중들로부터 언어학적인 소외와 혼동의 희생자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성경의 구조, 일치, 움직임을 설교의 본문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언어로 설교 행위가 이루어졌나를 보아야 한다.

설교가 모방하고 복제하면서 재생산하는 식의 안전주의는 환영하지만 반면에 이 시대의 대중문화를 반영하여 상상하고 개선시키고 새로운 생산에 의지하는 설교는 아직도 환영받지 못하고 위험한 존재로 취급 받는 형국이다. 이제는 설교가 제도적이고, 방침에 따라 움직이기 위해 구태의연하게 있는 모습을 버리고 설교의 패러다임을 사용할 때가 되었다. 창조성이 설교가 가진 최상의 무기가 되게 해야 한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설교는 언어적인 예화 형태가 지성적이기보다는 상상과 이미지와 이야기식의 설교 예화 형태가 되게 해야 한다. 이 시대는 이미지들에서부터 강하게 자극된 정서와 상상이 중심이 되어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풍부한 상상과 초자연주의의 기류를 타고 이성만의 날개는 잘려 나가고 있는 시대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에게는 영적 삶의 기초가 이성이기보다는 상상에 근거를 둘 만큼 상상력은 가장 가치 있는 일용품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빌 하이벨스 목사는 기존의 회중들을 육성하는 동시에 불신자들을 복음화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고 설교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한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위한 예배에서는 철저하게 구태의연한 말들을 피하고, 회중들의 관심에 집중하여 뉴스나 경제에 관련된 잡지들을 인용하면서 실제적인 문제들로 예화를 들어 설교를 한다. 회중은 설교를 보통 30분 이상 듣게 되지만 편안한 극장 의자에 앉아서 모든 순서의 주

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순서에 있으면서 예배 중간에 설교의 주제와 관련되는 회중의 생활방식을 그대로 묘사하는 간단한 연극도 보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84]

설교 패러다임에 변화를 주는 언어는 이처럼 회중들의 언어로써 설계해야 하며 그 언어적 설계에 따라 예화 활용의 모습을 창조해야 낼 수 있어야 한다. 설교 패러다임의 변화는 위해서 언어적인 예화의 활용 형태는 전체적으로 보고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예화 활용과 설교의 각 부분에서 요청되는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예화 사용이 함께 맞물린 형태가 좋을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언어적인 예화를 창조해 내기 위해 설교자는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수행하는 설교 현장에 있어야 한다.

설교 현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예화를 사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오늘 시대의 복음에 어떠한 형태의 예화가 필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 설교자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이 전통의 방식과는 다르게 이야기하도록 요구하는 현실에, 거대한 기존의 권력과 매력의 반대 이야기들로 가득 찬 회중들의 삶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발명하기를 원하고 있다. 언어적인 예화에 미디어시대의 강력한 시각언어를 장착하여 오늘날의 미디어체계와 그 체계의 강력한 신화를 넘어서 있어야 한다. 미디어라는 아주 강력한 영향 아래 머물러 있다면 무기력해지면서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포스트모던 시대를 계속 주시하면서 전달 매체가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설교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는 설교자의 삶으로 드러내는 언어적인 예화 활용의 형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 2 절 비언어적 예화 활용 형태

설교의 주된 전달 수단은 언어이지만 설교자의 말이 아닌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효과적인 설교사역의 마지막 원리는 말이라는 의사전달수단 위에 음성, 표정, 제스처를 유의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보통의 하루 일과를

---

84) 정병관, *복음 혁명을 주도하는 세계 17 대 교회*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15.

보더라도 하루에 말하는 시간은 10분에서 11분 정도이고 그 외에 대부분의 시간은 비언어적 요소에 의지하여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이다. 설교할 때도 7퍼센트는 내용을 통해, 38퍼센트는 음성을 통해, 나머지 55퍼센트는 표정을 통해 회중에게 영향을 준다고 한다. 내용은 7포센트만 차지하고, 나머지 93퍼센트는 내용 외적인 것에 좌우된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비언어적 요소를 커뮤니케이션하는 일에도 힘써야 하는 것이다.[85]

포스트모던 시대에도 교회는 여전히 인쇄문화의 보루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어떤 이들에게는 설교자는 새로 부상하는 문화의 주요 언어인 매체에 반대하는 자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시대 문화의 주요 매체로써 시각매체는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이미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시각 지향적인 문화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시각매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현재의 비언어적인 부분의 시각 매체인 전자문화를 사용하여 성경의 진리를 회중들에게 말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설교자들의 설교에 대한 사명의 결여, 나태, 그리고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관점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감각보다 시각을 더 신뢰하며 지향적인 문화에서 영상이 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설교자의 비언어적 요소가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영향을 주듯이, 이 시대에서는 뉴스, 청문회, 스포츠 행사, 선거 토론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인쇄된 글이 아니라 주로 영상을 통해 얻어가고 있다. 영상이 급성장하는 이유는 접근이 쉽기 때문인데 상상하면서 보아야 하는 인쇄 문화와는 달리 모든 것을 보여주기에 수고가 훨씬 덜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영상은 가장 대중적인 매체가 되었다. 과거에 오락적인 기능에서 이제는 교육적인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삶을 종합적으로 재현하는 기능이 더해져 사회-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설교자가 이런 비언어적 부분의 요소를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히 언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설교는 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설교자가 다양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 모습은 설교를 보다 설득력 있고 동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

85) 홍영기, *설교의 기술*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7), 190.

수 있어서 설교를 받아들이는 회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 갈 수 있는 것이다.

1. 비언어적 예화 활용 형태의 기능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억지로 단어들을 꿰맞추고 설교를 요약하고 만들려고 하면 설교가 어색하게 되고, 회중들은 그 메시지를 외면해 버리고 만다. 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설교 내용을 짜맞추려 하면 메시지의 핵심을 분산되어 설교를 망가뜨리고 회중들의 관심이 분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 설교가 내용보다 드러나는 부분의 겉치장에 더 중점을 두는 경우에 회중들은 설교자체보다 설교의 말장난에 시선이 돌리게 된다. 그 결과 회중들이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설교자의 말장난에 놀아나게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된다.

잘못된 비언어적 예화 활용의 기능은 설교자의 감정만을 드러나게 할 수 있다. 설교자의 몸짓 자체에만 주목을 끌게 해서도 안되는데 자칫 요란한 몸짓에 주목할 경우 설교자가 지금 무슨 말을 전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모든 부분에서 모든 행동이 자연스러우면서도 그 속에서 메시지를 발견하도록 해야만 한다.

음성언어(verbal language)이외에 또 다른 경로(second channel)인 비언어적 기호(nonverbal signals)를 이용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다. 사람의 인품이나 느낌, 감정도 언어수단(verbal means)보다는 비언어적 기호(nonverbal signals)인 비언어적 행위에 의해 더욱 정확히 전달이 된다. 비언어적 경로(nonverbal channels)는 언어적 경로(verbal channels)보다 잠재적인 효율성이 훨씬 높아서 기만이나, 왜곡, 혼동이 없이 회중들에게 그대로 설교자의 의미와 의도를 전달하게 된다. 무언의 메세지(tacit message)는 회중과의 관계를 가깝게 해주기도 한다.[86]

비언어적 예화 활용 형태는 오늘날과 같은 매스미디어 시대에 단순히 들려주는 설교의 내용보다 좀더 시각적인 요소를 동원하여 전해주는 메시지로 접할 때 확실한 복음을 제시할

---

[86] M. R. Chartier, *설교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Preaching as Communication)*, 차호원 역 (서울: 소망사, 1984), 120-124.

수 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적용될 때 회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적용시키면서 자신에게 맞는 메시지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설교자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회중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설교자는 항상 회중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설교자 또한 이러한 비언어적 형태의 예화 활용을 위한 준비를 할 때 창의력이 커지게 된다.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면, 결국 그러한 모습을 통해 회중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를 만들 수 있는 창의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설교자들의 고민은 멀티미디어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회에서도 무시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극대화를 이루는 것이다. 멀티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 설교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회중의 태도, 시간과 효율적인 설교 시간, 회중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의존성 강화와 개별화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쇄 매체에 기초하던 기존 신앙생활과 신학적 사고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온 멀티미디어는 설교에 활력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인쇄 기술이 한 때 종교개혁의 후원자가 되어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지만, 문자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교회의 영성이 점차로 침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영적 갱신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전환적인 매체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게 되었다. 멀티미디어는 제도화되고 영적으로 경직되어 가는 전통교회의 설교 사역에 자기 개혁을 이끌어 내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문화로 아직도 인쇄 문화에 함몰되어 있는 설교자와 회중에게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고 개혁을 위한 비판적인 정신까지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멀티미디어의 기능을 통해 진리에 이르는 통찰력과 인식을 증가하여 복음을 위한 준비로서 회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도구로서만이 아닌 복음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매체로 사용되어야 한다. 매스미디어에 부여되기 쉬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매우 비판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설교자들은 미디어의 유명인사가 되려고 하거나 요구사항에 발목 잡혀 복음이 복음일 수 없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에 유의해야 한다. 설교자가 멋진 무대와 현란한 미디어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설교를 만들려고 하지만 강력한 설교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디오, 비디오, 미디어 등을 동원하여 만들어 내지만 대중문화의 제작자들이 만들어내는 것과는 견줄 수 있는 기술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최신의 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설교예화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 분명 미디어가 유용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사용되는 주요한 수단이 아닌 도구이기 때문이다.[87]

2. 비언어적 예화 활용 형태의 분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verbal communication)에 대해서는 오랜 연구의 역사가 있으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그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다. 루취와 키즈(Jurgen Ruesch and Weldon Kees)가 1956 년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 인간관계의 시각적 이해에 관한 연구(Nonverbal Communication –Notes on the Visual Perceptions of Human Relations)를 펴냄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88]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감각과 무의식 그리고 직관이라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비언어적 정보(nonverbal information)를 끊임없이 받아 드리고 있기에 회중들은 그들이 깨닫고 있는 사실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비언어적 예화 활용 형태를 설교와 관련하여 전달하는 매체로, 목소리와 관련된 비언어, 신체동작과 관련된 비언어, 사물과 관련된 비언어, 시공간과 관련된 비언어 등이 있다. 목소리와 관련된 비언어는 사용 과정에 있어서 언어와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언어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 신체 동작과 관련된 비언어는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언어 메시지를 보충하거나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제 2 의 언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것이 모자라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나친 사용도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신체도구는 여러 가지 감정과 태도를 전달하는 도구로 또는 그것을 강화시켜주

---

87) Michael Duduit, *능력 있는 설교 이렇게 한다 (Preaching with Power)*, 권영주 옮김 (서울:국제제자훈련원, 2009), 198.

88) Jurgen Ruesch and Weldon Kees, *Nonverbal Communica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6).

는 역할로 작용된다. 설교에서 제스처와 설교 자세, 외모와 관련된 신체도구로는 얼굴 표정, 손, 머리, 다리나 몸통 등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어느 문화나 사회를 막론하고 적절한 제스처 활용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신체동작에 이어 사물과 관련된 비언어는 복장, 외모 치장과 관련된 장신구의 요소들이 이에 속한다. 복장은 상대방의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상대방의 신분과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시공간과 관련된 비언어적요소로는 시간, 공간, 건물 구조상의 특정과 관련된 요소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수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89]

최근 설교에서 비언어적 예화 활용의 형태로 미디어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모던 시대의 회중들과 공유하는 부분에 의견차이가 있어 건강하게 균형 잡히지는 않았다 보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시대를 맞이하여 설교 시간에 더 많은 영상 클립을 보게 될 것이고, 강단 주위에는 더 많은 오디오 시스템과 조명이 설치될 것이다. 이런 면들은 회중들의 관심을 고정시키는데 긍정적인 부분들이다. 이러한 비언적 예화 활용 형태의 설교는 이미 서구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시도되어 온 것인데 이것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언어적인 설교가 주된 현 설교스타일의 풍토 속에서 비언어적 예화 형식의 설교로는 스킷 드라마(Skitdrama)를 설교에 접목한 스킷 드라마 설교, 찬송가를 설교 본문으로 정해놓고 악기를 동원 설교하는 찬송 설교(Liedpredigt), 설교의 입체화를 지향하는 역할 설교 (Rolepredigt), 두 명의 설교자가 나와 설교하는 대화설교(Dialogische Predigt), 프로젝트 등의 영상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영사 설교 등이 있다. 현대의 비언어적 예화 활용의 형태는 매체의 발달로 더 화려하게 설교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90]

여기에 영화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설교를 더욱 상상력과 이야기 중심의 설교로 몰아가고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산다는 것은 사실과 허구가 합쳐져서 보여주는 영화 같은 세상에 거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중들이 영화를 보는 것처럼 설교를 들을 때 우리를 둘러싸

---

89) 김운용,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설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7), 394-395.

90) 정인교, *논리전개에 따른 열 여섯 가지 설교의 패턴* (서울: 청록출판사, 2012), 28.

고 있는 것들이 환상에 불과할 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던 시대의 설교는 설교자의 마음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시대였지만,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은 설교 배후의 어떤 정신(Mind)에 대한 확신 같은 것보다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91]

포스트모던 시대의 설교는 추상적으로 어렵게 설명하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관점들을 비언어적 예화 활용의 형태로 몸과 마음으로 생생하게 경험하게 만들어야 한다. 영상문화는 매우 포스트모던 하다는 것이다. 세상은 미디어화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돌이킬 수 없고 멈출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문화는 설교와 회중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며 사고와 가치관에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설교도 회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갖가지 방식으로 다변화해야 하며 그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러한 변화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비언어적 예화 활용 형태의 매체와 전달 경로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포스트모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려면 오늘날 대중문화에서 볼 수 있는 포스트모던 풍조를 보면 알 수 있다. 현재의 대중이라는 문화보다 더 고상하고 우월한 위치에 고급문화가 있다는 모던 시대의 통념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포스트모더니즘의 단면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대중문화의 의식과 그림, 이미지, 색깔 등은 회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중요한 시각적 신호이다. 회중들에게 새롭게 각인된 이미지와 그림들, 그리고 의식들을 통해 회중들의 의미와 주체성, 그리고 과거와의 연관을 찾아줌으로써 매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만든다. 회중들은 모던 시대의 언어나 논리에 의해서보다는 이러한 자신들의 상황에 밀접한 시각적 신호를 통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의 의미, 자신의 생각 등을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크고 작은 집단들이 이러한 시각적 신호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주체성을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청각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도 가장 중요한 비언어적 전달 매체로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의사전달을 위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소리를 통한

---

91) Stanley J. Grenz, *A Primer on Postmodernism*, 66.

전달은 가장 오래된 방법으로서 적당한 소리의 작용은 사람을 흥분시키거나 침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신호가 이미 조직화되어 있고 인간의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고도로 발달된 신호체계로서 음악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이 신호 체계를 효과적 의사소통이나 복음 전달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음악을 복음전달 매체로서 사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음악은 문화적 상대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가령 사람들이 다른 문화의 조형물이라도 신기해하고 흥미롭게 보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지만, 다른 문화의 음악은 잠시 흥미를 갖더라도 의미나 느낌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개는 싫증을 내게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도 이제는 타 문화의 음악이나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음악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던 시기를 지나 한국의 정서와 한국적 정서의 시대적 감각에 맞게 개조하여 사용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처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라도 본질적으로 설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기술들을 통해 설교의 도구를 생산해낸다. 설교자는 이 도구들을 어떻게 설교에 결합시켜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무슨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이 사회적 또는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시대에 설교에서 어떻게 의미와 가치를 형성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비언어적인 매체로서 오디오나 비디오 혹은 다른 매체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영화나 좀 더 앞서나가는 매체들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현재의 교회들이 프로젝트라는 매체를 사용해서 성경본문을 스크린에 띄우고, 설교에 회중들이 흥미로워 할 인용문이 있다면 띄우는 등, 회중들에게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에 영화의 한 장면을 사용하여 화면을 보여 주고 설교 내용을 보충해 준다면 대중문화 매체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대중문화 매체의 부정적인 면이 매우 많긴 하지만, 매체가 가진 결점으로 인해 사용하기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대중문화 매체의 긍정적인 방법의 사용은 이런 문화에 익숙한 회중들의 호응과 관심을 얻어내게 될 것이다. 영화나 대중적인 노래에 구속사적인 주제를 적용하여 회중들의 호응과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유익한 메시지전달 양식이 될 것이다.

에드 영(Ed Young Jr.)은 오래전부터 시청각 자료들의 중요성을 알고 설교에 시청각적인 요소를 삽입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흥미로운 전달 매체 도구들이 중심이 되어버린다며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반대로 전달 매체 방식만을 쓰기에 급급해하는 것처럼 보기에 딱한 것도 없다. 설교제목을 영화 제목에 빗댄다거나, 스포츠경기를 영상으로 활용하려 한다거나, 텔레비전 쇼를 따라 하는 등의 변화는 필요하다. 이것들을 이따금씩 사용하는 것은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반대로 매번 사용한다면 어떤 이들은 독창적인 예배나 쇼나 영화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전부라고 예측하게 될 것이다. 모던 시대의 교회처럼 형식과 진부한 설교 방법을 답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를 모델로 삼기에는 부적합 것이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측 가능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다.[92]

회중들의 확신은 설교자가 회중들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비언어적 신체언어가 설교하는 내용과 어울릴 때 새기게 되는 것이며, 회중들이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전달 매체의 잘못된 적용으로 서로의 시선이 어긋나거나 설교자의 설교 내용과 음성, 자세, 복장, 몸짓, 얼굴표정 등이 일치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된다. 설교자와 회중의 하나되지 못하는 것은 메시지와 비언어적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가장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설교 내용은 둘째 치고라도 설교자체가 회중들에게 확신감을 갖게 하려면 끊임없이 눈길을 주는 동시에 언어적, 비언어적 의미를 일치시켜 설교하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 3 절 예화 활용 패러다임의 변화

설교에서 예화 활용의 조건은 회중들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 적용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적용할 수 없는 예화는 참된 의미의 예화가 될 수 없으며 설교는 이러한 적용 면에서 성패가 갈린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설교에서 예화는 관심을 집중하려거나 재미와 흥미만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적용해야 할 말씀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적용되어지지 않고 회중과 분리되고 말씀과 분리되는 예화는 참된 의

---

92) Michael Duduit, *능력 있는 설교 이렇게 한다*, 442.

미로서의 예화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예화 활용에 대해 설교를 준비한 후에는 회중들의 실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 가운데 예화는 적용된 말씀이 더 잘 빛이 나도록 안내해 준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에서의 예화는 또 다른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시대에서 예화에 대한 패러다임의 요구는 시급한 것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들은 갈등과 고통을 경험한다. 옛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개인들이나 공동체가 새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개인들이나 공동체를 이해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마스 쿤은 옛 패러다임에서 새 패러다임에로의 전환을 회심,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경험, 번쩍이는 직관과 같은 종교적 경험에 비유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편견은 때려부수는 것은 원자를 파괴시키는 일보다 더 어렵다고 했다.[93] 설교에서 예화 활용 패러다임의 변화는 쉬운 것이 아니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1. 설교자로서 예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

설교자들은 변화된 시대 속에서, 전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계속해서 설교를 한다면 지금도 적절한 설교가 될 것이며, 회중들의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마음 밭에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포스트모던 사회와 문화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지난 300 년간의 시대를 지배하였던 모더니즘의 지적 구조에 현격한 변화가 가해지면서, 그러한 결과들은 커뮤니케이션의 환경을 바꾸고, 다원화 사회로 향하게 하는 또 달라진 포스트모던 시대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설교 사역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거나 나아진 것 같지 않다.

모던 시대의 가치관과 구조 속에서 살던 회중들에게 이 시대는 삶의 방식과 메시지를 받는 방식도 달리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 세워진 교회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 설교자들 역시 대안을 쉽사리 제시하지 못하고 급격한 변화들 앞에서 도전과 위협 앞에 처해 있는 형편이다. 미래와 당장의 현실을 생각하며 영향을 끼

---

93) 이형기, *21 세기를 향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의 모색*, 198-199.

치지 못하고 있는 설교의 틀을 새롭게 고려해 보아야 할 상황이다.

설교에서 예화의 활용은 감동을 유발시켜 회중들에게 진리를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다. 좋은 예화란 설교하면 설교 중의 본문은 잊혀지더라도 회중들은 예화를 기억하여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화를 단순하게 생각하고 활용하려고 만 한 것이 아니라 탁월한 설교가들은 좋은 예화를 언어적, 비언어적 형태들을 들어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이런 좋은 예화의 활용은 설교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복음의 선포적인 설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해 진다. 설교자들은 포스트모더니즘 의식으로 모더니즘을 대체하려는 이 시대의 의식에 편승하지 말고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전통을 회복해야 하는 교회의 소명을 생각하면서 회중들이 포스트모던 문화 속에서 살고 활동하며 존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대처시켜서, 포스트모던 문화만이 아니라, 기독교와 포스트모더니즘을 통합하는 문화를 양성함으로 어느 시대, 어떤 모양, 어떤 환경에서도 회중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예화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브라이언 채펠(Brian Chapell)은 예화 사용에 있어 의미 있는 적용은 회중에게 단순히 무엇에 대해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의 각 상황에서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어서 동기를 갖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적용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정보 전달과 함께, 설교가 회중들의 삶에 적용되어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확인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설교자는 본문을 해석하고 들려주는 동시에, 그 본문을 듣고 있는 회중도 해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설교자는 회중들의 삶과 관련이 있고, 회중들이 설교자와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예화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94]

예화 설교를 듣는 회중에게 다가가려면 폭넓은 관심과 주제를 가져야 한다. 설교자가 자신에게 익숙한 사람들에게만 친근하게 대하려는 자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에

---

94) Michael Duduit, *능력 있는 설교 이렇게 한다*, 189.

서, 자신의 경험에서 예화를 사용하려는 자유, 자신의 교육 수준이나 영적 헌신도에 기초해서 회중들에게 설교하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한다. 때로는 이런 포기가 억압으로까지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을 표시할 때 설교자는 확고한 설교와 자유로운 예화의 기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2. 회중들에게 있어서 예화의 의미

예화는 회중들의 주의력을 집중시켜 준다. 설교자가 예화로 설교를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며 집중하는 것을 본다. 이런 집중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초등학생이 7분, 중, 고등학생이 10분, 그리고 성인이 15분 정도라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설교를 듣게 되더라도 15분이 넘어가면 성인이라도 잡념이 스며들어 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회중의 주의력을 모으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화의 사용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설교자가 가장 해서는 안될 일이 회중으로 하여금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다. 회중들에게 있어서 예화의 의미는 설교를 지루하게 하지 않으면서 전달하는 메시지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95]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은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사고방식을 요구 받는다, 실생활에서의 전자상거래 한 가지만 보더라도 새로운 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토마스 쿤(Thomas Kuhn)이 아니더라도 설교자에게는 예화에 대한 패러다임 변형(Paradigm shift)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런 시대적 요청은 회중들의 설교 이해를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써 설교유형 변화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96]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 균형을 잃은 예화 사용은 주의해야 한다. 설교를 듣는 회중들 중에는 모두가 좋아할 만한 내용도 있고, 어느 것에 대해 더 관심을 나타낼 수도 있다. 설교자는 균형을 잃지 않고 모든 예화에 상상력을 채운 다음 회중들의 실재적인 생활을 사용해서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회중이 공감하고 진리를 그들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95) 홍영기, *설교의 기술*, 122.

96)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1), 54.

포스트모던 시대의 예화를 통한 설교들의 방식은 찬반 양론을 불러올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이제는 어느 형식도 기계적으로 고집할 수 없고, 형식 자체가 불변의 진리자체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원칙론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그것이 행해지는 현장과의 연계성을 전제할 수 밖에 없음을 염두에 두고, 교회 회중의 보편적 정서와 동의가 예화를 설교에 도입하는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회중들이 설교를 통한 성경 말씀 들으려고 교회에 오게 되는데 설교자가 성경 말씀으로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는 것이 약하다면 실망하고 돌아갈 것이다. 회중들이 세상에서 치열한 삶을 살다가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오지만 설교자가 성경 말씀으로 자신의 삶에 구체적인 적용을 해 주지 않는다면 실망할 것이다. 그들은 치열하게 사는 세상에 대하여 당당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 후련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적용된 말씀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제이 아담스(Jay Adams)는 설교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면서 설교란 성경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not about Bible) 성경으로부터(from the Bible) 회중에 대해(about sudience) 말하는 것이라고 효과적인 설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성경을 해석해서 회중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설교라는 생각에서 회중들에게 적용될 수 메시지를 끄집어 내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다. 설교자가 예화를 설교에만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회중들의 삶에 적용된 예화로까지 끄집어 낼 때에라야 예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97]

현대의 설교는 일차적인 관심을 설교자와 본문보다는 설교를 듣는 회중과 회중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둔다. 전통적인 설교가 복음의 완전성 만을 강조하면서 불완전한 회중의 문제를 소홀히 취급함으로써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설교의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가능성이 부각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극단적으로 반대편의 의견을 표방할 수 있다는 위험도 알아야 한다. 회중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설교의 일차적인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설교의 인간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화의 형식은 설교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도구라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설교의 정체성

---

97) 홍영기, *설교의 기술*, 52.

자체를 뒤흔드는 위기를 다시 맞게 될 것이다.

3. 예화 매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도입

마틴 루터는 사람들은 어렵고 미묘한 논쟁거리들보다 비교와 보기들을 통해서 더 쉽게 사로고, 잘 쓰여진 책보다는 잘 그려진 그림을 보고 싶어한다고 했고, 폴 드만은 은유는 사실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라는 말에서 폭넓은 적용과 사고를 설교자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98] 브라이언 채펠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회중들을 지루하게 만들기 때문에 설교에 대해 말하길, 설교에는 설명이 있고, 예화가 있고, 적용이 있다고 말하곤 한다. 마치 화가들이 색상환에는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초록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림을 그릴 때에 도화지 위에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해 각 부분을 그리다 보면 이 모든 색깔이 도화지 위에서 조화롭게 어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 이것은 각 색깔은 개별적이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에서 예화를 사용하고 나서, 설명을 잘 했나, 예화는 적절했나, 적용은 괜찮은 가와 같은 독립적인 질문에 큰 관심을 두기보다는 전체적인 설교에서 예화가 폭넓게 사용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99]

설교자는 오랜 시간 동안 똑같은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친다. 설교자는 분명 회중들이 시간이 지나면 설교의 내용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또다시 사용하려는 태도도 조심해야 한다. 설교자는 항상 똑같은 식으로 설교하려는 익숙함의 편안함을 버려야 한다. 성경도 보면 다양한 책에서 위대한 진리들을 반복해 가르치지만, 언제나 다른 예증과 유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설교의 예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적용이다. 설교에서 적용이 없다면 연설이나 독백이나 강의와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회중에 대한 적용이 꼭 필요하다. 예화도 단지 집중이나 흥미유발을 위해서 본문과 상관없이 사용하는 것은 참된 예화가 아니다.. 오

---

98) Warren W. Wiersbe, *이미지에 담긴 설교*, 123.

99) Michael Duduit, *능력 있는 설교 이렇게 한다*, 194.

늘의 회중들은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관계가 없어 보이거나 재미가 없어 보이는 예화의 사용은 회중들에게서 외면을 당하는 것이다. 예화는 목적은 회중 개개인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매개체가 되어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포스트모던 시대는 예화의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이해의 폭도 넓어져서 설교를 이해 시키기 유용한 매체들을 사용하기에 좋게 되었다.

포스프모던 시대의 회중은 설교자가 말로써 앉혀 놓고 고문에 가까운 설교를 자행하는 것을 인정하지도 참지도 않는 세대의 사람들이다. 회중이 동의하지 않는 설교자만의 독단적인 말씀해석이나 선포라는 명목 하에 강압적으로 주입하려는 식의 설교는 지향하고 설교자는 회중들로 하여금 설교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통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설교를 해야 한다.[100]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예화 사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전의 신학교에서 배운 모더니즘적인 시각에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고, 새로운 예화 매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도입에서 출발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면서, 보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설교자에게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시각, 새로운 묘사 방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물결 속에서 설교자는 자기자신과 교회, 회중 속에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포스트모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해하는 능력을 점차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다.

모던 시대가 문자의 과부하로 인해 교회가 영적인 침체를 맛보았다면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와 신학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전환기, 즉 멀티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 몰고 오는 충격과 도전 앞에 있다. 멀티미디어의 기술의 개발은 세계를 지구촌으로 만들었고, 전통적인 교회와 신학이 가지는 패러다임의 변화까지도 주도하는 세력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설교자에게 무엇보다도 요청되는 것은 멀티미디어의 변화상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신학적 차원에서 바르게 판단해서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매체들을 받아들일 때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을 간파해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설교자의 할 일은 멀티미디어에 의한 사회적, 회중들의

---

100) 김진년, *크리스챤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2), 63.

변화가 오히려 교회의 변혁을 위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시발점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제 4 절 문자 이후 시대 예화 활용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교회가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과거의 형식들이 이제는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설교가 행해질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었다고 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옛 방법들이 점점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의 도래는 설교를 무력하게 하면서 기독교 자체를 위기 상황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옛 설교 방법들에 대한 불신으로 회중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설교자들에게서 기인한 것이며, 전달되지 않는 설교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101]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들은 대중매체로 인해 설교 이해의 근본까지 영향을 받아, 설교를 이해하던 이전의 사고방식이나 시각, 사상들까지도 바뀌게 되고, 문자이전 시대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설교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장소는 예나 지금이나 같아도 기술혁명과 대중문화, 멀티미디어가 지배하는 장소는 근본적으로 변해버려 전혀 다른 설교 적용으로 회중들과 상호작용 해야 하는 완전히 바뀐 환경이 되었다. 당연히 예화의 사용은 대중문화와 미디어, 기술혁명으로 인해 바뀌어진 문화와 회중들에게 맞게 공감이 되는 것들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도 예화의 주된 목적은 회중들이 말씀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회중들 속에서 일어나는 심정의 변화들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 문자 이후 시대에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전에 언어로 하던 예화가 회중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가슴에 호소하는 매체들로 다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따라 설교자도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회중의 변화에 맞게 청각보다는 시각적인 예화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현실에 안주할 수 없는 것은 설교 현장에 있는 회중들의 변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빠르고 다양해져서 또다시 새로운 것을 맞추어 거기에 맞는 것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

101)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19.

현재의 문자 이후 시대 설교자의 과제는 시대의 예화 매체들을 활용하여 성경과 회중들의 만남을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성경 본문의 내용과 상황이 회중들에게 보여지고 들여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제시해주는 것이다. 즉 설교자는 성경 저자들이 제시하는 이야기와 은유, 이미지의 세계 속으로 직접 들어가 먼저 그 의미를 깨닫고 회중들에게 공감이 가는 예화 매체를 활용하여 그것들을 회중에게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1. 전후 세대와 구도자에 민감한 예화 활용

현재의 시대가 전통적, 모던적, 그리고 포스트모던적인 단계들로 순차적인 절차를 밟아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붙어 서로 공존하며 함께 왔기 때문에 그 도전들이 어려운 것이다. 전통적인 교회는 이성에 근거하여 상상이나 경험적인 예화를 표용하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야기나 상상력의 힘을 망각하고 무시하려는 경향 때문에 설교자들이 이러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감성과 상상은 음악과 문학에서 표현되는 것이라고 보는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설교에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미지는 마음의 유희와 동등하게 여겼고, 은유는 진실을 전달하기에는 원시적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여겼다. 생각은 고정된 범주 안에서 움직이고 명제를 통해 진리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설교도 하나님은 명제로, 원칙으로, 또 법칙으로 생각하신다고 진지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준비하였다. 이 개념을 벗어나 하나님의 모형으로, 이야기로, 설화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근대 세계는 질색했다.[102]

구도자예배에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빌 하이벨스 목사는 자신의 회상에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친구와 나란히 앉아서 전통적인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해 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경험이 너무나도 생생하여 60분의 예배 시간이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힘든 시간중의 하나라고 했다. 처음 온 구도자의 입장에서 예배 드린 결과는 너무나 지적인 요소의 예배 때문에 내적으로 움추려들고 끔찍스러웠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조자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종교를 멀리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새롭게 함과 동시에 그들에

---

102) Leonard Sweet, *모던시대의 교회는 가라*, 319

게 다가가는 전략적인 설교가 필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하이벨스목사는 어떻게 하면 신자들을 육성하는 동시에 불신자들을 복음화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수도 없이 자신에게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그의 결론은 예배의 방식을 바꾸어 철저히 불신자들을 위한 예배에서의 설교는 구태의연한 말들을 피하고, 아주 실재적인 문제들을 회중들이 알 수 있도록 뉴스와 경제에 관련된 잡지들을 인용하여 강조했다는 것이다. 장소도 회중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안한 극장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듣게 하고 길지 않게 설교는 보통 30 분 정도 하면서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순서의 주제와 맥락을 같이 하게끔 기획했다는 것이다. 이런 예배에서 구도자들을 위한 예화 활용으로 예배 중간에 설교의 주제와 관련되는 회중의 생활방식을 그대로 묘사하는 간단한 연극 같은 것을 활용하였다.[103]

이러한 교회들의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매스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방법의 설교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별히 청소년들만 아니라 기존의 회중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드라마, 춤, 영상 매체, 음악 들을 사용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전에는 단순히 설교자의 입에서 들리는 설교였다면 이제는 이러한 매체들로 인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되었다.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설교자는 이런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윌로우크릭 교회는 엑세스 예배(Access service)를 통해, 새들백교회는 촛불과 어쿠스틱 음악이 어우러진 비디오 카페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즉,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대형교회들도 무언가 다른 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공감하는 교회와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확산되어 나갔다.

지금의 시기를 시대 구분으로서 본다면 포스트모던이며 이것은 모던 시대의 해체 시대로 볼 수 있다. 구도자에 민감한 예화도 이런 시기에서 이전 설교들의 해체 및 그 이후로 볼

---

[103] Lynne, and Bill Hybels, *윌로우크릭 커뮤니티 교회 (Rediscovering Church)*, 김성웅 역 (서울: 두란노, 2005), 294.

수 있을 것이다.

2. 멀티미디어 시대의 예화 활용

포스트모던인들의 관점에서는 교회에서 의사전달이 이루어지지만 결국에는 회중과의 소통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교자들이 문자 해독력에서 그래픽을 읽어내는 능력으로, 직선적인 사고에서 유연한 고리적인 사고로, 설교를 작성하려는 생각에서 경험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회중과의 연결을 하려는 것에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설교자들이 설교단에 갇혀 확실하고 역동적인 형태의 의사전달만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교자가 설교단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영적 대각성은 설교단에서 빠져나와 통로에서, 길에서, 방송 전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루어졌다.[104]

류응렬(총신대학원 설교학)교수는 준비하면서 실제처럼 해보지 못하는 설교를 강단에서 제대로 해보리라는 기대는 과욕이라며 연습 없이 강단에 서는 설교자는 설교의 기본부터 다시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설교자들이 설교는 원고만 준비하고 멀티미디어나 따로 준비 없이 설교단에 선다는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원고만 읽는 정도로 연습한다."(71.5 퍼센트)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설교에서 멀티미디어(컴퓨터, 빔 ·비디오 프로젝트, OHP 등)을 어느 정도 사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사용하지 않는다'(51.6 퍼센트)가 절반이 넘었으며 '매주 사용한다.'는 설교자들은 20.5 퍼센트를 차지했다.[105] 이러한 설교자들의 의식은 회중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야 할 예화 활용에도 작용할 것이다.

전통과 모던 시대의 문화가 시와 건축, 회화와 조각이 주도했다면 포트모던 문화는 영상이 주도하며 이제는 영상이 각종 문화 활동과 교회 활동의 중심 노릇을 하고 있다. 영상문화의 주체는 텔레비전과 영화, MTV, 비디오와 멀티미디어이며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은 영상을 통해 정보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 멀티미디어의 오디오와 텍스트를 영상에 담아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는 가상 현실의 가상공간을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 놓

---

104) Leonard Sweet, *모던시대의 교회는 가라*, 243.

105) 홍영기, *설교의 기술*, 93.

았다. 설교에서 예화의 활용도 멀티미디어의 영향을 받아 효과적으로 받아 들여가고 있는 것이다. 영상 문화가 짧은 역사 속에서도 역사상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이런 사회 제도와 기술적 요인들이 뒷받침해 주는 때문이기도 하다.[106]

포스트모던 시대에 멀디미디어를 활용한 예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자기의 상상력을 활용하여 성경과 회중을 연결시키기 위해 이미지, 은유, 이야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멀티미디어 시대의 회중은 메시지를 인쇄물이나 말로 표현되는 언어뿐만 아니라, 그림을 통해 시각적으로 전달받고 있기에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언어보다도 그림 언어를 통해 회중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인간의 언어가 수식도 없이 사실로만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항상 비유적인 형상을 들어 사용하는데 예화가 회중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기들의 일상적인 패턴에서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는 비유가 효과적이다. 현대인들이 일상생활화 된 영화를 통해 설교의 예화를 영화의 대본처럼 쓰는 것도 멀티미디어의 회중에게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다. 거기에 회상 따위를 위해 장면이 되돌려서 사용하는 플래시백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특별히 우리 문화 속에서 대중매체가 의미를 전달하는 상징을 재정의하고 있는 이 멀티미디어 시대에, 기독교의 성례전은 강력하고 가시적인 표징이며 중언이고 예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확실한 예화는 멀티미디어 시대에서 활자보다는 영상이미지와 음향을 사용하는 것이다. 회중들이 시각과 직관과 감성을 주로 사용하는데, 설교도 이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따라야 의사소통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비록 이러한 것들이 전통적인 설교를 대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회중의 감성에 감동을 주는 스토리 전개로, 믿음이 삶에 성육화된 스토리를 현실감 있게 전함으로 TV나 영상매체에 길들여져 있는 문자 이후의 회중, 즉 멀티미디어 시대의 회중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07]

---

106)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139.

107)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453-459

3. 상상력과 이야기식 예화 활용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설교자에게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영상에 길든 회중들에게 구두로 전하는 설교에 어떻게 흥미를 가지게 하는가이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구두 중심의 설교가 영상 중심의 회중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이것이 설교자들의 큰 과제이기도 하다.

영상세대들이 사는 시대의 설교의 근간은 상상력과 이야기인데 아직도 설교의 전달을 말라붙게 만드는 것이 있다. 종교사회학자 로버트 벨라(Robert Neelly Bellah)는 미국 개신교 내에서 상상력이 말라 붙게 된 원인으로 미국 사회가 과학과 이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므로 서구의 시와 종교 세계에서 오래도록 자양분을 공급받던 비젼이 고갈되었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의 특징인 기술적, 실용적, 금전적 이익이 생길 만한 것들에만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개념과 이미지의 양편을 모두 보려는 시각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미지라는 내적 시각을 잃으면서 회중들은 뉴톤적 세계관의 단순성의 희생자들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다.[108]

현재의 회중들이 사는 세상은 이런 모던 시대의 이성적인 문화에 반발하여 발생한 감각적인 문화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이다. 문자 이후의 시대(Post-literature age), 즉 상상력과 이야기가 자연스러워진 읽는 문화가 아닌 보는 문화가 주류가 된 이미지의 시대가 되었다. 시각적 이미지 효과가 탁월한 매스미디어는 이런 경향을 강하게 반영하고 당연히 회중들은 문화의 흐름에 따라 인쇄된 지면을 통해 정보를 얻기보다는 스크린을 통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 이러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예화 활용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모던과 포스트모던의 공존하는 세대를 살아가며 전통적인 설교유형에 익숙한 현재의 설교자들이 이야기중심의 설교를 편안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스타일의 설교가 회중들에게 강한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과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다행인 것은 화술이 뛰어난 설교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설교에 이야기와 상상력을 넣으므로 관심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와 상상력 중심의 설교에는 장시간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동료들에게서, 회중에게서 찬반 섞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108) Warren W. Wiersbe, *상상이 담긴 설교*, 94.

아직까지 전통적인 설교유형이 강한 한국 강단에는 어색하겠지만 새로운 설교유형에서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아져 설교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설교자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으로까지 이해하게 되었다. 이야기 형태의 설교는 회중들로 하여금 설교자도 자신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는 생각과 구체적인 이야기 속에 영적 교훈을 받아들이게 된다. 예수의 다양한 이야기들과 비유들이 좋은 모범이 될 것이다.

'은혜의 청지기'(Stewards of Grace)라는 책을 쓴 도날드 코간(Donald Coggan)은 그 책에서 F. W. 딜스톤의 말을 인용하여 설교자를 정의하고 있다.[109] 설교자란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사고와 상상력이라는 연장을 사용하여 이 세상에 내 놓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양식을 창조해 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양식이 회중들의 마음과 상상력을 자극하여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설교자들도 이러한 이미지와 이야기, 상상력을 결합하여, 예수가 비유라고 부르는 구술 아이콘(oral icon)을 만든 것처럼, 공유된 문화적 준거점(영화, 스포츠, 대중문화, 음악, 드라마, 멀티미디어)을 첨가하여 이 시대의 비유라고 불리는 멀티미디어 아이콘(multimedia icon)을 만들어야 한다.[110] 멀티미디어 시대의 예화는 이처럼 멀티미디어와 이야기와 상상력의 산물들인 재료들을 사용하여 회중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

109) Warren W. Wiersbe, *상상이 담긴 설교*, 284.

110) Leonard Sweet, *모던시대의 교회는 가라*, 256.

제 5 장
포스트모던 시대의 새 설교학 유형 속의 예화 핵심 원리들

본 장에서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새 설교학 유형으로서 귀납법적 설교, 서사 설교, 전개식 설교, 4 페이지 설교 유형을 바탕으로 각각의 설교 유형 속에 예화의 핵심원리들이 적용될 수 있는 특징을 살펴보고 설교문를 작성해 보았다.

새로운 설교학 유형은 그 시대의 상황에 적합한 설교의 패러다임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이슈들의 흐름이 설교사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설교 형태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설교자가 자기에게 익숙한 한 가지 설교 형태에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설교 형태의 다양성은 외면한 채, 어느 한 형태를 고집하거나 절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설교가 효과적인가 비효과적인가를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다. 설교가 중요하다면 그것을 담는 그릇도 중요하다. 설교의 형식이나 유형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교의 형식은 단순히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이 아니다. 그것은 전하려는 메시지를 잘 구성하여 회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의 유형을 깊이 연구하여 설교 목적에 맞추어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111]

전통교회의 설교 유형이 고착화되기 전, 초대교회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의 형태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말씀 유형들이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비유, 은유, 시, 역사, 이야기, 위인, 교리 등의 다양한 문학적, 구두적인 표현들이 있었다. 말씀을 듣는 회중들 개개인과 세대, 그리고 문화와 지역적인 특성들이 배려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을 외면하면서 한결 같

---

111) 홍영기, *설교의 기술*, 74.

은 설교 형식을 유지하려 한다면 설교지 스스로 말씀의 다양성을 놓쳐버리는 것이다.[112]

계몽주의 이후로 3 개의 대지를 통해 연역적인 구조로 구성되는 설교 형태가 고착화되었다면 새로운 설교학 유형에 대한 관심은 복음에 대해 가장 잘 보여주는 복음서를 보면서 설교가 논증적이거나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것보다는 서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고 성경에서 다양한 형식의 복음 증거제시를 발견하면서 설교 형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다양성도 추구하게 된 것이다.[113]

전통적으로 설교의 내용이 설교에서 주된 관심으로 신학이 바탕이 되어 일방적이고 지시적 전달과 선포적인 설교의 독백화가 주를 이루었다면, 1950 년 이래 설교의 위기를 느낀 설교학의 새로운 화두는 설교형식과 커뮤니케이션의 부각이라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외부적 요인인 커뮤니케이션의 부각은 설교 소통의 심각한 상태를 깨닫고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인 인간 자율성의 확대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이런 변화가 기대하는 목표는 죽어가는 설교를 제대로 살려보자는 것이다.[114]

우리보다 포스트모던 사회를 먼저 대하는 북미의 교회들은 설교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설교 패러다임과 들려지는 설교가 되게 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주된 관심은 회중들에게 어떻게 하면 들려지는 설교이게 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설교의 형태와 구성, 그리고 설교의 언어와 보다 효과적인 매체들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전통적인 설교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심에서 시작된 움직임들은 다음과 같다. 귀납적 형태의 설교, 설교의 이야기성 회복, 복음의 경험, 시적 언어의 회복, 청중의 역할에 대한 재해석 등이다.[115] 이러한 요소들은 새로운 설교학 유형인 귀납적 설교, 서사 설교, 그리고 전개식 설교, 4 페이지 설교, 고백적 설교, 일인칭 설교유형들 속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이다. 복음은 폭넓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복음을 충실하게 증언하고자 하는 설교자

---

112)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151.

113)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154.

114) 정인교, *논리전개에 따른 열 여섯 가지 설교의 패턴*, 3.

115)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145-158.

라면 설교의 형식을 보다 풍부하고 다양성 있게 하여 복음의 풍성함을 전해야 할 것이다.[116]

예화 형식도 설교 형식의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교의 형식과 예화의 사용이 설교의 내용, 즉 성경 말씀에 밀착되면 될수록 오늘의 회중에게는 성경 말씀을 더욱 잘 듣고 느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설교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에 따라 그 형식이 달라진 유형의 설교에 예화로써도 더욱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분명하게 회중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제 1 절 귀납법적 설교

귀납법적 설교는 설교의 서론에 다 공개하므로 긴장감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연역적 전달의 3 대지 설교와는 달리, 주제를 설교 서두에 모두 공개하지 않고 구체적 사건을 예로 들어가면서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회중들의 적극적인 설교 참여와 체험을 강조하여 회중들을 설교 속으로 빨아들이는 새 설교학의 설교기법이다. 전통교회의 연역적인 설교가 회중은 듣고 설교가 홀로 여행하는 흐름이라면, 귀납법은 회중과 함께 설교를 만들어 가는 방식이다. 설교자 홀로 여행하는 설교의 여정에 회중들이 참여하므로 새록 새록 쌓여가는 기쁨과 감동을 함께 체험하게 될 것이다. 전통적인 설교의 연역적인 설교 방식과는 다르게 예화나 스토리를 서론부분에 한꺼번에 쏟아놓치 않고 본문과의 시소게임을 즐겨가면서 설교 상황에 맞게, 회중들의 형편에 맞게 하나씩 살짝 살짝 공개함으로써 회중을 설교의 세계 속으로 함께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117]

1971 년 당시의 설교가 한 명제에 초점을 맞춘 후 세 가지 요점으로 전개해 나가는 연역적 설교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프레드 크래독이 발견한 것은 사람들이 연역적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반적 진리를 가지고 설교하는 연역적 설교방식에서 설교를 듣는 회중이 자신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어떤 특별한 적용이나 경험으로 옮겨가는 방식을 발견

---

116)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125.

117) 신성욱,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의 삼중주*, 275.

하고 그것을 '귀납법적 설교'라고 불렀다. 즉 반대로 하는 설교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생각의 흐름이 회중들의 귀에 익숙한 어떤 특별한 경험들 중에서 일반적인 진리나 결론으로 흘러간다고 보고 설교자 자신이 의도한 결론에 도달하는지 보려고 시작한 그 사고의 여정을 '꺼꾸로 추적'하도록 시도한다는 것이다.[118]

1. 시대의 요청에 의한 예화 활용

아주 오랫동안 설교의 특징으로 굳어져버린 흐릿하고 냉랭하고 생명 없는 전달 양태의 연역적인 설교의 무력함에 대해 18 세기 영적 부흥기에 능력 있는 설교를 전하던 설교자들은 생생한 믿음으로 믿음의 말씀을 선포했으며, 활기찬 생명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였다. 시대의 요청은 귀납법적 전달을 요구하고 있는데, 설교자가 귀납법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은 연역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크레독에 의하면 설교자는 본문에서 석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탐구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모험의 과정을 갖는 다는 것이다. 본문의 중심 사상이나 또는 명제를 발견하는 것은 본문을 묵상하고, 단어와 문법을 연구하며, 역사, 문학, 사회학적인 비평을 통해 본문을 주석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험의 단계를 거친 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설교준비는 이렇게 귀납법적인 방법으로 하고, 정작 설교를 전달하기 위한 원고를 작성하면서는 보다 익숙한 연역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석의 단계에서 발견하였던 감격이 설교를 디자인하고 써 내려가는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본문 석의의 귀납법적 감격이 설교의 연역법적 훈계에 의해 대치해 버리고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크레독의 표현에 의하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디어 찾았다."를 외쳤던 기쁨과 감격이 막상 설교단에 올라 "오늘 아침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에 관한 것입니다."라는 말과 같은 생명도 없고 감격도 없는 소리로 뒤바뀌어 회중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설교자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에 "아하!"라고 외쳤던 것을 회중이 일상생활에서 발견하고, 인생을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귀납법적으로 설교해야

---

118) Fred B. Craddock, *As One without Authority*, 54.

한다는 것이다. 회중은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 훨씬 효과적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크레독의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설교학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확장되어 나가면서 설교학에 즉각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설교학 이론과 현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다.[119]

예전의 설교자들처럼 "이건 원래 그래요"라는 말로 얼버무릴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이다. 회중들의 상황보다 설교자가 앞서나가야 훨씬 더 타당한 근거로,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중들은 이제, '왜' 그런지를 알고 싶어 하고, 설교자는 '왜'에 대한 개괄적인 답을 제공함으로써 회중이 보다 더 깊은 내용을 제공하고, 회중들이 더 깊은 내용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들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회중들의 정보 능력은 엄청나서, 과거처럼 얄팍한 지식과 설명으로 납득시킬 수 있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 되었다.[120]

시대의 요청에 의한 예화 사용은 회중들의 정보의 능력이 엄청나지면서 전통적인 설교 방식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설교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회중들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찾으려는 노력 속에 회중들의 지식의 정보 속에 상상력을 가지고 설교를 듣도록 요청하게 된 것이다. 듣기만 하던 설교에서 상상력이라는 예화의 사용으로 회중들은 "아하"라고 외치면서 살아있는 설교가 될 것이다.

2. 새로운 돌파구로서의 예화

빈티지 믿음교회의 댄 킴볼(Dan Kimball)은 설교자들이 자신의 교단을 존중하고 사랑해서, 교단과 그 교단이 추구하는 특정예배 형식과 설교 형식에 갇혀 있지는 말라고 전해주고 있다. 교회 경험과 자신의 소우주에서 벗어나 사고하려고 노력할 때, 설교자는 진정으로 변화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또 다른 예배, 교회, 설교에 대한 사고방식과 다른 방식에도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다.[121]

---

119) 주승중, *설교의 원리와 실제*, 465-466.

120) Michael Duduit, *능력 있는 설교 이렇게 한다*, 213.

121) Michael Duduit, *능력 있는 설교 이렇게 한다*, 310.

칩 히스(Chip Heese)는 가끔씩 고정 관념을 깨는 시도가 필요한 것은 패턴에 기가 막힐 정도로 잘 적응하는 회중들이 기존에 접해 오던 패턴이 한 순간에 깨어져야, 충격을 받거나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설교의 '패턴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일관된 패턴에 기가 막힐 정도로 잘 적응하는 존재다. 그래서 기존에 늘 접해 오던 패턴이 한 순간 깨질 때 사람은 충격을 받거나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때문에 가끔씩 고정관념을 깨는 시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122]

설교학 이론에 새로운 돌파구로 귀납적 설교 전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123] 첫째로, 그동안 설교가 연역적인 움직임으로 일반적인 진리에서 시작해 특별한 적용이나 경험으로 이동했다면 새로운 설교학 이론은 그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귀납적인 전개는 청중이 삶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회중의 몰입(involvement)과 참여(participayion)를 유도하게 되며, 회중은 삶의 경험을 나누게 되면 고개를 들게 되어 있다.

둘째로 연역적 전개 형태는 결론이 제시되면서 설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의 특성이 배제되고, 결론이 먼저 제시되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루함을 야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대 귀납법은 회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들이 함께 참여하여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회중이 설교자와 함께 설교의 움직임을 따라 설교학적인 여행을 했다면, 거기서 찾게 된 것은 진한 감동으로 남을 것이며 확실한 그들 자신의 결론이 될 것이다. 이처럼 귀납적인 설교의 가장 중심적인 이미지는 설교자와 회중이 함께 말씀을 찾아가는 여행(homiletical journey)으로 설명될 수 있다. 설교자는 이런 과정에서 산파(midwife)와 같은 역할을 하며, 귀납적으로 움직이는 설교는 권고적이기보다는 설명적(descriptive)이며, 명령적이기보다는 확인해 나가는(affirmative)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셋째로 연역적 설교의 전개방식은 덩어리로 제시하는 공간적인 틀로 인해 고정되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귀납적 설교의 전개방식은 긴

---

122) 신성욱,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의 삼중주*, 265.

123)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307-309

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발전되기 때문에 설교 한 편이 통일성(unity)과 움직임(movement)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그러나 귀납적 설교는 이야기와 경험 혹은 성경의 이야기 등이 함께 엮어 지면서 이야기와 같이 움직임을 가지고 진행하는 시작부터 결론, 특히 '아하 그렇구나!' 탄성이 터져 나오는 지점을 향하여 집약적으로 움직여 나간다. 간다. 그러므로 귀납적 설교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여행(trip)'이라 할 수 있다. 단일 개념은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하고 힘 있게 하며, 효과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움직임을 통해 전개되어 갈수록 짜임새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설교의 성패가 갈리게 된다. 또 설교 내용의 앞 뒤가 통일성 있게 잘 조직되는 것이 설교의 진행과 움직임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렇게 귀납적 설교는 설교의 통일성을 갖고 설교의 한 목표를 지향하게 되며, 설교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로 집중되게 하는 효과를 갖게 한다.

3. 회중이 결론 내리도록 하는 설교형태에서의 예화

웨렌 목사는 피상적인 설교란 삶에 대한 적용 없이 성경의 배경지식만 늘어 놓고 교리적용이나 삶의 적용이 없는 해석뿐인 설교라는 것이다. 새들백 커뮤니티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에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의 삶에 적용시킨 설교였다는 것이다. 설교에서 그들의 인생, 하나님, 사탄미래와 과거, 사명,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변화시켰다는 것이다.[124]

전통적인 설교에서 아주 취약한 부분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청중들 앞에 겸손한 자세로 그들의 의지를 촉구하는 일을 머뭇거린다는 것이다. 성경의 해석에 능통한 설교자는 많지만, 강단에 올라가 청중의 생각을 바꾸는 위해,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전하는 일을 머뭇거린다는 점이다. 모든 메시지는 결국 한 문장으로 귀결하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라는 문장으로 '여러분의 예전 생각을 이러이러하게 바꾸시겠습니까?'라고 촉구하여 회중들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124) Michael Duduit, *능력 있는 설교 이렇게 한다*, 45.

귀납적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고 한다.[125] 첫째로 피상적인 경험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을 포착하여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하며, 둘째로 설교를 회중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하도록 '구수한 옛날 이야기'나 '듣기 좋은 유쾌한 이야기' 로 만들어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야 한다. 셋째로는 설교자는 자신이 투수도 하고 포수도 해서는 안되고, 회중들이 설교를 마무리하게 하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설교의 결론을 청중에게 맡기게 되면 성경 본문의 절대 진리를 인식함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 시각과 비판은 새 설교학자들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설교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말씀의 권위에 기초하여 회중에게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 주게 하면, 회중은 본문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에 가장 적실한 적용을 담대하게 적용하여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126]

4. 귀납법적 설교 사례

가. 프래드 크래독의 설교 준비 과정

크래독은 설교 준비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4 가지로 말하고 있다.[127] 첫째로, 설교의 착상으로 이것은 다소 모호한내용이기는 하지만 설교 착상을 위해서는 씨앗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성경 본문에서 나올 수도 있고 회중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나올 수도 있다. 어디에서 설교의 아이디어가 나오느냐 하는 본래적인 출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성경본문과 회중은 둘 다 서로에게 반응하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설교의 아이디어와 놀기로 여기서 모든 재능을 다 동원하라는 것이다. 착상된 설교의 그 아이디어가 생각, 느낌, 기억, 이전의 아이디어 등등 모든 것을 촉발시킬 수 있도

---

125) Fred B. Craddock, *As One without Authority*, 63-65.

126) 신성욱,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의 삼중주*, 284.

127) Fred B. Craddock, *권위 없는 자처럼 (As One without Authority)*, 김운용 역 (서울: 예배와 아카데미, 2004), 262-266.

록 하라. 그것과 함께 뒹굴면서 놀아보라.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간단히 적어 나가라. 그러나 일단 설교의 순서나 연속성에 대해서는 이 단계에서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초적인 이해는 마음과 손이 일치해야 할 뿐 아니라 손이 행하는 모든 일은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고 가르쳐 준다. 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생각하고 느끼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행하라. 그 순서를 바꾸면 위선자가 된다. 우리는 그렇게 충고를 들어왔고, 또한 그렇게 충고하고 있다. 진정으로 그것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다.

셋째로, 명확성에 도달하기로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바울이 정말로 말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기독교적 동기에서 나오지 않는 행위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서 설 교자는 본문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도구와 기술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설교자는 본문과 함께 시작한다. 회중도 본문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시작과 함께 설교자는 위에서 했던 것처럼 본문에 대한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는 이제 목사이자 교사와 설교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정직하면서도 정교한 주석적 작업을 해야 한다.

넷째로, 나눔의 방법으로 위에서 설명한 과정은 생각을 잉태하기, 그것과 유의하기, 그것과 씨름하기,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등과 같은 정상적인 과정과 배합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설교준비를 위해 활용된 그러한 과정을 강단에서 설교를 행할 때에도 그것을 반복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것을 반복해서 읽고, 개인적 준비의 방법과 공적인 선포의 방법이 움직임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동일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라. 설교자가 한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린 뒤에, 그 결론을 공포하고, 간곡히 타이르고, 예증하고, 반복하는 것은 자주 설교에 관한 비극적인 사실이 되고 있다. 회중은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그 결론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나. 연구자의 창작 설교

- 함께 하심의 축복
- 사 43: 1-4
- 예화의 핵심 원리: 애완용 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축복을 새롭게 한다.

그 해 가을을 지나 겨울의 길목을 돌어가려고 하는 11 월은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임지를 정하여 가는 날이었는데 어찌나 추운지 함께 했던 실내용 식물들이 얼어서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가꾸고 아끼고 돌보며 기쁨을 주던 식물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떨어진다는 것에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살아날 수 있을까 해서 가지고 와서 따뜻한 방안에 놓고 물도 주며 정상으로 돌보아 주며 살기를 바랬지만 끝내는 내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골 동네 중앙에 덩그런히 교회와 사택만이 홀로 있는 곳으로 와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과의 만남과 수많은 예배를 드리며 바쁘게 살아오다가, 평일날은 한 사람도 구경하기 힘든 시골 동내의 담임목사로 와서 목회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친구가 항상 내 어깨를 감싸 안아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사시는 권사님이 작고 날렵하고 윤이 나는 작은 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동안 애완동물들과 함께 해보지 않은 저희 부부는 무척이나 난처해 했지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은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변도 가리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짖어대는 작은 개로 인해 온 집 안이 시끄럽고 큰소리가 자꾸 났습니다. 엄마의 높고 화난 외침이 있을 때 마다 아들들은 긴장을 하고 작은 개를 엄마에게서 보호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몇 일을 지나다 보니 작은 개는 우리와 함께 하는 식구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인이 찾으러 올까 봐 걱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새벽기도나 수요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구역예배, 주일날 예배 오실 때마다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가서 물어봅니다. "권사님, 주인이 찾으러 왔어요?" 아이들은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사님이 갖다주시고 잘 지내는 것을 보면서 흐뭇하신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응, 찾으러 안 왔어. 길가에 있는 것을 보니 버리고 간 모양이야!"라고 대답하십니다. 몇 번 불안해 하는 심정으로 물어보더니 이제는 안심이 됐는지 그 다음부터는 물어보지도, 불안해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개에게도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작고 날렵한 개의이름은 '검둥이'였습니다. 애완 동물이라고는 전혀 함께 해보지 못한 아이들과 부모가 좀 더 근사한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가족에게는 최선의 이름이었습니다. 검둥이는 가족과 떨어질 수 없는 함께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검둥이는 유난히 첫째 아들을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와서 방에 대변을 보고 엄마한테 혼나고 있을 때 큰애가 치워주고 안아준 것이 무척이나 고마웠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큰 애를 조금이라도 혼내려 하면 목숨 걸고 지켜댑니다. 그리고 혼내지 않으면 조용히 큰애의 옆으로 가서 앉아있습니다. 큰애가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면 정신을 못 차리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높은 톤으로 자기의 기쁜 심정을 표현합니다. "형아! 학교 갔다 왔어? 나랑 함께 놀아줘, 놀아줘!"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교회 앞에 냇가가 흘러가는데 수영하러 가면 자기가 앞장서서 갔다가 돌아옵니다. 잘 때에는 큰애의 발치는 검둥이의 차지가 됩니다. 한번은 온 가족이긴 외출이 있어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좀 늦게 들어오면 난리가 납니다. 버림 받아 혼자 있는 다는 것이 무척이나 트라우마로 자리를 잡고 있나 봅니다. 온 식구들이 돌아와서 함께 할 때 검둥이는 얼마나 신나고 좋아하는지 말로 할 수 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큰 애의 이름을 따라 '모세의 개'라고 더 많이 불리게 됐습니다. 자기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자기의 편이 되어준 큰애하고 더 많이 함께하고 싶었나 봅니다. '검둥이'는 큰 애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 같은 충성심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사 43:2).

당시의 교회 상황이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검둥이가 큰 애에게 하는 모습은 많은 생각과 신앙적인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나는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 나는 과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며 기뻐하는가?'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을 위해 살수 있을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둥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자 많은 사람이 함께 위로도 해주고 걱정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분들은 제명 처리하겠다는 말까지도 무자비하게 서슴없이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어려워졌을 때 누가 위험과 희생을 무릎 쓰고 참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알아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몇 십 년을 함께 했던 분조차도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하! 사람들이 이렇구나. 아무리 착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죄인이구나,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느닷없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통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교회가 있는 조용한 시골동네의 분교초등학교에서 산속 깊이 작은 길을 따라 마라톤대회가 열렸습니다. 요상 한국에서는 지역화, 친환경적 행사로 이런 행사들이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남편을 따라 아내가 함께 왔는데, 초등학교 근처에 교회가 보이니 교회를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리운 저희 부부에게 많은 웃음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대접할 것이 없어 커피와 과자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우체국 소환권으로 5만원을 보내왔습니다. 아무 면식도 없고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그날 한 시간 정도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사 43:4).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분에게 보배롭고 존귀롭고 사랑스러운 자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만큼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고, 내 생명과 맞바꾸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마 검둥이도 큰 애를 위해서는 그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을 '모세의 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함께 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 압니다.

>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1-2).

하나님은 더 이상 시골교회와 제가 함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당시의 상황 시편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차마 누군가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새벽기도 3 시간, 저녁기도 4 시간을 하루 하루 드리며 몇 달을 지나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견디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떠나지 안겠다는 일사각오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분이 "이 목사! 미국 유학 갈 돈 있어?"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비웃듯이 말했지만 저는 지금 미국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나의 삶에서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은 미국에 와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미국에 오면서 '검둥이', '모세의 개'는 헤어졌지만 늘 마음에 남아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극한 어려움 가운데 홀로 있게 놓아두시지 않고 함께 도와주셨던 주님의 도우심의 기

억이 지금도 생생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이 축복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사 43:5-7).

제 2 절 서사 설교

이야기체 설교는 70 년대부터 신학, 성서학, 상담학, 기독교 교육학에서 이야기 신학, 문학적 비평 이야기체 상담, 이야기체 교육 등으로, 여러 분야의 활발한 연구와 발달을 배경으로 등장한다.[128)]

토마스 롱(Thomas Long)교수는 미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이야기체 설교로 활발한 연구와 발달을 통하여 미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이야기체 설교가 활발하게 대두된 적이 세 번 있었다고 말한다. 교도들의 율법주의적이고 지식 위주의 칼빈주의 사상으로 인해 신도들이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었던 영국의 식민지 시대, 남북전쟁 이후의 상처와 허탈감을 맛보며 정서적으로 고갈되어있었던 남북전쟁 이후에, 그리고 70 년대 이후 과학의 첨단문명은 발달되었지만, 사람들은 더욱 외로움을 느끼며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었던 70 년대 중반기 이후 시대로, 이야기체 설교가 대두되었을 때마다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메말라 있었던 시기라고 주장한다. 그 때마다 사람들의 감성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야기체 설교가 다시 대두되곤 했다는 것이다.[129)]

---

128) 계지영, *현대 설교학 개론*, 127.

129) 계지영, *현대 설교학 개론*, 128.

이러한 이야기 역사를 중심으로 1980 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야기체 설교의 패러다임은 북미의 설교학계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고, 대중적인 흐름으로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설교의 형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모든 설교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언제나 이야기에 있었다. 설교가 "이야기를 말하는 것"(story-telling), 혹은 "이야기 나눔(shared story)"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이야기를 통한 설교의 형식이 어느 한가지라기보다는 커다란 우산과 같이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형태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130]

설교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설교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마이클 윌리암스(Michael Williams)를 중심으로 "storytelling"을 이야기체 설교로 생각하는 사람들로서, 실제로 하나의 이야기, 혹은 몇 개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설교를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면, 설교 안에 많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주장과, 또 다른 관점은 유진 라우리(Eugene Lowry)를 중심으로 설교를 줄거리로 엮어 전개시키는 형태로, "story"보다는 "narrativ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것을 이야기체 설교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처럼 이야기체 설교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류가 있지만, 이것들은 크게 둘로 나뉘어 이야기와 같은 형태, 혹은 이야기의 형식을 따라서 설교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는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131]

1. 설화체 설교에서의 예화

그레디 데이비스(Grady Davis)는 1958 년도에 출판된 그의 명저 *설교의 디자인*에서 설교자들이 복음서의 대부분이 사람과 장소, 사건, 그리고 대화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복음서는 일반적인 아이디어들의 강해(verbal exposition)가 아님에도 설교자들은 전통적인 설교 형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설교자들의 설교의 9/10 가 강해와 논증인 데 비해, 복음서에서는 강해와 논증이 1/10 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복음서의 아이디어들은 주로 이야기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132]

---

130) 김운용,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설교*, 269-270.

131) 계지영, *현대 설교학 개론*, 127.

132) 계지영, *현대 설교학 개론*, 126.

찰스 캠벨(Charles Campbell)은 이야기체 설교의 원조로, 1958 년에 설교자들이 복음 그 자체가 대부분 사람들과 장소 그리고 사건과 대화로 이루어진 단순한 이야기라는 것을 잊고 있다고 경각을 하고 있는 그레디 데이비스(Grady Davis)를 이야기체 설교의 원조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과거 40 여 년 동안 프레드 크레독(Fred Craddock), 에드먼드 스테이믈(Edmund Steimle)그리고 유진 로우리(Eugene Lowry)등을 포함한 설교학자들이 신앙을 형성시키고 함양시키는 데 있어 데이비스가 관찰한 이야기의 위력을 인정하는 스타일인 소위 '이야기체 설교'에 심취해 새로운 설교학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133]

가. 이야기에 관심과 흥미를 더하는 예화

TV 의 연속극, 영화, 연극, 시사뉴스 등으로 가득 찬 포스트모던 시대는 이야기에 젖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시대에 사는 회중들은 TV 드라마와 비디오를 보면서 살기 때문에 설교도 논증적이고 교훈적인 설교보다는 이야기체 설교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134] 라우리가 설교의 목적은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말씀 속에서 체험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야기체 설교 형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회중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설교 방법이 될 것이다.[135]

로널드 알렌은 이와 같은 이야기체 설교를 사용하는 로우리의 방법의 장점은 그것이 "공동체 내에 자리잡은 불균형을 교회가 명확히 찾아내고 분석하도록 고무시킨다는 점이다"[125]라고 언급하고 있다. 로우리의 모델은 회중이나 본문 속에서 야기되는 문제 영역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회피하고 이러한 질문들에 분명히 답해주지 않으면서 그런 문제들을 알려 주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 위배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

133) Marc Elliot, *당신의 설교는 창조적입니까 (Creative Styles of Preaching)*, 성종현 역 (서울: 그루터기하우스, 2001), 12.

134) 계지영, *현대 설교학 개론*, 129.

135) Eugene L. Lowry, *이야기식 설교 구성 (The Homiletical Plot)*, 이연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66.

125) Ronald Allen, *Patterns of Preaching* (St. Louis, MI: Chalice, 1998), 94.

한국교회는 이야기에 대한 다소의 오해와 혼란이 있어서 예화와 이야기를 통한 설교를 구분하지 못함으로 이야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 왔다. 한국교회 강단이 본문성(textuality)과 구두성(orality)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있었다. 부흥회 같은 집회에서는 더더욱 심하여 본문은 단지 성경봉독한 것으로 끝나고, 주제 중심의 설교가 주종을 이루면서 다양한 예화와 체험들로 가득 채워진 설교가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주일 공동 예배의 설교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재미있는 이러 저런 이야기나 예화, 자신의 경험담을 나열하는 것이 이야기 설교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야기체 설교가 예화 중심의 설교와는 전적으로 다른 이유는 이야기 중심의 설교는 논리성이나 교훈성 등을 탈피하여 설교에 있어서 이야기의 중요한 특설들을 되살리자는 설교이기 때문이다.[136]

시드니 그라이다누스(Sidney Greidanus)가 이야기식 설교의 중요성이 1970 년경에 시작되었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신학 유형의 설교 형식 중의 하나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형식의 전달은 매스미디어나 영상 매체에 빠져 있는 우리 세대에게 대단히 중요한 기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활기를 채워 넣기 때문이다. 역동성이 결여된 설교에서 발견되는 것은 우리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전시품처럼 흥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요즘의 설교가 설교 자체에 역동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이러한 설교에 변화를 주고 사건의 진전을 통해 호기심을 자아낸다. 설화는 회중들의 느슨한 마음을 바짝 조여줌으로써 긴장감이 일어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137]

나. 구성(Plot) 되는 형식 속의 예화

이야기는 '플랫'(plot)을 가진다. 플랫은 이야기가 담도 있는 사건의 전개와 짜임새이며, 얽힘새이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점차 밝혀지기 시작하는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와 관련성, 그 인과 관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이야기는 플랫을 가진다. 그래서 혹자는 플랫은

---

136) 김운용.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설교*, 282-283.

137) Calvin Miller, *설교*, 147-148.

이야기의 몸체(body)와 같다고 했다.

이야기는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으며, 끝이 있는 흐름 속에서 전개되어 간다. 이 흐름 혹은 움직임을 지배하는 것이 플랫이다. 여기서 플랫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긴장 상태, 혹은 문제 상황에서 그것의 해결(resolution)로 향해 움직인다. 유진 라우리는 플랫을 정의하기를 불평형 상태(disequilibrium)에서 해결 상황(resolution)으로 움직여 가는 이야기의 지속적인 긴장감(suspense)이라고 했다.[138]

설교를 잘 전달하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일 수 있는 네 가지 형식이 있다. 첫 번째 형식은 실례인데, 이것은 특성상 이야기체에 속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는 예화는 하나의 요점을 보다 철저하게 예증하기 위해 더욱 자세하게 확장된 하나의 보기이다. 세 번째는 일화인데, 이것은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고 기억을 돕기 위해 하나의 개념적인 요점을 잘 알려진 이야기와 결합시킨 것으로 유머러스하고 짤막한 하나의 이야기이다. 넷째, 설화는 내용이 더 길고 관계가 서로 깊이 얽히는 이야기이다. 설화는 중요한 요점을 분명히 해 줄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길게 하므로 청중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동안에 설교의 논리를 보강시킬수 있는 여지도 있다.

청중을 사로잡아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이야기가 갖는 매력적인 특성이다. 하지만 이 원리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이야기가 청중의 관심을 끌고 20 개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더 많은 긴장감을 줄 것이라는 사실이 항상 옳는 것은 아니다. 개개의 이야기는 주목을 끌 수 있지만, 이야기 위에 이야기를 끊임없이 쌓아 올리는 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흘러가면 더 이상 회중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면 회중은 끈적끈적하고 의미 없는 이야기의 늪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다. 비결은 설교에 들어있는 개개의 예화들을 비슷한 개념, 적절한 인용문, 증명, 통계치 등과 논리적으로 잘 어울리도록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다. 여러 개의 작은 이야기가 각기 어우러져서 이야기의 큰 틀을 형성하게 되면 설교가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유지할 수

---

138) 김운용. *다음세대를 세우는 설교*, 274-275.

있다.[139]

다. 로우리의 설교 유형 속의 예화

이야기는 발단이 있고, 전개가 있으며, 결말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의 시리즈이다. '발단'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냐 하는 상황을 서술하는 것이라면, '전개'는 이 필요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지에 대한 서술이다. '결말'은 전개에서 제시된 행동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발단에서 제시된 필요의 상황을 해결하여 주는 단계이다. 이처럼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만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조직적으로 정리하여 주는 방법이다. 일관성이 없는 사건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의미가 있도록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의 배열이다.[140]

로우리의 모델에는 5 단계가 있다.[141] 1 단계(이런! 평형 뒤집기): 설교자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업은 의문이나 갈등을 유발시키는 문제와 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로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회중들의 관심을 붙잡아 두기 위해 설교자들이 회중을 '가렵게 만드는 것' 또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측하게 하는 것'이라고 부른다.

2 단계 (으악! 모순의 분석): 로우리는 전통적인 설교의 가장 큰 약점은 진단하는 데 있어서 빈약하다는 것이다. 설교에서 이 단계는 첫 부분에서 제기한 쟁점과 긴장 관계를 꼼꼼히 살피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정성껏 살펴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 단계(아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냄): 이 단계는 설교자가 복음에 근거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보통은 '깜짝 놀람"이나 '반전'의 형태로 제시된다.

4 단계 (야, 신난다! 복음을 체험함): 단계 1 과 2 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복음이 도입된다. 4 단계를 준비하면서 대개는 진단부분에서 미처 충분히 탐구하지 못했던, 바로 코 앞에 닥친 문제에 대해 복음이 어떤 해답을 제시해야 할지를 알아내는 데 어려움을 느낀

---

139) Calvin Miller, *설교*, 149.

140) 김운용, *다음세대를 세우는 설교*, 276.

141) Marc Elliot, *당신의 설교는 창조적입니까*, 17-18.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5 단계(그래 맞아! 결과의 예측): 마지막 단계는 축도 후에 발생하는 내용을 전해 주는 것이다. 로우리는 설명을 요하는 핵심 문제는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데, 미래는 현재 복음으로 새로워져 있다라고 말한다.

2. 이야기설교 예화

또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추구 흐름의 한 양상은 본문의 중심 메시지를 한편의 이야기에 담아 설교를 전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를 그대로 소개하기도 하고, 혹은 이러한 경향을 취할 때 오는 한국 교회 현장과의 괴리감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경향도 있다.[142]

라우리가 말하는 이야기체 설교 안에는 한마디의 이야기(story)가 들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설교의 형태가 이야기체(narrative)로 되어 있는 것이다. 라우리는 이야기체 설교란 시간 안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불안정(또는 갈등)에서 시작되어, 불안정과 갈등이 더욱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는(escalation)과정을 통하여, 놀라운 역전(surprising)이 있게 되고, 대단원(denouement)으로 종결되는 것이라고 말한다.[143]

가. 성경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예화

리텔링의 형식을 따라 설교를 구성하는 방식(retelling method)이다. 이것은 본문의 구성이나 설교자의 의도에 따라 스토리를 중심으로 구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반드시 모순점을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해 가는 방식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설교 구성이 좀더 자유스러울 수가 있다. 이것은 설교자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하 포인트'를 향한 치밀한 구성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이때 설교자는 기승전결의 구조를 따르거나 문학적인 기교를 사용하여 문단을 만들어 설교를 전개할 수 있다. 또

---

142) 김운용, *다음세대를 세우는 설교*, 283.

143) 계지영, *현대 설교학 개론*, 127.

한, 성경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개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설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플랏 방식에 비해서 보다 평이한 방식이며, 본문의 구성이나 설교자의 구상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방식이다.[144]

이야기식 설교라는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던 사람은, 최초의 설교학자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어거스틴이다. 이야기식으로 전개되는 설교는 내용을 구성하는 각각의 이야기들이 연관성을 가진 채 한편의 설교에서 조화를 이룰 때, 가장 멋지게 살아날 수 있다. 설교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모아 사용하게 되면 설교의 한 가지 포인트를 더욱 부각시켜서 전달할 수 있다. 설교 내용에 들어 있는 각각의 예화들은 주제와 너무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뒤범벅이 되어서 줄거리를 강하게 이어 나가는 긴장감이 사라지고 만다.[145]

나. 움직이는 특징의 예화

설교에서 이러한 움직이라는 이야기의 특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새로운 시도임이 틀림이 없다. 기본적으로 개념을 설명하고 논증하는 형식의 전통적인 설교가 정지된 화면처럼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면, 이야기의 특성을 따라 움직임을 만들어 가는 설교는 정지된 화면이 아니라 움직임을 통해 발전해 가는 화면을 따라 설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인 내용은 전략적으로 연기되면서 설교는 연결되는 줄거리(sequence)를 통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가다 마지막 부분에서 "아하!"의 탄성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설교 구성을 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라우리는 "결론의 전략적인 연기(strategic delay)"라고 주장한다.[146]

이것은 기본적으로 귀납적인 구성을 통해 움직임을 만들어 간다. 이러한 움직임의 최종적인 목적은 '설교학적인 여행'을 회중과 함께 해 가면서 말씀을 경험(experience)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처럼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드러내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는 중요한 자원이다. 수세기에 걸쳐 이야기는 교회와

---

144) 김운용, *다음세대를 세우는 설교*, 281-282.

145) Calvin Miller, *설교*, 149.

146) Eugene L. Lowry, *The Sermon: Dancing the Edge of Mystery*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7), 24.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어 주는 중요한 자원이다. 수세기에 걸쳐 이야기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성(formation)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proclamation)을 위해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가 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이야기를 통한 설교의 형태는 설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통의 설교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의 장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의 특성을 이해할 때 이야기를 통한 설교의 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147]

다. 설교자 경험에서의 예화

브라이언 채펠(Bryan Chapell)은 설교자는 정보 전달과 함께, 설교가 회중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책임도 있다고 한다. 설교자는 본문을 해석하고 동시에, 회중을 해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설교자는 회중들의 삶과 관련이 있고, 회중들이 설교자와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예화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 "의미 있는 적용은 내가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 일을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는가?"[148] 이러한 질문으로서 설교자의 경험에서의 이야기 예화는 회중들과 동질성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이야기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힘이 있으며, 의미와 삶의 변형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신비한 능력과 같은 요소이다. 이제 설교자들이 그 신비한 능력을 발굴하는 것과 그것을 활용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그동안 기독교 설교는 주로 논증과 해설을 중심을 이루는 설교를 해 왔다. 인간의 사고 작용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은 이미 심리학자들이 밝힌 바이다. 칼 융은 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직접적 사고(directed thinking)와 이미지와 상징을 바탕으로 하는 간접적 사고(indirected thinking)에 의해서 인간 사고가 결정된다는

147)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331-332.

148) Michael Duduit, *능력 있는 설교 이렇게 한다*, 189.

점을 밝힌 바 있다.[149]

이야기 설교는 설교자의 상상력을 중시하고 회중들에게도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의 상상력을 동원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150] 주의할 것은 설교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예화의 활용은 본문의 내용과 다른 상상력의 활용이나 지나치게 과대 묘사하는 상상력을 배제해야 한다. 설교자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본문의 배경에서나, 사건과 인물의 심층적인 분석에서나, 설교자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예화는 상상력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이야기 설교의 효과를 더하고 메시지의 생명력을 더 낫게 할 것이다.

3. 이야기체 설교 사례

가. 이야기식 설교 사례 1

다음은 유진 로우리의 5 단계 이야기 설교 유형에 따른 것이다.[151]

- 유진 로우리
- 누가 더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 20:1-16)

1 단계: 평행을 깨뜨리는 단계 – 설교자는 여기에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모순점을 그대로 제시하면서 평행상태를 깨뜨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본문을 리텔링 하는 형식을 따라 첫 번째 단계를 구성하고 있다. 본문이 담고 있는 모순점은 단계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내 돈은 네 마음대로 쓰는데 당신들이 왜 소란들이요. 당신들 돈을 받았으면 돌아가시오." 노동자들이 더 줄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것은 전혀 문제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분명히 가진 자의 횡포이며, 사람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청중들의 마음속에는 노동자들의 불평이 당연한 처사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게

149)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333.

150)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277.

151)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284-292.

될 것이다.

2 단계: 불일치를 분석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는 1 단계에서 제시된 모순점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모순점의 심화를 위해 설교자는 이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지 않느냐는 청중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꾼들의 입장에 처했다면 어떠했겠느냐를 물으면서 일한 시간이 다른데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일"이라고 규정한다. 똑같은 조건의 사람들이 똑같이 일했는데, 단지 그가 여자라는 이유라든지, 혹은 소수 인종이라는 점 때문에 급료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공평한 차별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불공정한 주인의 편을 드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더 많이 수고한 사람들보다 나중 온 사람들에게 먼저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렇게 한다면 누가 더 일을 잘 하려고 할 것이며, 누가 새벽 같이 일터에 나오려고 하겠는가를 질문한다. 모두가 오직 한 시간만 일하고 임금을 받으려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점의 모순점을 심화시키고 있다.

3 단계: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시하는 단계- 이제 3 단계에 들어서면서 설교자는 문제의 실마리를 제시하며 반전을 시도한다. 이것은 본문에 대한 해석이며, 주제에 대한 해석이며, 앞에서 제기된 모순점의 실마리가 서서히 드러나는 단계이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 이야기에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담겨 있음에 틀림이 없다"는 문장으로 이 단계의 문을 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위해 본문 바로 앞장을 연결하여 해석을 시도한다. 자기의 조건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부자 관원의 잘못은 천국을 자기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철저하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이 강조된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 질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은혜의 언약(covenant)에 의한 것이었음이 강조된다. 하나님 나라는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라 은혜의 언약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부자 관원의 문제점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거나,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일하고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역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그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일하게 하심에 대한

감격이 없이 살아갈 때 생길 수 있는 혼란과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예를 제시하면서 은혜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부름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이 강조된다.

4 단계: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 이제 4 단계에 이르러서는 설교자는 이 설교의 핵심이자, 중심 주제인 말씀을 선명하게 제시하게 된다. 이제 청중들은 모순점이 제시되고 심화되는 과정에서 가졌던 의혹이 함께 풀려지면서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설교자는 하나의 실례가 될 수 있는 스토리를 제시함으로써 이것은 한 가족의 스토리임이 강조된다, "속았다"는 말이 비즈니스거래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이었다면 거룩한 언약에 따라 사람들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일깨워 준다. 이러한 배열을 통해 설교자는 제기 하였던 문제점에 대한 역전이 이루어지고, 이제 청중들로 하여금 "아하 포인트"에 도달하게 한다. 설교자는 여기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보다는 더욱 원천적인 내용인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말해 준다.

5 단계: 결론을 기대하는 단계- 이제 본문을 통해 들려오는 복음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청중들은 결론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설교자는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으로 일꾼들을 들이기 위해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면서 질문으로부터 이 단계를 강조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본향에 청함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부름 받은 존재들은 키 재기를 하고, 자신의 주머니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님이 강조된다. 그리고 설교자는 다시 한번 설교의 제목을 언급함으로써 전체 설교의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생각하게 해준다.

나. 이야기식 설교 사례 2

- 본 문: 창 27:1-4; 28:1-4.
- 제 목: 누가 사랑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1 단계: 평형을 깨뜨리는 단계

야곱이 길을 떠나 계속해서 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곳으

로 싫으나 좋으나 가야 할 곳입니다. 가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쫓겨 다니는 인생, 두려움에 떠는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형 에서입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야곱을 철천지원수처럼 죽이려고 안달이 났을까요? 장난으로 한 일 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너무나 피곤하고 배가 고픈데 맛있는 음식을 동생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별명인 에돔이란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에겐 음식이 간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치사하게 동생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붙입니다. 자기가 대신 형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버지가 자기를 좋아하고 말로 형하라고 한다 한들 진짜 형이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고 빨리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맹세까지 하라고 합니다. 이미 배도 고프고 그렇게 한들 니가 진짜 형이 되겠냐 생각한 에서가 맹세하고 음식을 받습니다.

떡과 팥죽을 먹으면서도 왜 동생이 저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후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것 먹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닌 일이 될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까마득히 잊어지고 있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보이지 않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큰 아들을 불러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한 고기를 먹고 축복해 줄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맛있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사랑하는 큰 아들에게 어떤 축복을 해 줄까 즐거운 고민에 빠져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동생이 아버지까지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활하게 자기의 옷가지 훔쳐다 입고 말입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동생이 받았으니 자신에게도 다시 해달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꾸 떼를 쓰면 그래도 축복을 받을까 싶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동생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에서가 눈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자기 신분의 정체성인 장자의 권리와 권한을 도둑 아닌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동생에게 말입니다. 사람이 기가 막히면 말을 못하고, 황당한 일을 당하면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기 어렵게 됩

니다. 에서가 그런 황당한 사건을 당하고 나니 동생이 세상이 둘 도 없는 원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2 단계: 불일치를 분석하는 단계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인 야곱보다는 에서의 편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에서도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남자다운 성격의 아들이요, 친구들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장자의 권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동생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저 동생이 죽으면 다시 나에게로 장자의 축복이 돌아오지 않을까도 생각 해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은 마치 가인이 아벨이 미워서 하는 행동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동생의 제물은 받으시고 장자인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화가 나는 일입니다. 에서는 아버지까지 화를 냈지만, 가인은 하나님께까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인간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께까지 화를 내는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두말하지 않아도 잘못된 인간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자기에게 가진 재능과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왜 야곱을 더 사랑하셨을까를 희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에서는 자기가 부모님에게 충분히 사랑 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근심스런 존재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을 받으려면 상대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가 장남인 자기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생각은 해 보았어야 합니다. 특히 믿음에 예민한 아버지는 믿음의 족속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가 좋은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믿음이 없는 이방족속에서 예쁘게 보이는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온 것입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자기가 한 일로 인하여 일어날 일들도 생각은 해 보았어야 합니다.

3 단계: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시하는 단계

야곱은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성격대로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남자라면 사냥도 다니고, 술도 마시고, 여자들도 사귀고, 때론 사고도 치고 해야 남자답지 않냐고 했지만, 야곱에게는 그런 것이 관

심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도 어머니를 도와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다운 에서가 볼 때에는 얼마나 남자답지 못한 쪼잔한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저 까짓게 감히 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형 만큼은 받지 못했을지라도 어머니에게는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방여인과 결혼하고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더욱 불행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에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지방에서 군수까지 되시고, 고향에 재산도 있고, 잘생긴 아들과 딸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일이라면 팔을 걷어붙이고 추진해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고3 일때는 교회에 안 보내고 학원에 다니게 하고, 교회에서 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 어떤 핑계를 데서라도 그 자리를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존경하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권사님을 어떻게 대하게 되겠습니까?

에서를 보는 어머니 리브가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록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근심 어린 아들을 위해 어떤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인가 고민하지 않게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속았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식을 보고 있노라면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사랑은 더욱 못나 보이는 자식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이 깊어 질 때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 놓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4 단계: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

야곱이 걱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비록 눈은 보이지 않더라도 만져보시고, 목소리를 들으면 속이는 것이 탈로가 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만 한다는 확신은 그녀를 주저하지 않게 합니다. 진짜로 사랑하니까 좋은 생각들이 순식간에 떠오릅니다. 저주를 받아도 너 대신 내가 받을 테니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에 이어 아버지까지도 속이는 자가 되었지만, 어머니의 사랑 속에 아버지에게서 또 한 번의 축복을 찐하게 받게 됩니다. 에서는 받는 사랑만 알았지 진심으로 주는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주는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았고, 자기도 그런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5 단계: 결론을 기대하는 단계

누가 사랑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될 수 있습니까? 에서와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에서와 같이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리브가의 사랑을 받은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사랑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제 3 절 전개식 설교

은퇴한 데이비 버트릭(David Buttrick)은 300 년 가까이 서구의 설교학계를 지배해 왔던 논리중심의 설교학(rational homiletics)에 대한 비판에서 그의 사상을 전개시키고 있다. '현상학적 전개식 설교'에서 '현상학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설교 방법이라는 의미이며, '전개식'이라는 말은 움직임을 통해 발전되어 가면서 '아하' 포인트에 이르게 하는 특징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포스트모던 시대를 사는 설교자의 임무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동되고 있는 새로운 인간 의식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152]

포스트모던이라는 변화무쌍한 시대에 전통적인 설교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영상이라는 매체에 길든 회중들에게, 어떻게 구두로 전하는 설교에 흥미를 갖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설교자들에게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것이다. 많은 설교자가 '1 차원적인 설교가 영상 중심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하고 고민한다. 그러나

152)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346-347.

이것이 가장 큰 난제라고 할 수 없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더 크고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회중들에게 고대의 본문을 이해시키며,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겪는 문제와 같다고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153]

그러한 점에서 현대 설교학자들은, 이러한 과제를 설교에서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데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인 '움직임(movement)'이라는 것으로 풀어 갈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움직임(movement)'이라는 것은 설교에서 시작이 있고 중반부가 있으며, 종결부를 향해 움직여 가는 설교의 형태를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이야기'를 설교의 중요한 매체로 함께 고려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구조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밴더빌드대학교 신학부의 설교학 교수로 수년 동안 봉직하다가 은퇴한 데이비 버트릭(David Buttrick)이 주창한 설교 방법론인 것이다. 그의 설교 이론이 국내에는 널리 소개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아직 생소한 방법이고, 그의 설교학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난해한 이론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그의 기본적인 주장을 이해하고 그 구조와 형식을 이해한다면, 한국 교회 강단에서 상당한 설득력 있는 설교 방법론 중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154]

1. 활동 사진 형태의 예화

버트릭은 설교의 현상(phenomenon of preaching)에 대해 크나큰 관심과 연구를 통해서 설교가 회중들에게 어떻게 들려지며, 설교의 사건(event)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현이상학적 고찰을 계속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회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설교의 방법론이 형성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설교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하지만, 그는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회중들의 마음의 건반을 두드리며 행해진다는 점에서 현상학적이며, 전개에 중점을 두는 활동사진 형태의 설교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교의 현상에 대해 깊이 관심을 기울인 것은 버트릭의 설교학

153) Michael Duduit, *능력 있는 설교 이렇게 한다*, 193.

154)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291-292.

연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특색으로 평가 받고 있다. 현상학적 특성을 통해 설교가 선포되고 들려지는 과정과 결과는 본질적으로 현상학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155]

버트릭은 회중의 마음이 카메라처럼 작동하게 되는데, 좋은 설교의 형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교의 어떤 장면이 전개될 때마다 그것을 카메라가 저장 카드에 형상으로 만들어 놓듯이, 청중은 장면으로 전개되는 움직임을 통해 그들의 의식 속에 있는 각 장면에 말씀의 상을 담는다. 이런 점에서 설교자는 사진작가처럼 돼야 한다.[156]

전개식 설교 방법은 회중들이 어떻게 듣느냐에 관심을 기울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 움직임들은 4~5 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4~6 개 정도의 "움직임"을 가져야 한다. 하나의 움직임은 회중들이 무엇에 집중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각 움직임들을 4~5 분 정도의 시간이 할애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구성되는 요소로는 '여는 말'(opening statement), '전개'(development), '닫는 말'(closure)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는 말"은 움직임이 가지는 관점(point-of-concern)이 선명히 제시되어서 지금 무엇에 관한 움직임인지의 중심개념을 잡아주어야 한다. '전개' 부분은 가장 중심 부분으로서 명료화나 예증, 혹은 반대 개념을 제시하므로써 움직임의 중심 개념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닫는 말'은 마지막 문장에서 중심 개념에 대한 움직임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면서 다음의 움직임을 준비해 가는 단계이다. 이렇게 '여는 말', '전개', '닫는 말'이 완성되면 이때 회중들의 의식의 카메라는 셔터가 닫히고, 필름은 다음의 움직임을 위해서 준비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설교자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은 설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움직임'(move)을 어떻게 구상하고 설계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다.[157]

다른 관점에서 데이비드 버트릭(David G. Buttrick)은 공동체로서의 회중을 가정해 본다. 회중은 공동의 것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모임으로 개개인을 수집해 놓은 것 이상의 것으로 생각한다. 설교는 공통된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공유된 사건으로서 구상하게 되고, 공통된 의식은 개개인의 의식보다는 더 느리게 작용함으로 서로 서로 개개인들이 이야기하는 담화의

---

155)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324.

156)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348.

157) 김운용, *다음세대를 세우는 설교*, 299.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요구하게 된다. 움직임(move)이라 불리는 일련의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진 플롯(plot)은 이러한 접근에 아주 유용하다. 버트릭은 플롯에 대해 설명하기를 설교의 작은 단편들의 움직임들로 이루어진 다양한 요소들을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선택하고 배열하는 것을 플롯이라 말한다. 이러한 플롯의 하나 하나의 움직임은 보통 3~4 분간 지속되도록 한다. 만약 20 분 정도의 설교라면 도입, 그리고 4~6 개의 음직임들과 결론으로 구성될 것이다. 버트릭은 설교를 구성하는 3 가지 기본적인 플롯을 만들어서 각 설교가 신선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3 가지 기본적인 플롯의 조건은 첫째로 설교가 "즉시성의 방식"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플롯에서 설교자는 성경적 테스트의 진전(movement)을 따르는 움직임들로 구성된, 성경적 텍스트의 세계, 특히 이야기 속으로 사람들이 즉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유의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단순히 되풀이하면 안 된다. 설교자는 회중의 성경적인 세계와 회중이 사는 현대의 세계를 연관 짓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로는, 설교는 묵상의 진전을 따르기 때문에 "묵상적인 방식"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많은 성경 본문, 예를 들어 바울의 서신서들에는 그것 자체가 묵상적인 것이 있기에 플롯이 본문에 대한 묵상 설교자의 묵상의 진전에 따른 것이다. 셋째로는 설교자는 마지막으로 "실천방식"에 있어서 성경 본문이 아니라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플롯은신학적 분석의 단계들을 통해 상황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에 도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설교자는 각 설교를 위한 플롯을 선택하고, 텍스트 또는 상황의 요지와 일치하는 플롯을 위한 움직임들을 전개시킨다.[158]

2. 전개식 방식의 예화

설교란 하나의 개념에서 다른 개념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취하며 이렇게 배열된 언어의 모듈을 따라 구성되는 것을 '움직임'(move)이라고 칭한다. 언어의 묘듈의 결정체인 '움직임'(move)혹은 장면(move)'이라고 칭하는 일련의 구성요소가 플롯(plot)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연속적인 유형으로 배열된 언어의 모듈을 따라 구성되는 설교의 구성 요소인 '움직임' 이

158) Ronald E. Allen, *Patterns of Preaching*, 146-47.

조합되고 형성되어서 설교를 완성하게 된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의미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 말과 저 말이 결합되어 문장이 되고, 이 문장과 저 문장이 결합화되어서 대화로 이루어지듯이, 설교 역시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조합되어 형성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결합의 논리"(associational logic)라는 것이다. 여기에 전략이 필요한 것은 서로 긴밀한 통일성을 가지고 상호 연결되어야 회중들은 자신의 의식을 이해구조로 만들고,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설교에서 전략이라 함은 '움직임'의 장면마다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 신학적 이해와 공통된 회중들의 문화적 견해에 비추어져 이러한 자료들을 디자인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설교자도 '움직임'을 준비하고 신학적 이해, 예견되는 반대 개념, 생생한 경험 등을 고려하여 통일성을 갖고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설교에 임해야 한다.[159]

또한, 버트릭의 설교 방법론을 '전개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회중이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련의 언어의 모듈을 통해 메시지의 결론을 향하여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진행시키기 때문이다. 회중 앞에 장면들이 펼쳐지고, 그것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러한 전개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설교자는 설교의 실제에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설교자는 항상 설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움직임(Move)'에 대해서 정교하게 디자인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설교를 어떻게 구성하느냐(structure)를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160]

O. S. 호킨스(O.S. Hawkins)는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이 합쳐지고 섞이는 이런 이행대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두 개의 다른 생태계가 인접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이행대는 엄청난 가능성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곳이 우리가 설교해야 할 공간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들이 허락한다는 것이다. 설교자와 회중은 이런 모던 시대와 포스트모던 시대가 서로 맞물리고 융화되는 지점에 살고 있으면서,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음을 아직도 1950 년대와 1960 년대식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최

---

159)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326-327.

160)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350-351.

악의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복음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포스트모던 시대와 회중을 향하여 매우 큰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161]

버트릭의 접근은 현대적인 느낌을 가지고 설교자와 회중이 상황들뿐만 아니라 성경적 본문과 상호작용하도록 도울 수 있다. 플롯과 움직임들의 체계가 포스트모던 시대를 사는 회중들의 전달 매체인 텔레비전의 (짧은 부분들을 가진) 빠른 속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회중과 공감할 수 있다. 설교 준비에 무기력한 설교자들을 위해 버트릭은 무엇보다 중요한 세 가지 플롯들로 어떤 종류의 설교가 함께 모여야 효과적인지를 개념화하여 적당한 위치를 갖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버트릭의 모델은 설교자에게 시작하는 자료를 통해 설교에 접근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설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의 상황화(contextualization)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교하는 것에 있어서 버트릭의 접근이 본문과 상황들, 그리고 3~4 분의 움직임들이 신학적 문제를 항상 잘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몇몇 문제들은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윤리적 사고에 의해 지지된 옛 방식의 논리들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162]

3. 언어적인 전환으로서의 예화

언어는 인간영혼에 무한한 봉사를 했으며, 춤추고 노래하며, 괴롭히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며, 규명하기도 하고, 울고, 판단하며, 변화하며,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다. 또한, 언어는 유비, 은유, 수수께끼, 역설, 비유, 시, 전설, 그리고 신화등과 정교하게 손을 잡고 있다.[163]

언어적인 전환으로의 설교가 이루어져야 할 목표는 언어의 모듈을 고려하여, 청중들의 마음의 필름(의식) 속에 말씀이 구체적으로 심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설교자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언어의 코드(모듈)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깊이 숙고해야 한다.

회중의"생생한 경험"을 위해 각 장면 혹은 움직임에서 말씀의 웅장함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언어는 무엇을 드러내는 노출의 언어로, 궁극적인 존재의 언어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설교자는 사람들의 의식 안에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형성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변형

---

161) Michael Duduit, *능력 있는 설교 이렇게 한다*, 2009.

162) Ronald E. Allen, *Patterns of Preaching*, 148.

163) Fred B. Craddock, *As One without Authority*, 79.

시키기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언어를 사용한다. 이런 언어의 사용은 설교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움직임'의 모듈을 형성하며, 이것은 설교의 가장 기본요소가 되게 한다.

때로는 설교의 간접적인 언어인 상징과 메타포, 이미지, 유비 그리고 역설의 언어를 통해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의식의 장과 깊은 관련을 가지게도 한다. 적절한 언어를 통해 말씀이 전달할 때 기억을 환기시키는 언어(evocation)이며, 무엇인가를 끌어내는 언어(invocation)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버트릭은 설교의 언어를 신학적 명확성과 함께 사용되는 "함축적인 언어"(connotative language)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설교의 언어는 "깊은 숙고를 통해 이룩되는 기교"(considered craft)라고 할 수 있다.[164]

이처럼 움직임과 전개를 통해 언어적인 전환으로서의 버트릭의 방법론은 청중들의 의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또 일어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특성을 가진다. 다소 기계적이라는 할 수 있지만 그 원리를 나름대로의 융통성을 찾아 따르면서 설교를 구성해 간다면 한국교회 강단에 상당히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버트릭의 관심은 변화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설교 능력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설교 능력의 회복은 회중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중들이 듣도록 돕는 것이 그의 설교 방법론이 추구하는 중심 내용인 것이다. 이러한 버트릭의 주장은 단순한 설교방법론의 갱신일 뿐만 아니라. 변하는 시대 속에서 설교의 본래적인 힘을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설교(transformative power of preaching)로 행할 수 있을지를 고심하며, 새로운 설교학 유형으로 분명하고도 효과적으로 선포하도록 도우려 애썼다.[165]

---

164)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325-326.

165)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344.

4. 전개식 설교 사례

버트릭의 전개구조는 5 개의 '움직임'으로 설교를 구성하고, 서론과 결론을 전후에 배치한다. 여기에선 '움직임'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도입부인 서술(statement), 전개(development), 이미지화(image), 마무리(closure) 등의 구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 설교는 그 플롯 구성에 있어서 숙고적 방식을 따라 작성된 형식이다.

- 제 목: 정직은 알지만,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
- 성경: 눅 16: 1-12.

서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씩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될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다가 드러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부자인 주인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부정직한 일이 들어나 해고하는 과정 가운데, 부자 주인이 부정직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청지기의 주인은 그를 칭찬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진리의 말씀처럼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이다.

Move 1.(서술)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타나는 사실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중에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세상의 처벌에서, 다른 사람들의 손길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속은 형에게서 야곱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 남편의 아내인 밧세바 여인을 취하고 남편을 죽였던 다윗 왕 등은 어떻습니까?

(이미지화)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성경은 부도덕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 간통 죄인들, 살인자들, 협잡꾼들, 과대 망상증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놀랍게도 그런 이들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대

로 살아가지 않고, 어떡하면 자기가 좋을 때로 행할까 생각하며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이스라엘 임에도 사랑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그래서 우리의 고정된 관념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Move 2 (서술) 반대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기도합니다.

(전개) 스콧펙(Scott Peck)은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다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은 "좋은" 사람에 속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핵무기 개발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나라와 지도자는 나쁜 사람의 범주에 넣어서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분류하면서 자신은 좋은 사람의 명단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분류해 내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의 기준이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한없이 선한데, 어느 부분에서는 한없이 악하다는 것 입니다. 이처럼 혼합된 동기들은 우리의 가치를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나 천국이나 지옥 등도 자기의 경험과 관심사로 포장해 버리고 진리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화) 한국에서는 배의 침몰, 농부의 죽음 등 많은 사건이 아직도 진상을 구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줄 아는가? 어디에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건에서 어떤 사실에 대한 유추는 해 볼 수 있으나 진상을 구명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마무리) 이것이 본문의 성경이 가리켜 주고 있는 확신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경의 내용은 우리를 당황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Move3(서술)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는 분명 나쁜 사람이다. 얼마나 사기를 치고 다녔으면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겠는가? 아주 대범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어쩌면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전개) 그런대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사기꾼의 모습과는 다른 청지기의 주요사항인 영리함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인의 책망에 그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앞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면서 힘도 없고, 노동할 자신도 없음을 탄식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추진합니다. 빚진 자들의 빚을 자신의 제량으로 갚을 수 있도록 깎아주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비빌 언덕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지혜 있다고 칭찬하면서 해고시키는 것을 보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든지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미지화) 홍길동전이라는 것을 보면 홍길동은 아주 기민하고, 명철하고, 재치 있고, 영리합니다. 아마 그렇지 못하다면 도둑질도 못하겠지요. 양반이나 빼앗기는 자들에게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사기 치는데 도가 텄다고 볼 것입니다. 훔치는 것이 나쁘지만, 훔쳐서 쓰는 용도가 선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기도 할 것입니다.

Move 4 (서술) 우리는 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변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유 가운데 나오는 상황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때였기에 도덕성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을 것이라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자신들의 기준이라고 하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도 예외라는 것이 있지만 사람들은 악덕고리 업자처럼 사람들의 빚 진 것을 감해주는 것을 청지기가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실에 있는 빚 진 것을 감해 준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이런 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유가 예상치도 못하게 주인이 사기꾼 청지기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개) 성경에는 두 단어가 짝을 이루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사기꾼이었다","그가 지혜로웠다"는 것이지만, 우리들은 어떤 때에는 한쪽의 면을 망각하거나, 한쪽의 사실을 부각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불완전한 자기가 그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인도 그런 사람처럼 불의한 청지기가 협잡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를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청지기를 두둔하는 것처럼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지혜롭게, 융통성 있게 살라는 것이라면 예수님도 별수 없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적으로 지혜롭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놓는 사랑을 가지시고 달리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보는 관점이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화)요사이 한국에서는 가정집에 침입한 도둑을 막느라고 때렸는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보다는 과도한 폭력이라는 것에 무게를 두어, 방어하던 집 주인을 구속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침입하면 총을 쏘아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판결은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무리)오늘의 비유 가운데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는 우리를 이런 삶의 상황 속에 처하게 될 때, 이쪽 끝과 저쪽 끝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청지기는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으로 용납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본문의 주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Move 5 (서술) 이런 관점에서 잠깐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불의한 청지기를 두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행하던 일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청지기 초기 삶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면서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전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제일 먼저 조정하는 것이 직원들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고되는 직원들은 가족과 살 일이 막막해지고 파업과 어떤 이유로든 실직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딱한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주주들은 이익을 보존하거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이건 환영할 겁니다. 그것이 도덕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고야 말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건들이 역사 속에 고스란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청지기가 손해 입힌 것을 얼마만큼 복구해서 주인에게 돌리는 것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의 아

들들이 자기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는 그런 지혜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를 통해 과거의 도덕성이 깨끗했느냐, 얼마큼 수익성을 올렸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이런 지혜로운 행위를 하지 못했다면 그 불편한 관계는 주인과 빚진 자와의 관계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사실 빚진 자들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지화)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야 할 목적은 얼마나 이익을 남기며 사는 것이냐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웃들은 미디어매체들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이 굶주림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만 하더라도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심심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이 이익을 얼마만큼씩 가지느냐보다, 이 땅에 있는 이웃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하나님에게는 사람들이 재물보다 사람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결론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약간의 혼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유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전에는 악한 세상에서 간사한 사기꾼들에게 박수를 보내다가 이 실체를 알고 경악하던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일인데도 주인은 그렇게 행한 청지기를 향해 칭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칭찬합니까? 청지기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비로소 유심히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청지기가 어려움에 처한 그의 이웃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가진 것을 축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웃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가지고 행하는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제 4 절 4 페이지 설교

4 페이지 설교(The Four Pages of the Sermon)는 1990 년 중반 이후 북미의 유명 설교가 폴 스캇 윌슨(Paul Scot Wilson)의 설교학적 방법론이다. 윌슨은 네 부분, 또는 네 쪽으로 확연히 나누어진 것으로서의 설교 형태를 만들어 '네 쪽짜리 설교'라고 이름 붙인 설교학을 제창했다. 네 페이지라는 구별된 영역들이 있기에 설교의 통일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설교의 통일성을 위한 여섯개의 표지들은 성경에서 나온 하나의 본문(one text), 그 본문에서 나온 하나의 주제문(one theme), 그 주제문에서 나온 하나의 교의(one doctrine), 그 교의나 주제문이 역점을 두는 회중 안에 있는 하나의 필요(one need), 그 주제문과 결합된 하나의 이미지(oneimage), 그리고 하나의 사명(onemission)이다. 윌슨은 설교의 통일성을 위해 이와 같은 6 가지 과제를 쉽게 숙지하기 위해 각 단어의 머리글을 따라 '저 작은 개는 이제 내 것이다(The Tiny Dog Now Is Mine)'라고 말한다.[166]

윌슨은 그의 설교형식의 매개체로서 영화라는 말보다는 페이지라는 말을 사용한다. 영화와 페이지가 갖는 공통적인 특성은 은유(metaphor)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설교도 하나의 주된 이미지를 가져야 하는데 영화는 각본이 있어야 하고, 각본은 지면를 가진다. 그러기에 그는 설교에 있어서 페이지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167] 그러나 윌슨은 설교 작성에 있어서 에세이를 작성하는 방식보다 영화를 만드는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다. 또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페이지보다는 영화라는 매체의 예화 활용이 더 흥미가 있을 것이다.

1. 현대인을 위한 예화

포스트모던인들은 전통시대의 산물인 인쇄된 지면을 읽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보다, 스크린에 보이는 그림을 보고, 소리를 들음으로써 즉각적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직관과 감성, 그리고 이미지와 그림, 이야기 등 보다 많은 채

---

166) Paul Scott Wilson, *네 페이지 설교(The Four Pages of the Sermon)*, 주승중 역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6), 59-60.

167)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189.

널을 통해 정보를 받아 들이고 있다.[168] 윌슨의 네 페이지 설교는 사람들의 감각에, 생각에, 가슴에 통전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영화를 만드는 사고(movie making idea)를 가지고 설교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169] 설교자가 회중들에게 전통적인 설교의 스타일로 단순히 플롯만 말해 주거나, 내러티브에서 하나의 등장 인물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영화를 만드는 사고를 가지고 시각적인 방법으로 설교를 작성할 때 회중들의 오감과 지성과 감성에 호소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영화라는 의미의 설교개념에 페이지라는 개념의 결합은 설교를 위한 좋은 모델이라는 것이다. 현대의 인터넷 웹 페이지들(web pages)은 말과 그림, 정보와 영화 모두를 포함하고 설교가 가지는 임무를 위해 영화를 만들고, 설교에서 별개의 페이지들을 작성해야 하는 본질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이다.[170]

현대인들을 위한 영화와 페이지라는 매체를 네 페이지라는 설교 유형의 예화로써 사용하는 것은 영화의 창의적인 상상력을 이용하고 페이지들은 설교를 형성하고 완성하기 위한 신학적인 필요들을 채워 줄 수 있는 것이다.

2. 4 페이지 설교 구성 요소의 예화

윌슨은 설교를 네 장면의 원고로 생각하자고 제안하면서, 각 장면에는 신학적 · 설교적 과제를 담아내고, 그 '페이지'의 주제는 직접 경험하고 지각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모습으로 그려내자는 것이다. 한 장면 한 장면을 이어서 설교를 구성하는데, 한 장면은 보통 설교 전체의 20~25%정도면 된다. 윌슨은 이 접근법이 본문설교에 적합하다고 말하지만, 교리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나 개인적 · 사회적 상황에 대해 설교할 때도 이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171]

각각의 부분은 구체적인 질문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각 페이지는 설교 구성에서

---

168)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185.

169)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189.

170) Wilson, *네 페이지 설교*, 17-18.

171) Ronald E. Allen, *Patterns of Preaching*, 135.

독특한 역할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연계성을 가지고 있게 만들었다.

윌슨은 이렇게 말한다.

> 연계성을 지닌 네 쪽은 시간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준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창의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부드럽게 방향을 잡아 준다. 일단 우리가 이 네 쪽을 다 알고 나면 설교에서 어디쯤에 최고의 효과를 넣어야 할지를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172]

윌슨은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영화의 제작 과정을 설교에 연관시켜 설교도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설교의 작성 과정을 4 페이지로 연결시키려는 듯 하다. 여기에 각각의 설교가 하나의 두드러진 영상이면서, 각 장면은 그 장면의 신학적 과제를 그려내는 필름 클립이라 하겠다. 설교자는 그 필름에 각 장면의 중심 역할을 담아서 하나의 장면은 실제로 하나의 필름 클립의 역할을 하게 한다. 각 장면이 목표한 바는 분석적인 설명 없이도 하나의 그림으로서 달성되는 것이다.

각 장면의 두드러지는 영상이면서 중심 역할을 네 장면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173]

첫째 장면은 성경 본문이나 제목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장면은 성경의 세계에서 회중의 세계로 무대를 옮겨온다. 셋째 장면은 복음의 주제로 국면을 전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넷째 장면은 다시 현시대로 돌아와 회중으로 하여금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며 그에 응답하도록 도와준다.

4 페이지에서의 각 페이지에 필요한 점검항목을 살펴보고, 그것을 주의하면서 예화의 핵

---

172) Marc Elliot, *신의 설교는 창조적입니까*, 138.

173) Ronald J. Allen, *34 가지 방법으로 설교에 도전하라 (Patterns of Preaching)*, 허정갑 역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4), 135-137.

심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설교의 도입부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서론에서의 예화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도입부에서 효과적인 전략은,
> 첫째, 주제 문장과 반대되는 내용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하라.
> 둘째, 일반적인 주제의 경험을 너무심각하게 시작하지 말라.
> 셋째, 성경 본문과 함께 시작하라.
> 넷째, 때로는 사회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라.
> 다섯째, 뉴스나 현대 문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라.
> 여섯째, 잘 고안된 소설과 같은 이야기로 시작하라.[174]

또한, 도입부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예화를 사용할 시 주의해야 한다.

> 주의해야 할 다섯 가지는,
> 첫째,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질문을 피하고 몰입하는 어떤 것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 둘째,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농담으로 시작하는 것은 연결점이 없어 지는 것이기에 또 다른 도입부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 셋째, "잘못된 긴장감"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긴장감을 얻기 위해 잘못된 방법으로 정보를 알려줌으로 회중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넷째, 도입부에서 주제를 계속해서 좁혀 나감으로 정작 설교의 본문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 다섯째, 이야기 전체나 사건이 일어난 모든 정황을 소개하기보다는 사건이나 행동의 꼭 필요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라는 것이다.[175]

---

174)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197.

175) Wilson, *네 페이지 설교*, 120-121

4 페이지 설교의 도입부에서 효과적인 전략과 주의사항을 기억하면서 영화화된 각 페이지의 점검 사항도 기억하는 것이 예화의 핵심사항을 각 페이지에 적용하는데 유익할 것이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생생한 관점으로 본문을 현대식 표현 방식으로 영화화하기 위한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도입부는 흥미를 주는가?
도입부는 설교의 주제를 말하거나 알려주는가?
첫 번째 페이지는 하나의 성경 본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세 번째 페이지를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아껴두면서 본문을 재구성했는가?
본문 속에 있는 문제를 전개하고 있는가?
문제가 심리학이나 사회적인 것으로 신학적인 문제는 없는가?
이 페이지가 하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명확한가?
새로운 각도에서 본문을 영화화했는가?
이 페이지는 주로 영화인가?
행동하는 사람들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나의 교의가 본문을 영화화하는 것을 알려주도록 되어있는가?
이 페이지로부터 나와서 설교를 위한 지배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는가?[176]

두 번째 페이지에서 세상 속에 있는 문제를 영화화하기 위해 이야기나 일화들이 교회와 예배 상황에 적합한 현시대적이거나 현시대적으로 들리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페이지를 위한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페이지는 우리의 세상 속에 있는 문제를 전개하는가?
이 페이지는 첫 번째 페이지와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페이지는 한 편의 영화인가?
페이지가 진행됨에 따라 신학적 사고를 깊게 하는 느낌이 드는가?

---

176) Wilson, *네 페이지 설교*, 187.

회중 속에 있는 하나의 필요가 드러나는가?
유머를 사용하며 또 그 유머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이야기들은 포괄적인가?
이야기들은 경험의 범위를 반영하는가?
사용된 이야기들의 감정적 또는 영적인 영향을 의식하고 있는가?
설교에서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만 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177]

세 번째 페이지에서 성경 속의 은혜를 영화화하기 위해서 첫 페이지의 다루기 힘든 본문에 흥미를 지속하고 은혜를 발견하도록 본문 이면에 있는 장면을 시각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 번째 페이지에서 점검 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를 사용하면서 본문을 재건하고 있는가?
이 페이지는 하나의 아이디어, 즉 하나의 주제문에 관한 것인가?
주제문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본문 안에 혹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주제문이 회중이 듣기에 중요하고 인식될 만큼 충분히 반복되고 있는가?
본문을 신선한 관점에서 촬영하고 있는가?
은혜가 앞 페이지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의 교의가 본문을 영화화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가?
지배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 페이지에 잘 나타나는가?[178]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의 은혜를 영화화기 위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행동에 관점을 맞추는 것이다.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설교의 결론 부분도 포함될 수 있으므

---

177) Wilson, *네 페이지 설교*, 276.

178) Wilson, *네 페이지 설교*, 358-359.

로 예화를 사용함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설교 구조와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성경으로부터 세상에 은혜를 적용하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은혜와 문제의 균형을 잡는 것,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긴장을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179] 네 번째 페이지의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이 페이지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 교의적인 페이지들을 흥미롭게 해주는 은유적인 장치들이 있는가?
> 회중들이 행동하시는 하나님과 사람을 보는가?
> 청중들의 한 가지 필요가 충족되었는가?
> 두 번째 페이지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야기가 네 번째 페이지 때문에 소망의 빛 가운데에서 보여질 수 있는가?
> 하나님이 원작가라고 주장함에 있어서 모호함이 적절하게 허용되고 있는가?
> 이 페이지에서 임무는 문제로서가 아니라 은혜와 초청으로서 제시되고있는가?
> 회중들이 총체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행동하도록 고무되었는가?
>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점이 있는가?
> 이 페이지는 영화로서의 탁월한 모습이 있는가?
> 주제문이 결론에 나타나고 있는가?
> 지배적인 이미지가 결론에 나타나고 있는가?
>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면 결론이 주제문과 지배적인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가?[180]

윌슨은 네 페이지들을 순서대로 시각화하는 일은 설교자들로 설교를 작성하고 영화 같은 설교을 위한 대본을 준비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윌슨은 페이지들을 어떻게 배열하든지, 한 편의 설교에 네 페이지들 모두를 사용하든지 아니할지라도, 네 개의 신학적인 기능들은 설교자에게 기본적인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설교의 작성 후에 각 페이지들

---

179) Wilson, *네 페이지 설교*, 368.

180) Wilson, *네 페이지 설교*, 424- 425.

이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지면 이 페이지들을 다시 섞어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변화와 배열의 선택권을 열어 놓았다.[181]

3.4 페이지 설교의 장, 단점 예화

윌슨은 4 페이지 설교 유형의 장점으로서 네 페이지 설교는 비교적 간단하다고 한다. 예화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네 페이지의 임무를 네 개로 구별하고, 다루기 쉬운 과제를 4 일 동안에 걸쳐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비유적인 표현이 지나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이야기가 방향을 잃치 않도록 해준다. 영화에서의 에피소드처럼 각 페이지에서 설교자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페이지의 순서가 바뀌면 수많은 설교 모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182]

네 페이지 설교 유형의 장점으로 인해 첫째로, 설교 전체의 흐름이 통일되어 하나의 주제가 중심이 되어 적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전통설교의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벗어나게 한다는 점이다. 셋째로 인간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강요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넷째로,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말하는 수직적 문제(Transcendent or Vertical Trouble)와 낮은 자리에서 가책을 느끼며 고침 받고 용서받기를 바라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수평적 문제(Immanent or Horizental Trouble)가 한데 어우러져 나온다는 점이다.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는 수평적 문제와 수직적 문제를 다 사용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는 수직적인 관점만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불의나 고난 같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전달할 수 없고 또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게 된다. 즉 하나님의 심정과 인간의 마음을 잘 들추어 반영하여야 한다. 다섯째로, 성경본문과 현실세계와의 관련성을 청중의 필요에 무관심하지 않고 이어줌으로써 소망적 적용을 던져 준다는 점이다.[183]

그런가 하면 단점도 있다. 첫째로, 본문에서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의 입장이라

---

181) Wilson, *네 페이지 설교*, 26-27.

182) Wilson, *네 페이지 설교*, 445-446.

183) 신성욱,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의 삼중주*, 155.

는 관점에서만 보려는 것은 설교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성경의 모든 본문을 단순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구도로만 풀어갈 수는 없다는 점이다. 셋째로, 설교의 형태가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 인위적으로 경작될 수 있다는 점이다.[184] 넷째로, 전통교회의 에세이 형식으로 설교를 작성하는데 익숙한 대부분의 설교자에게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들에게 친밀한 영화의 각본처럼 설교를 재구성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4 페이지 설교의 구성법은 본문에 충실하고, 그림이나 영화의 장면을 보여 주듯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는 틀이라는 점에서 설교자들의 설교를 참신하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185]

대부분의 설교학자가 윌슨의 설교 작성이 도움이 된다고 동의하는 가운데, 유진 로우리는 윌슨의 방법에서 어떤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 나는 설교 영역에서 두 영역 즉 '율법과 은혜를 50 대 50 으로'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폴 스캇 윌슨의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 나도 사람들이 예배 때 은혜 받고 한 결심을 실천하는 문제에 대해 그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어휘의 양이 그 같은 실천의 척도가 되기에는 부적절하다. 충격의 양, 깨달음의 갑작스러움 그리고 결정적인 통찰력의 힘 등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186]

그러나 유진 로우리의 의견에 윌슨을 옹호해 본다면 로우리가 지적한, 문제와 기쁜 소식(복음) 사이의 정확한 비율(%)을 말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윌슨이 강조하는 것은 "네 쪽짜리 설교의 목적은 1, 2 페이지의 문제를 설교한 다음 3, 4 페이지의 은혜로 지워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목적은 문제와 은혜 사이의 긴장, 우리의 믿음에도 존재하는 긴장을 만

---

184) 김운용, "새로운 설교 형태, 네 장면으로 이어지는 설교," *교회성장* (2007 년 9 월호)

185) 신성욱,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의 삼중주*, 155.

186) Eugene Lowry, *The Sermon* (Nashville, TN: Abingdon, 1997), 74.

돌어 내는 데 있다"[187] 라고 쓰고 있다.

4.4 페이지 설교 사례

- 본문: 눅 23:32-43
- 제목: 나는 어느 편의 강도입니까?

1 Page One: Trouble in the Bible(성경 속에서의 문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일을 보기 위해 도시로 오던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영문도 알지 못한 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알던 백성들과 여인들의 무리가 가슴을 치며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무리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들과 함께 한 무리는 가장 큰 소리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에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과 믿음대로 동참하고 있지만, 드러나는 행동은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동참한 사람은 두 강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끌고 사역의 마지막 현장으로 함께 끌려가고 있습니다. 두 강도의 눈 앞에는 여러 가지 광경에 보이게 되었고, 두 강도는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관심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 전에도 있었고, 자기들 후에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는 사람은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는 30 대의 옆에 남자입니다. 그 남자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그가 쓰러져 넘어져있을 땐 같이 멈춰야 했고, 걸어갈 때는 자기들도 같이 걸어가야 했습니다. 두 강도는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모든 것이 머리 속에, 그들의 고통스런 하나 하나의 몸짓 속에 똑똑히 기억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납고 소리지르며 무시무시하게 달려 드는 무리도 보았고, 자기의 어머니와 여

187) Marc Elliott, *당신의 설교는 창조적입니까*, 145- 146.

동생 같은 여인들이 너무나 큰 슬픔으로 쓰러져 우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소문들을 옆에서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자리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 자신들의 신앙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비방하여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얼토당토 않은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 행악자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한들 자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의인인데 그분을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데려가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Page Two: Trouble in the world (세상 속에서의 문제)

교회가 세상에게 지탄받는 것은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세상과 다르지 않은 방법과 모습으로 살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와서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학벌, 가진 것으로 교회를 도리어 변화시키고 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의 강도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 장 17 절에 보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자신의 본연의 임무인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편리를 제공해 주던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본을 망각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강도의 일이란 것입니다.

어느 전도사가 군대를 제대하고 25 살의 나이로 전도사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군대를 막 제대한 터라 모든 사역이 군기가 들어 신속 정확하게 하던 시기였습니다. 교회에 성탄절 행사가 있어 저녁마다 학생들이 모이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날도 모여서 연습하는데 중소기업의 중간간부를 하던 부장집사님이 교회를 들렀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만원을 간식비로

주고 가려 하셨습니다. 전도사는 이 돈을 받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군기가 든 상태에서 그런 일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과자도 몇 개 살 수밖에 없는 만원을 내놓으면서 사회의 회사 간부처럼 목을 세우고 주는 모습이 도리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먹고 기뻐할 모습에 그것을 받아서 간식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담임목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무슨 거지새끼도 아니고 그런 것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자존심도 없느냐는 표정과 당시 교회의 질서를 잡으려고 예민하게 있는 터에 네가 목회사역에 역행했다는 표정이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을 쳐다보지도, 말을 걸지도 않고 외토리로 고립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좌 우편에의 십자가에 같이 달린 강도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먼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생각은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강도 같은 짓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Page Three: God's Action in the Bible(성경 속에서의 하나님의 반응)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히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할 때 그를 꾸짖어 말합니다. 죄를 받은 네가 죄가 없으신 분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자기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강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일날 일입니다. 어느 시골교회에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 어느 30 대 후반의 목사가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목사가 이곳과 30 분 거리에 있는 교회 두 군대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을 속이고 말입니다. 그러다 두 시간도 넘는 거리에 있는 좀 더 큰 교회에 후임으로 청빙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의 교회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타고난 재능과 능력이 있어 보였나 싶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교묘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군림하였기에 추종하는 세력들은 목숨 걸고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하

다 보니 전임목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가 극과 극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세 교회의 사역은 잘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세 교회를 하는 것에 대해 소속된 노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서 노회법에 따라 한 교회만을 할 것을 권유하자 그 노회를 탈퇴하고 타 노회로 가입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단 내에서 손꼽히는 명설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주께서 구해주신다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강도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4 Page Four : God's Action in the world(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반응)

예수님은 이 시대에 필요한 고백은 비방하는 행악자를 향해 꾸짖는 또 다른 행악자의 고백과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을 만나 뵈오니 죄가 없으시고, 하신 일들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느 주일날 성도 한 분이 열심히 정도를 해서 어느 한 사람이 교회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되자 정확히 전도한 사람이 마당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교회 마당 안으로 들어오다가 무엇을 보았는지 휙 돌아서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회에서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하던 사람이 교회 정문 앞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교회는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교회 다니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하고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어 남을 구원하였으면 십자가라는 죽음 앞에 너도 구원해보라고 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의 강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 6 장
결 론

에드워드 막쿼르트(Edward F. Markquart)는 설교사역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 성경본문도 주어졌고,
> 말씀을 듣기 원하는 회중들도 주어졌습니다.
> 그들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 "주님, 이 시대 속에서,
> 그리고 지금 주어진 교회에서
> 오늘 주일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저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 말씀을 주시고,
>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188]

에드워드 막쿼르트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설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늘날의 설교 사역은 과거와는 또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오늘날의 설교 사역은 과거에 주어진 것과 같은 특권은 상당부분 감소되었고, 설교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놓인 것 같

---

[188] Edward F. Markquart, *Quest for Better Preaching: Resources for Renewal in the Pulpit* (Minneapolis, MN: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5), 5.

다. 월터 브루그만은 설교가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특권을 박탈당한 위험한 직무'로 현실화 되었다고 말했지만, 빠르게 서구화되어가는 한국교회도 이 말이 적용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도 변함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설교자에게는 설교가 생과 사가 달려 있는 문제가 되었다.[189]

포스트모던 시대 설교 형태에서도 예화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예화의 개념은 지금까지의 한정된 형태가 아니라 예배전체가 그 대상이 되기도 하며, 설교 형태의 자체가 예화가 되기도 하며, 설교 안에서의 예화가 예화가 되어야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화와 회중을 감당할 수 있는 틀이 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예화라는 개념의 지극히 제한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예화의 개념을 넓게 잡고 자료를 모으는 기술을 배우고, 설교 형태의 흐름, 언어와 비언어로 하는 의사 소통의 스릴, 회중의 응답과 반응에 대한 기대감 등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설교학 유형에 예화나 스토리를 적용해 보면서 그 어떤 다른 경험이 예화나 스토리이상 일 수 없다는 것과 예화나 최근의 설교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토리는 대지나 명제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명제나 대지와 동등해야 하며, 이제는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동등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190]

전통적인 설교의 문제점으로 설교형태와 설교자에게 많은 비중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191]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설교를 "종교적 독백"이라고 격하시키기도 하고, 회중들은 설교를 비평하기를 "지나치게 분석만 많았지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는다." "너무나도 삶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비인격적이고 명제가 지나치게 많다." "우리 삶의 현장과 너무나 동떨어져 허공에 뜬 소리들만 하는 것 같다." 라는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회중들이 설교를 가리켜 "누군가를 잠들게 하는 훌륭한 자장가"라고 한다면 설교형태의 변화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기에 설교자가 설교의 쌍방 통행을 무시하고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면서, 회중들의 의심들과 견해들, 그리고 의견 차이들을 막아버린다면 설교는 막다른 골목

---

189) Walter Brueggemann, "Life-or-Death, De-privileged Communication," *Journal for Preachers* (1998)

190) John W. Drakeford, *유머 있는 설교 (Humor in Preaching)*, 박희민 역 (서울: 보이스사, 1992), 10.

191) Warren Wiersbe 외 6 인, *심령을 꿰뚫는 설교를 합시다*, 47.

에 부딪치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설교자들에게 또 하나의 질책은 지나치리만큼 과다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중들에게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책임들을 지운다는 것이다. 그래서 회중들은 내용물을 싣고 돌고 도는 컨베어 벨트처럼 계속 들어오는 설교의 정보에 좌절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교 형태의 원인과 구조를 새로운 설교학 유형에서 회중들이 반응할 수 있는 예화를 들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설교에서 일방적인 선포, '원맨쇼'(one man show), 웅변적 강연과 같은 스타일은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 될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은 설교자에게서 어떤 감동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설교자를 통하여 확인하려 하고, 설교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회중은 단순히 앉아서 설교 내용만을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는다. 무언으로라도 대화를 하기 원하며 쌍방향적 설교를 간구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 신학적 방법을 넘어 설교에 이야기식 내지는 드라마식으로, 그리고 상담식과 더 다양한 예화 활용 형태의 설교가 필요할 것이다.[192]

프레드 크래독은 예화나 스토리가 설교의 대지를 설명하거나 보조해서 메시지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전체를 품고 예화나 스토리 자체가 대지이며 메시지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화의 개념을 메시지를 조명하는 것에서 그 안에 메시지 전체를 운반할 수 있는 대지로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193]

그러면 모던과 포스트모던이라는 시대가 맞물려 돌아가는 이 시대의 사고방식을 포착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 방법을 계속 해서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아직도 자신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방법의 설교를 가지고 멀찌감치 서서 그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포스트모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혀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다양한 예화매체를 통해서 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스트모더니스트의 전제와 복음을 거스르는 속박에서 자유로운, 다양한 환기적 심상들(evocative images)을 가지고 말씀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194]

---

192) 최인식, 145.

193) 계지영, *현대 설교학 개론*, 152.

194) Eddie Gibbs, *넥스트 처치*, 89.

포스트모던 사회를 비교하자면 마치 '수족관'(aquarium)과 같은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 것이라는 것이다. 수족관 안에서는 직선적인 공간과 시간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앞뒤 좌우나 먼저 되거나 나중의 개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동시적이며, 총체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기계적 세계에서 전자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은 유클리드 공간에서 아인슈타인의 공간으로의 전환과 같다. 환경에 대한 인식은 '컨셉트'(concept)가 아니라, '퍼셉트'(percept)식이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의 모든 감각을 통한 총체적 파악을 추구하는 인간의 지배가치는 '통시성'(diachronism)이 아니라, '동시성'(synchronism)으로 된다는 것이다.[195]

이와 같은 포스트모던 사회의 영향을 받게 되는 한국교회의 설교가 서양의 새로운 설교학 유형을 받아들임에 있어 신학과 사상을 주의하여 한국의 설교 형태에 조심스럽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 유학이나 책에서 배운 것으로 한국교회 강단에서 실행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한국교회의 설교가 한국교회 회중의 삶에 대한 다양한 감각을 이해하고, 예화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상황의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설교자가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설교형태나 예화를 가지고 설교하려는 것은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회중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예화는 플라톤적 좌뇌적 사고의 기반에 둔 설교와 예화를 한국교회의 기반이 되는 우뇌적 사고를 반영함으로써 그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설교학 유형을 연구하면서 지금의 설교 유형도 전통적인 설교화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문화혁명과도 같은 미디어라는 새로운 매체가 자리를 잡고 있다. 말콤 머거리지(M. Muggeridge) 는 "그리스도와 미디어"라는 저서에서 인류문명에 미치고 있는 미디어 전반에 걸쳐 그 부정적인 영향(예를 들어 텔레비전 같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196] 한국교회의 설교가 아직도 전통적인 설교 형식에 매여 있는 상황에서 현대의 회중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새로운 유형의 설교를 지나 이머징처치 교

---

195) Marshall McLuhan, and Bruce R. Powers, *The Global Village: Transfrmations in World Life and Media in the 21st Century*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92.

196) Malcolm Muggeridge, *Christ and the Media*, foreworded by Billy Graham (Grand Rapids, MI: Eerdmans Pub., 1977).

회의 실험적 설교 유형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설교현장에서는 새로운 매체로서의 멀티미디어에 대한 입장을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197] 앞으로의 설교 사역이 또 다른 새로운 설교학 유형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논문의 결론적 제안은 새로운 설교학 유형에 예화 활용을 적용하면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교수인 도널드 메서(D. E. Messer)의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정보고속도로망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198]이라는 것이다. 현시대에 주신 다채로운 예화의 형태들을 통하여 이를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중에 맞게 적극 활용하여 설교 사역에 새로운 숨통을 트고 다시 비상하는 설교 사역이 되기를 바래본다.

---

197) 최인식, 156.

198) Donald E. Messer, *Calling Church and Seminary into the 21st Century* (Nashnille, TN: Abingdon Press, 1995), 117,121.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김경철·정성구. *21 세기 한국교회와 이야기식 설교*.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1.

김은철. *가슴 시원한 설교*. 서울: 쿰란출판사, 2010.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_____.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설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7.

_____. *새롭게 설교하기*. 서울: WPA, 2005.

_____. "새로운 설교 형태, 네 장면으로 이어지는 설교." *교회성장* (2007 년 9 월).

김진년. *크리스챤,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6.

계지영. *현대 설교학 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신성욱.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의 삼중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IVP, 1999.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이형기. *21 세기를 향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의 모색*.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임종달. *커뮤니케이션과 기독교 교육*. 서울: 서울서적, 1993.

정병관. *복음 혁명을 주도하는 세계 17 대 교회*.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 개론*.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1.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1.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3.

_____. *영상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설교하라*.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4.

채경락. *퇴고 설교학*.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3.

하진환. *설교의 영광*.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홍영기. *설교의 기술*.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7.

2. 번역 서적

Allen, Ronald E. *34 가지 방법으로 설교에 도전하라 (Patterns of Preaching)*. 허정갑 역.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4.

Augustine. *그리스도교 교양*. 성 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9.

Brown, Henry C. *설교의 구성론 (Steps to the Sermon)*. 정장복 역. 서울: 양서각, 1987.

Chartier, M. R. *설교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Preaching as Communication)*. 차호원 역. 서울: 소망사, 1985.

Craddock, Fred B. *권위 없는 자처럼 (As One without Authority)*. 김운용 역. 서울: 예배와 아카데미. 2004.

Drakeford, John W. *유머있는 설교 (Humor in Preacing)*. 박희민 역. 서울: 보이스사, 1992.

Duduit, Michael. *능력 있는 설교 이렇게 한다 (Preaching with Power)*. 권영주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Elliot, Marc. *당신의 설교는 창조적입니까 (Creative Styles of Preaching)*. 성종현 역. 서울: 그루터기 하우스, 2001.

Fore, William F. *매스미디어시대의 복음과 문화 (Mythmakers)*. 신경혜, 홍경원 역. 서울: 기독교서회, 1998.

Gibbs, Eddie. *넥스트 처치(Next Church)*. 임신희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Hybels, Lynne, and Bill Hybels. *윌로우크릭 커뮤니티교회 (Rediscovering Church)*. 김성웅 역. 서울: 두란노, 2005.

Jones, Martyn Lloyd. *설교와 설교자 (Preaching and Preachers)*. 정근두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05.

Lowry, Eugene L. *이야기식 설교 구성 (The Homiletical Plot)*. 이연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Miller, Calvin. *설교: 내러티브 강해의 기술 (Preaching: The Art of Narrative Exposition)*. 박현신 역.

서울: 베다니, 2009.

_____.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자 (The Empowered Communicator)*. 최예자 역. 서울: 프리셉트, 2006.

Reid, Clyde. *설교의 위기(The Empty Pulpit)*. 장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Robinson, Haddon W. *강해 설교의 원리와 실제 (Biblical Preaching)*.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Stone, Dave. *청중을 사로잡는13 가지 맛깔스런 설교 레시피 (Refining Your Style)*. 김지홍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Sweet, Leonard. *모던시대의 교회는 가라 (Aqua Church)*.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4.

Wells, David. *윤리 실종 (Losing Our Virtue)*. 윤석인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7.

Wiersbe, Warren W. *상상이 담긴 설교 (Preaching and Teaching with Imagination)*. 이장우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_____. *이미지에 담긴 설교 (Preaching Teaching with Imagination)*. 이장우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8.

Wiersbe, Warren W. 외 6 인. *심령을 깨뚫는 설교를 합시다*. 배응준 역. 서울: 나침판사, 1997.

Wilson, Paul Scott. *네 페이지 설교(The Four Pages of the Sermon)*. 주승중 역.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6.

3. 외국 서적

Allen, Ronald. *Patterns of Preaching*. St. Louis, MI: Chalice, 1998.

Brueggermann, Walter. "Life -or-Death, De-privileged Communication." *Journal for Preachers*, 1998.

_____. *Text under Negotiation: The Bible and Postmodern Imagination*. Minneapolis, MN: Fortress, 1993.

Craddock, Fred B. *As One without Authority*. Nashville, TN: Abingdon, 1978.

Davis, H. Grady. *Design for Preaching*. Philadelphia, PA: Fortress, 1958.

Dillard, Annie. *Teaching a Stone to Talk*. New York: Harper& Row, 1985.

Ebeling, Gerhard. *Theology and Proclamation*. Philadelpha: Fortress, 1966.

Fred B. Craddock.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1985.

Gibbs, Eddie, and Ryan K. Bolger. *Emerging Churches: Creating Christian Community in Postmodern Cultures*. London: SPCK, 2006.

Grenz, Stanley J. *A Primer on Postmodernism*.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1996.

Lowry, Eugene L. *The Homiletical Plot*. Atlanta: John Knox Press, 1980.

_____. *The Sermon: Dancing the Edge of Mystery*.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7.

Markquart, Edward F. *Quest for Better Preaching: Resources for Renewal in the Pulpit*. Minneapolis, MN: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5.

McLuhan, Marshall, and Bruce R. Powers. *The Global Village: Transfrmations in World Life and Media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Messer, Donald E. *Calling Church and Seminary into the 21st Century*. Nashnille, TN: Abingdon Press, 1995.

Muggeridge, Malcolm. *Christ and the Media*. Foreworded by Billy Graham. Grand Rapids, MI: Eerdmans Pub, 1977.

Sarno, Ronald A. *Using Media in Religious Education*. Birmingham, AL: Religious Education Press, 1987.

Simpkinson, Anne A. "A Woman of Faith." *Common Boundary* 17 (May/June 1999).

Tillich Paul. *The Spiritual Situation in Our Technical Sciety*. Edited and introduced by J. Mark Thomas.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88.

_____. Die Technische Stadt Alssymbol (1928). In Cesammelte WERKE, Bd, 9. Stuttgart: 1975.

Van Gelder, Craig. "Postmodernism as an Emerging Worldview." *Calvin Theological Journal* 26 (1991).

Vita of

Yong Eun Lee

Present Position:

Assistant Pastor of the Zion-City Presbyterian Church of Los Angeles, CA.

Personal Data:

Birth Date:	January 28, 1969
Marital Status:	Married to Eunhee Ju
	With Mose, Haneul
Home Address:	7777 Valley View St, La Palma, CA 90623
Phones:	714-864-8599
Denomination:	Korean Presbyterian Church (Daesin)
Ordained:	October 28, 2002 in Korea

3) Education:

B. Th.	Anyang Theological University, Gyeonggi-do, Korea, 1991
M. Div.	Anyang Graduate School of Theology, Gyeonggi-do, Korea, 1997
M. Div.	Bethesd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Anaheim, CA, USA, 2013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USA, 2017

4) Personal Experience:

2002 to 2003	Assistant Pastor of Jang Ja Presbyterian Church, Korea
2004 to 2008	Assistant Pastor of Hong Cheon Presbyterian Church, Korea

2008 to 2009	Senior Pastor of Gyeong Gang Presbyterian Church, Korea
2010 to 2013	Assistant Pastor of Ye-Kwang Presbyterian Church, CA, USA
2014 to 2016	Assistant Pastor of Glory Church, CA, USA
2016 to Present	Assistant Pastor of Zion City Presbyterian Church, Los Angeles, CA, USA